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한국일보 토론토

No.1048-1049 1983년 2월4일(금) & 5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Friday & Saturday, February 4 & 5, 1983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FEB 4 1983

메트로·토론토 한인교회 44개

지난1년간 8개 늘어
장로교 19개로 최다

본사가 최근 집계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82년말 현재 메트로·토론토지역에 산재해 있는 한인교회수는 10개교파 44개교회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 1년동안 교회 8개가 새로 창설되어 한해동안 약 2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들 44개 교회를 종파별로 보면 장로교회가 19개교회로 가장 많고 다음은 연합교회 6개였으며 다음은 감리교(2), 침례교회(2), 순복음교회(2), 펜티코스탈교회(2), 성결교회(1), 천주교회(1), 성공회(1), 안식교(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교단배경이 없는 독립교회가 6개가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성경학교 2개, 기독교 선교목적의 단체가 4개, 기도원이 4개로 나타났다.

연합활동단체를 보면 교역자협의회, 장로연합회, 교회학교교사연합회, 기독여성회연합회등이 활발한 모임을 가지고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메트로·토론토를 제외한 온타리오주의 한인교회는 약 20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토론토 일원에는 가정중심의 평신도 성경공부, 예배활동을 위한 신앙공동체의 소그룹 모임도 약 10여개로 추정된다.

김득구선수가족
보험금 10만불 수령

(서울3일=연합)한국권투위원회(KBC)는 3일 WBA로부터 김득구선수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100,000 수표를 송부받았다.

미국의 컨티넨탈·캐슈얼티 보험회사는 WBA를 통해 한국권투위원회의 양정규회장 앞으로 송금했으며 KBC는 이를 김선수의 가족과 김선수의 약혼녀인 이영미씨에게 합의에 따른 4대6의 비율로 분배 전달할 것이다.

김선수는 작년 11월13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WBC 라이트급 챔피온에 도전하다가 뇌에 타박상을 입어 쓰러진후 사망했다.

김선수의 어머니 양선녀씨 역시 최근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타격으로 비관한 나머지 음독자살했다.

미사일실험 허용 협정
캐나다·미국협정 조인 임박

(오타와)미국이 캐나다안에서 크루즈·미사일과 기타 무기의 시험을 허용하는 양국간 협정이 2, 3일내로 조인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순방을 끝내고 2일 오타와로 돌아온 앨런·매케큰 외무장관은 4일까지 하원에서 이 협정에 관한 서류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소식통이 전했다.

반핵단체들과 신민당및 보수당과 자유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 협정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한 반핵단체는 1일밤 오타와의 평화탑 앞에서 철야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1일 제네바의 핵무기 감축위원회에서 연설한 매케큰장관은 캐나다정부가 미국의 시험발사를 허용할 방침임을 확인했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핵 대피소 판매

유럽에서는 전에 없이 핵 위협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는 「핵대피소」를 일반에게 판매할 계획을 지난주 발표했다.

자동차 판매회사의 앨버트·브라운 사장등 3명의 실업가가 고안, 이미 영국동부 캠브리지샤주 피터보로시의 개발공사로부터 약 0.4헥타의 대지를 사들였다.

여기에 세워질 핵 대피소는 250세대,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입주가격은 1인당 1천9백50폰드라고.

◆2일 조·클락 야당당수의 사임으로 임시 당수직을 맡게된 유콘언주 하원의원 에릭·닐슨이 당수석에 착석 하자 보수당 의원들이 박수로 맞고 있다.

보수당 임시당수에 에릭·닐슨
조·클락당수 정식사임

(오타와)보수당 연방하원의원들은 2일 야당 당수직을 사임한 조·클락 의원의 후임으로 강력한 클락지지파이며 존·디펜베이커정권의 강력한 참모였던 에릭·닐슨의원(유콘지역)을 임시당수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임시당수는 보수당의 당수선출전당대회가 있기까지 당수직을 맡게된다.

클락은 비록 야당당수직은 사임했으나 오는 18일과 19일 있을 당집행위원회 모임까지 보수당당수직은 그대로 고수한다.

클락은 지난 주말 전당대회에서 66.9%의 지지율을 얻어 지도력을 발휘하기에 충분한 신임도가 안된다는 이유로 사임을 [illegible]했었다.

야당당수의 [illegible]은 $38,500이며 따라서 클락의 봉급은 $105,600에서 보통 의원들의 봉급인 $67,100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클락의 사임이후 가장 강력히 당수 물망에 오르고 있는 앨버타주의 피터·로히드 수상과 온타리오주의 윌렴·데이비스 수상은 둘다 당수직 경합에 나서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결코 가능성이 전연 없다고 잘라서 말하지는 않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변호사 출신의 로히드는 앨버타주의 붐을 이루는데 역량을 발휘, 서부지역에서는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반면 그외 지역에서는 인기가 적으며 프랑스어를 못한다는 약점이 있다.

역시 변호사 출신인 브램톤태생의 윌렴·데이비스 수상은 온타리오주내에서는 강력한 "승자"로서의 이미지를 구가하고 있는 반면 퀘벡주나 서부지역에서는 기반이 없고 프랑스어도 유창하지 않다.

이들 두사람 이외에 전 토론토시장인 데이빗·크롬비, 자수성가한 천만장자로 에드몬톤·오일러즈 하키팀 구단주인 피터·포클링톤, 전재무장관 존·크로스비등이 유력하나 현재까지 정식으로 클락에 도전해온 사람은 브라이언·멀로니뿐이다. 변호사이며 비지네스맨인 멀로니씨는 76년 보수당 당수경합 초반전에서 조·클락을 리드했었으나 후반에 탈락했었다.

샤린양은 강간후 목졸려 숨져
경찰, 39세 용의자 전국 수배령

실종 10일만에 브룬스위크·에비뉴 482번지의 2층 냉장고 속에서 1일밤 시체로 발견된 9살의 깜찍한 소녀 샤린양은 강간된뒤 목졸려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2일 발표된 샤린양의 시체해부결과에 따르면 샤린양은 또한 실종된 1월23일 밤 혹은 그 이튿날 새벽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

메트로경찰은 샤린양의 시체가 발견된 2층방에 주 $45를 주고 수주일전부터 혼자 세들어 살다가 최근 자취를 감춘 마이클·번즈라는 가명을 가지고 있는 39세의 마르고 골격이 좋은 가무잡잡한 피부의 남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

덥수룩한 웃차림에 5피트8인치, 150파운드의 체격을 가진 이 용의자는 스파다이너·애비뉴에 있는 직물회사에 임시고용되었으며 1주일전부터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샤린양이 진·시빌리우스 공원에서 범인의 꾀임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샤린양은 실종되던 날 학교지원 티켓을 팔기위해 이웃을 돌아다녔으나 1장도 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집 지하실에 살고 있던 스페인계 남자는 샤린양이 실종된 날 밤늦게부터 새벽까지 윗층에서 유난스레 부산대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 경찰에 연락을 하려다 영어를 못해 그만두었다고 말하고, 아마도 그 소리가 샤린양이 죽어가는 소리였을 가능성이 짙다고 말했다.

「TV한국」 방영시간
8일부터 주 2회에서 3회로

지금까지 주2회 방영돼오던 「TV한국」이 오는 8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5시반 CH. 47(케이블 4)로 1회추가, 매주 3회 방영된다.

「TV한국」은 지금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CH. 47과 일요일 오전 8시 CH. 79(케이블 7)로 오전시간만 방영했다.

로저스·케이블(Rogers Cable)회사의 콘버터(Converter)를 가진 가정은 화요일 저녁 7시30분과 토요일 저녁 7시에 CH. 34에서 「TV한국」을 시청할 수 있다.

「TV한국」은 한인회가 운영하며 현재 아나운서는 김현옥양이다.

蘇, 한반도등서 局地戰가능
北韓선 "이때다" 南侵할지도
와인버거 美國防,議會증언

소련은 증강된 군사력을 시험키 위해 한반도를 포함한 서남아시아지역과 서부유럽지역등 두곳에서 동시에 국지전을 유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캐스퍼·와인버거 미국방장관이 의회에서 증언했다.

그는 만약 소련의 재래식 군사력이 이 두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내지 포위한다면 『북한측은 그 기회를 이용, 아마도 한국에 대하여 전술공군력과 우세한 지상군으로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와인버거장관은 이보고서에서 장차 예상될지도 모르는 장기적인 핵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약1백82억 달러의 전략무기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예산의 3분의 1은 MX미사일생산비에 투입될 계획이다.

은하 보석
란콤화장품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오늘의 예금금리(1/25부터)

기 간	한인신용조합 신용조합	오투기정기예금	시중은행
30일	9%		8%
90일	9.5%		8.5%
180일	9.5%	9.25%	8.5%
365일	9.5%	9.25%	8.5%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쌀 하면 '선학'표!!

구수하고 끈기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산
값도 제일 선학
맛도 제일 햅쌀

특별가격
50Lb 정량
$15.95

토론토에서 첫 선 보인지 1개월도 안되어 대인기 —
여러분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대매출기간을 2월말까지 연장코
4개식품점에서 판매중에 있읍니다。

□판매처 삼복식품·제일식품·한발식품
서울식품(동부·서부·해밀톤)
□수입원 : 금성 Company Ltd.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코인·박스 분과위 구성

라이온스클럽, 당료병치료 기금위해

토론토한인라이온스클럽(회장 서춘경)은 2일 콘로이(Conroy)호텔에서 2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실업인협회및 캐나다당뇨병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코인·박스(Coin box)를 통한 모금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펴기로 결의했다.

회원 46명으로 구성된 라이온스클럽은 노금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김태진부회장을 선출했다.

새로 발족된 모금분과위원회는 빠른 시일내에 자체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0여개의 코인·박스가 실업인협회 회원소유 상점에 배달되고 있으며 코인·박스를 통해 모금되는 성금은 매년 증가일로에 있는 당뇨병환자의 치료를 위해 쓰여진다.

이날 정례회의는 김국범·김병은·조충원·차인규·최동추씨등 5명의 신규회원(라이온)에 대한 신입가입식도 가졌다.

85만불 손해배상 청구

혐의풀린 수잔·넬즈 간호원

◆수잔·넬즈양

어린이병원(Sick Children Hospital)의 아기 4명에 대한 살해범으로 기소되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풀렸던 이 병원의 전직간호원 수잔·넬즈양은 2일 온타리오주의 고위 법관및 경찰간부들을 상대로 $854,000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넬즈양이 배상을 청구한 상대는 로이·맥머트리 온타리오주 검찰총장, 잭·아크로이드 메트로·토론토 시경국장, 당시 사건을 수사한 살인사건전담반의 제임스·크로포드 경위와 잭·프레스 경위, 앤토니·와 경사이다.

넬즈양은 지난 81년 4명의 영아살해사건 혐의자로 몰려 5일간 구속됐다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기 까지 변호사비등 약 30만달러를 쓴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0년 어린이병원에서는 30여명의 아기가 의문의 죽음을 했으며 아직도 이 사건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넬즈양은 아버지와 오빠가 의사로 그녀의 아버지는 넬즈양이 살인자로 몰린데 대한 쇼크로 인해 그녀의 혐의가 풀린지 수개월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정초 법요식 13일 선련사

한국 불교회 선련사(주지 김삼우 스님)는 2월13일(일) 계해년 음력설날을 맞이하여 오전11시부터 정초법요식을 봉행한다.

정초법요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오전 11시 관음기도정근, 12시 발원문 낭독, 12시반 삼우스님 법문-"가는자와 오는자의 의미"

◉오후 1시 신년인사와 대중공양, 2시 삼우스님 일행 한국사찰 탐방 슬라이드 상영.

선련사는 또한 2월14일부터 1주일간 세계 영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해 정초 7일기도를 보행한다.

기도는 매일 아침5시부터 7시까지 · 11시~1시 · 저녁 7시~9시까지 하루 세번, 19일(우수) 토요일에는 철야 정진 기도하고, 20일(일) 정오에 회향한다.

김삼우스님은 "나와 나의 친지뿐 아니라 온 누리가 평화스럽고 만인중생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큰 맘을 써 이 정초 7일기도에 동참하도록 요망한다"고 밝혔다.

정초법요식과 7일기도에 대한 문의는 선련사 533-6911, 532-2491로 하면된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3중 이식수술 성공

심장과 양쪽허파 동시교환

가디오미오퍼디(Cardiomyopathy)라고 불리우는 만성병으로 꺼져가는 목숨을 연명해 가던 키치너에 사는 19세의 학생이 1일 심장과 양쪽허파 2개의 이식수술등 3중이식수술을 받았다.

카메론·에반스군의 의학사상 극히 드문 3중이식수술은 미국 피치버그에 있는 장로교신학대학병원에서 바트리·그리피스박사가 주도하는 의료팀에 의해 8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에반스군에게 이식된 심장과 허파 2개는 최근 권총자살로 죽은 아틀란타에 사는 역시 19세의 청년의 것이다.

에반스군은 피츠버그에서 이식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지난 11월이후 「토론토종합병원에서 입원해 있었다.

교민동정

◆강공선(실협 상담실장)=2월8일로 실협 상담실 근무만 1년을 맞이하는 강공선 실장은 2월6일부터 2주간 휴가차 뱅쿠버 여행을 떠나게 되었 .

그동안의 상담실업무는 차선경 회장이 직접 대행하기로 하였으므로 회원들은 평상시와 같이 상담실을 이용하기 바란다고 한다.

서울올림픽 기념주화

3월부터 주문받아 7월 시판

(서울3일=연합)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SLOOC) 김용식 회장은 3일 올림픽 제전을 위한 각종 모금사업을 발표하면서 외국 TV회사와 중계권 계약을 내년초에 체결할 것이며 이 계약으로 약 50억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또한 모금사업을 위해 주화를 제작 판매, 약 1천8백70만달러를 거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LOOC는 10만세트를 발행할 기념주화는 1000원짜리 니켈화로부터 20,000원짜리 은화로서 3월에 주문을 받아 7월에는 판매할 계획이다.

작년도에 SLOOC은 20,000세트의 기념주화 판매로 약 14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김회장은 이외에도 올림픽 복권 판매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순복양 구속

「미스 서울」

(서울 2일=연합)서울 검찰청은 2일밤 미국에서 추방당해 귀국한 전 미스서울 이순복양(28)을 김포국제공항도착 즉시 여권법위반으로 체포, 구속 송치했다.

이양은 지난해 여름 위조여권으로 동거남자친구인 한승희씨와 미국에 입국했는데, 한씨 역시 미국당국에 의해 작년 10월 추방당했고, 금년 1월에는 한국지방법원에서 여권법 위반죄목으로 5년 징역에 처해졌다.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이양은 미당국에 한씨로부터 미국으로 납치당해 학대당하고 있다고 고발했었다.

▼궁전속의 공주-아버지 레이니에공과 함께 파리를 방문한 모나코의 캐롤라인공주가 미테랑대통령과의 오찬이 열릴 엘리제궁을 찾아 궁전입구에서 주변을 돌아보고있다. 〈파리-AP〉

金聖鍾 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63>

이상한 女人 ⑧

"내가 살기위해 누이를 희생시킬수 없다"

그는 남편으로서의 위엄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형사들이 왔다구? 무슨 일이지?』

하고 말했다.

『회사에 전화 걸었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으세요?』

『전화 바꿔봐.』

『잠깐 기다리세요.』

잠시후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두봉씨 되시오?』

『네, 그렇습니다만…』

『경찰입니다. 지금 어디 계시는가요?』

『그보다도…무슨 일로 그러시는가요?』

그의 목소리는 자기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만나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딥니까?』

『무슨 일로 그런지 그것부터 말씀해주십시오.』

『만나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위치만 말씀해주십시오.』

『여긴 시냅니다.』

『시내 어딥니까?』

경찰은 집요하게 캐어왔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종로통입니다.』

『종로어디?』

『화신 앞입니다.』

『곧 갈테니까 거기서 만납시다. 기다려야합니다.』

『꼭 만나야되나요?』

『꼭 만나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기다려 주시겠죠?』

『알았습니다.』

朴男 그림

그는 을지로에 있었다.

그는 화신 앞으로 가지않았다. 그곳에 가서 경찰을 기다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제부터 쫓기는 몸이라고 생각하니 갈데가 없었다.

그는 식은 땀을 흘리며 다방에 한동안 앉아있다가 밖으로 나왔다. 곳곳에 감시의 눈들이 있는것 같아 몸지이기가 두려웠다.

이렇게 빨리 경찰의 추적을 받을 것이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다. 경찰이 귀신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도무지 자신이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들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어디로 갈까? 이 넓은 세상 천지에 이 몸 하나 가릴데가 없구나.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지. 그는 자신이 토막살인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굳이 부인하고 싶지않았다. 만일 체포된다면 모든 것을 뒤집어쓸 각오는 되어있었다. 자신이 굳이 진실을 밝히려든다면 누이가 대신 희생되는 거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누이를 희생시키고 싶지는 않았다.

모세를 독살시킨 것은 누이였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그렇게 끔찍히 토막낸 것도 누이였다. 물론 최음 시체 처리문제가 나왔을때 토막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 자신이었다. 그러나 그는 막상 시체에 손을 대지 못했다.

김대중씨가 말하는 납치진상 ⑦

네번째의 죽을 고비

지치고 절망, 죽음을 생각 신앙과 국민이 지탱이 돼

"피고 김대중을 사형에 처한다."-1980년 9월17일에 나는 군사법정 제1심의 사형선고를 덤덤한 마음으로 들었다.

한국동란때도 잡혀

내가 남과 다른 점은 이때까지 죽을 고비를 세번이나 겪은 체험이다. 첫번은 1950년6월에 터진 한국동란때다. 나는 고향 목포에서 해운업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서울 출장중 전쟁을 만났다. 그때의 이야기는 납치사건전에 일본서 출판한 나의 저서 〈독재와 나의 투쟁〉(1973년 6월 광화당 발행) 속에도 자세히 썼지만, 나는 간신히 목포로 돌아왔으나 북괴군에게 「반동분자」라 하여 체포당했다. 나뿐 아니라 아우와 장인(사망한 전처의 아버지)까지 3명이 체포됐다.

이때 함께 잡힌 인원은 모두 220명이며, 그중 140명이 살해됐다. 기적같이 우리 가족 3명은 살아남은 80명중에 끼었다.

나는 형무소에 있었으므로 살았고, 장인은 다른 이들과 함께 계곡으로 끌려가 사살되려는 순간 총소리에 기절해 쓰러졌다. 총알이 빗나갔다. 북괴병사가 "저놈은 아직 살아있어."하면서 2발을 더 쏘았으나 그 2발도 빗나갔다. 결국 3발중 1발도 맞지 않은것이다. 기적같았다.

두번째 죽음의 위기는 이미 밝혔듯이 1971년 5월 국회의원선거 응원유세중 꾸며진 고의적 교통사고였다.

세번째는 73년 8월의 도쿄에서 벌어진 납치살해음모였다.

단념도 빨라

이와같이 몇번이나 사경을 넘어왔으므로 나는 단념이 빨랐다. 어떤 뜻에서는 심신 아울러 피로에 지쳐 있기도 했다.

◆80년 8월14일 군법회의 첫공판의 김대중씨.(앞줄 우로부터 두번째)

"이제까지 무던히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적당히 끝나도 되지 않겠는가. 살아있어도 내가 정신을 바꾸지 않는한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고 정신을 바꾸기는 죽기보다 괴로운 일. 결국 살아나도 고통만 당하니까 이쯤 하고 죽는게 편할지 모른다…."

이같이 스스로를 설득했던 것이다.

그러한 입장에 서게 되면 종교를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뒤에 대한 기대가 다르다. 생사의 기로에 내몰리면 신자에게는 근본적으로 신앙이 의지가 된다.

나에 대한 사형판결 이유는 기소장대로 내가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일본본부 의장에 취임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판결에 앞서 사형을 구형받은 나는 9월13일 100분에 걸쳐 아래와 같이 최후진술을 했다.

"당신들은 지금 나를 죽일 수 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정권을 장악할 수도 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하느님이 살렸다

그리고 나는 아래와 같이 말을 이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일 수 있다. 아무리 나에게 사형판결을 내려도 하느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그 사형판결을 뒤엎고서라도 나를 살려주신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나를 이 이상 당신의 도구로 쓰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나는 죽는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

이것은 나의 신앙이지만 억압받는 중에서 보여지는 국민의 힘과 세계여론에 대한 나의 현실적 신념이기도 했다.

이같은 최후진술이 끝나자 방청석의 가족들은 박수치며 환성을 지르면서 일어서서 만세를 불렀다. 모두가 「애국가」를 불렀다. 눈물겨운 광경이었다.(계속)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부부화합은 경제안정에"

갤럽, 6개국 결혼관 비교

한국은 경제, 인생관, 자녀의 순

부부가 화합하는데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한국인은 경제안정과 동일한 인생관, 그리고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운다.

한국·일본·미국·프랑스·영국·서독등 6개국의 갤럽조사연구소는 15세미만의 자녀를 가진 각국의 남녀를 대상으로 부부의 화합조건을 조사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소장 박무익)가 전국의 1,065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가정방문과 개별면접으로 조사한 결과 부부화합의 조건으로 경제적 안정을 지적한 사람이 28.6%, 인생관이 같아야한다는 응답자가 26.1%였다.

이에 비해 구미에서는 인생관이 같아야 한다는 조건이 55% 이상이고 특히 서독은 73%에 달해 동양인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부부화합조건으로 우리나라에서 중요시하는 경제적 안정(28.6%)은 일본에서는 두번째(27.9%)로 꼽히지만 그 비율은 엇비슷하다.

이에 비해 서독·미국·영국·프랑스등은 4.2~7.8%의 비율이어서 동서양간에 의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서양간의 또다른 의식의 차이점은 인생관이 같아야한다는 조건이 동양권에서는 40%미만(일본 38.1%, 한국 26.1%)인데 비해 서양에서는 44.5%(영국)~73%(서독)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녀가 있어야한다는 조건도 한국(13.1%)과 일본(20.5%)은 3위로 부상된 조건인데 비해 구미는 낮은 비율을 보였다.

결혼전의 생활환경이 비슷해야 한다는데 대한 의견은 우리나라에서 10.7%에 달한데 반해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는 무시해도 좋을만큼 낮은 비율이었다.

취미가 같아야한다는 항목에는 영국사람들이 27.7%로 제2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기타 국가는 평균 4.5%정도였다.

남녀별 응답의 차이는 「인생관이 같아야한다」, 「취미가 같아야한다」는 응답은 여성측에서, 「경제적 안정」과 기타항목에는 남성들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자녀를 부부화합의 조건으로 내건층은 젊은 층이고 인생관·신앙·경제적안정을 손꼽는 층은 비교적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다.

학력별로는 중졸층이 자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대졸수준은 인생관을 조건으로 내건 응답자가 많았다.

금주의 스페샬

○갈치(한국산) 1Lb $1.10
○갈비(Frozen) 1Lb 98¢
○국보쌀(햅쌀) $21.94

$100이상 쇼핑시
샘표간장을 무료로 드립니다.

월간잡지 1월호 인기리에 판매중
주부생활 · 여성동아 · 여성중앙 · 샘터등

삼복식품
2437 FINCH AVE. W.
☎743-8270

동양식 디자인의 수입품
다양한 색갈과 품질. Rugs·담요·카펱 직사각형 등근형 8각형

Sarouk Kirman Chinese

OLYMPIC CARPET
763-4307
2763 Dundas St. W.
(at the corner of Indian Rd. Cres.)

FREE UNDERPAD
이 쿠폰을 2월15일까지 가져 오시면, 카펱을 살때 underpad(카펱 밑에 까는 스폰지)를 Free로 줍니다.
COUPON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마릴린·먼로가 죽은지 20년. 아직도 그녀의 인기는 죽지 않아 포스터에서 후추가루병에 이르기까지 먼로의 이름을 팔아 판치고 있다

마릴린먼로 死後20周年 이름이 누리는 人氣여전

「사랑스런 섹스의天使」라는 神話 사춘기少女·온갖 商品의심볼로

마릴린·먼로의 사후 2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그녀의 이름이 누리는 인기는 여전하다.

일찌기 소설가 노먼·메일러가 「사랑스런 섹스의 천사」라고 불렀던 먼로의 신화는 연극으로, 전기로, 노래로 꾸며져온 한편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온갖 상혼들이 꾸며내는 실물대의 카드보드초상과 입체포스터, 달력, 침대시트, 쇼핑백, 마스크, 『날 침대로 데려가요, 몸을 덥혀줄테니까』라고 선전하는 뜨거운물병, 돼지저금통, 후추가루병, 재떨이, 먼로의 마지막 수면제를 연상시키는 약병, 샤워커튼, 네글리제등 기념품들이 널려있다.

먼로의 생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프랑스의 사춘기소녀들은 파리의 마릴린 기념품점에 몰려가 「라·마릴린」의 머리스타일과 평상복들을 모방해 치장한다.

뉴욕시제조업자가 만든 먼로의 인형들 중에는 털코트와 다이어먼드귀걸이를 걸친 6천달러짜리 16인치높이의 도자기 인형도 포함되어 있는데 내달 뉴욕에서 열리는 미국장난감박람회에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주 뉴욕 블루밍데일 백화점내의 「리멤버 마릴린」상점은 먼로스타일의 브라우스, 스웨터, 통좁은 바지등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마릴린 사후20주기를 기념하는 또하나는 뮤지컬 「마릴린!」으로 오는 3월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개막된다.

마릴린역에는 지난해 가을 BBC방송의 제작영화에서 먼로역을 맡았던 스테파니·로렌스인데 그녀는 뮤지컬 「마릴린!」을 위해 출연중인 「에비타」의 타이틀롤을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먼로의 이름을 상품화하는데 대한 모든 면허대리업을 이행하며 먼로의 소유재산을 대표한다는 권리는 LA의 변호사에 이전트 로저·리치맨이 먼로사후 20년이 된 지난 8월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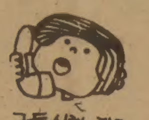
리치맨은 요즈음 먼로의 유품들을 사고파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먼로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공식적인 M.M. 상표를 사용하는 댓가로 총수입의 6%를 내놓도록 하고있다.

먼로의 유산은 50여만달러상당의 재산과 정기적인 영화로열티 수입으로 알려졌다.

엘비스·프레슬리의 기념품들을 상품화하는 권리도 보유하고 있는 리치맨은 그러나 쏟아져나오는 조잡하고 유치한 먼로의 기념품들을 모두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다.

먼로의 세번째 남편이었던 극작가 아더·밀러는 먼로식의 인기를 누리는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 자작희곡 「After the Fall」에서 그녀의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충고를 주고있다.

「그들은 그저 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엄성을 파괴하는거야」라고. 그리고 그말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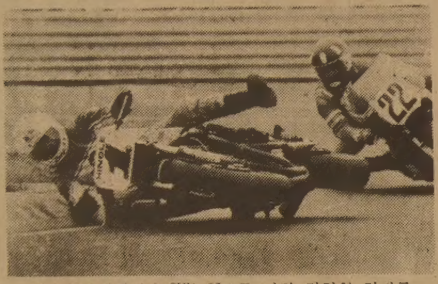
구독신청·광고
533-2361

모터사이클·자동차競走·아이스하키

스포츠중 가장 격렬

美스포츠 心理學者 뷰시 각종경기 危險度조사

축구56·복싱54·競馬등이 52
풋볼·농구… 격렬指數48
13세이하 어린이 과격한 운동 禁止 바람직



▲스포츠격렬지수(SVI) 66으로 가장 격렬한 경기로 지목된 모토사이클경기.

스포츠에 있어서 격렬해지기 쉬운 성향은 지난 수년동안 논쟁대상이 되어왔다. 인간의 본능적인 폭력근성을 게임으로 승화시킨 스포츠에는 항상 폭력이 잠재되어 있다. 또한 인간의 또다른 본성중 하나인 위험을 무릅쓴 모험심을 만끽시켜주는 몇몇 특수한 스포츠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미국영화의 연소자입장불가 분류와 흡사한 스포츠 격렬도 분류를 발표, 관심을 모았다. 스포츠심리학아카데미의 전무이사인 빌·뷰시씨는 각종 스포츠를 X, R, G의 3종으로 분류, 13세이하의 어린이들이 X류 스포츠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시키도록 제안했다. 또한 뷰시씨는 이 분류를 이용하면 경기장에서의 격렬도를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는 선수와 관중의 양측면에서 격렬성을 연구, SVI(스포츠격렬지수)를 고안해냈다.

반면 그의 연구가 전세계 85종의 스포츠에 적용되기는 하지만 연구의 중점은 미국내에서 성행되는 22종목에 집중됐다. 우선 가장 격렬한 경기로는 격렬지수 68의 모터사이클이 지목됐다. 다음에는 자동차경주 66, 아이스하키 64, 축구 56, 복싱 54, 경마 52로 나타났으며 풋볼은 농구와 함께 7번째로 격렬지수 48이었다.

뷰시씨의 공식에 따르면 SVI 50이상은 X류스포츠로 분류된다. 또한 SVI 50부터 30까지는 R(RESTRICTED)류인데 적합한 신체조건을 갖춘 선수들만이 경기에 참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구, 스키, 볼링이 R류 스포츠에 속하며 골프는 SVI 20으로 R류와 G(GENERAL)류의 경계에 있다.

한편 SVI 16의 당구처럼 20이하의 G류에는 어떤 연령층, 어떤 신체적 조건의 사람들도 참가할 수 있다.

『내 분류는 특히 어린 선수들이 참가해서는 안될 X류스포츠에 중점이 있읍니다. 사실 난 일정연령이하의 어린이들의 일부 단체경기가 금지되기를 바랐읍니다. 어린 선수들을 위해 스포츠의 강압적인 측면이 제거된다면 그 스포츠의 격렬도도 줄어들 것입니다. 비록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뷰시씨는 자신의 격렬도 분류의 도를 이렇게 밝혔다.

뷰시의 SVI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스포츠의 격렬성을 유발하는 7가지 측면에서 검토됐는데 ▲참가선수 숫자 ▲신체접촉의 유형과 성질 ▲발생소음의 유형과 강도 ▲득점에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 ▲행동연속성의 유형 ▲본래의 신체적 위험량 ▲경쟁의 감정적 분위기등이다.

따라서 하키는 보통 골프보다도 격렬한 것이 인정되지만 뷰시의 SVI에 의하면 하키가 축구보다 더 격렬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쉬운 일이다. 우선 하키는 참가선수가 적지만 신체접촉회수는 축구와 비슷하다. 반면 발생소음의 강도를 보면 하키는 축구와는 달리 비교적 작은 경기장에서 벌이기 때문에 더 크다고 할수있다. 또한 하키와 축구는 거친 육체적 기술의 양에서는 똑같지만 행동의 연속성이라는 면에서는 축구가 자주 중단되는 반면 하키는 거의 경기가 계속된다고 봐야한다. 그리고 본래의 육체적 위험도에서 하키가 더 위험하며 적어도 미국에서는 하키가 축구보다 훨씬 더 감정적이라는 사실도 분명하다.

이어 뷰시씨는 『풋볼이 위험스러운 면은 2가지 이유에 있다. 첫째는 항시 팽창한 흥분을 자아내는 행동의 계속성이며 둘째는 전통적인 라이벌의식이다. 많은 라이벌들이 오랫동안 있어왔기 때문에 청중들 속에서 발생하는 긴장은 풋볼이 축구보다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자동차경주및 아이스하키, 축구, 권투도 위험한 X류스포츠에 속하고있다.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 532-7907
549 BLOOR ST

THE KOREA TIMES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는 한국일보의 자랑입니다
▲광고문의: 533-2361~4
▲구독신청: 533-2361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Granada Inn

南江

Restaurant & Tavern

920 YONGE ST.
(north of Bloor)

923-3060

대표 · 이영규

PARKING장이 편리한 "남강"에서 만납시다.
(구 그라나다)

한국인의 기호에 맞는
⊙오뎅백반, 모리소바, 냄비우동
일본식의
⊙스시, 사시미, 뎀뿌라, 각종 데리야기.
오는 2월6일 일요일부터 영업시간을
⊙일요일 낮12시부터 밤12시까지 영업합니다.

※중화요리는 럭키스타에서 다년간 일한 중국인 왕씨가 맡고 있읍니다.

★PARKING★
지하 PARKING은 오후 9시부터 무료이며 토, 일요일 무료입니다. 특히 주위에는 많은 PARKING장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쉽게 주차할 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당국·政黨·社會단체 참여
"南北韓 대표회의 열자"
孫통일원장관 제의 "豫備회담 3월 板門店이나 平壤서"

정부는 1일 빠른시일내에 南北韓 당국대표와 정당·사회단체대표가 참가하는 南北韓당국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假稱)를 개최하자고 北韓측에 제의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2명의당국대표와 3명의 정당대표가 참가하는 實務級 예비회담을 오는3월중 板門店 또는 서울과 平壤에서열것을 아울러 제의, 긍정적인 회답을 촉구했다.

孫在植통일원장관은 이날 상오10시 三淸洞 남북대화사무국에서 對北성명을통해 이같이 제의하고 南北韓당국및 정당·사회단체대표회의가 이루어지면 이자리에서 南北韓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실현하는문제와 평화적통일을 위해 남북한雙方이 제기하는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하자고 제의했다.

孫장관은 이성명에서 지난해2월25일 北韓측의 주장을 고려해 雙方당국뿐아니라 정당대표도 참가하는 南北韓고위대표회담을 제의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대화를 거부해온 北韓측이 지난1월18일 駐韓美軍철수문제를 토의하기위한 소위 南北韓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의했음을 밝혔다.

孫장관은 『北韓측이 南北韓간의 접촉과 대화를 트고 화합과 통일을위해 노력할의사가 있다면 부당한 조건과 기만적인 구호를 버리고 우리측과 떳떳이 회담장에 마주앉는데 주저하지말아야 할것』이라고 촉구하고 『우리는 개방적이고도 포괄적인대화를위해 언제나 北韓측에대해 門戶를 열어놓고있다』고 밝혔다.

◇孫在植통일원장관

"時期·場所문제는 신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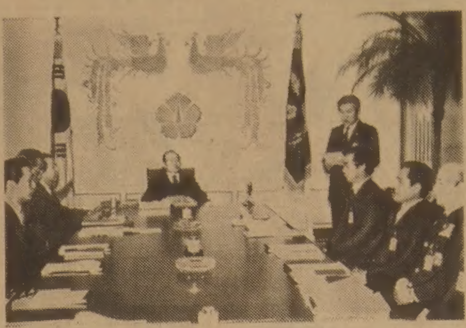
孫在植통일원장관은 1일 南北韓당국및 정당·사회단체대표회의를 제의하는 對北성명을 발표한뒤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北韓측은 우리측의정부당국은물론 정당·사회단체와 대화할수 없다는 종래의 태도를 바꿔 지금은 정당·사회단체를 대화상대로 하는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北韓측제의는 근본적으로 대화보다는 국제여론을 誤導하고무력적화의 장애요인을 제거하자는 저의가 있는것』이라고 밝혔다.

孫장관은 또 이날제의한남북한 당국·정당·사회단체대표회의의시기나 장소에 대해 『北韓측이 修正제의해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없다』고 밝히고 제3국을통한 南北韓접촉시도에 대해 『현재로서는 여건이 성숙되지않고 뚜렷한 성과를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도되고있지 않으나 필요성과 가능성이있고 여건이 성숙되면 그런방법도고려할수있는것』이라고말했다.

그는 또 『지난 1월18일의 北韓측주장은 韓日정상회담과 美日정상회담에따른 韓·美·日결속에 대해 불안을 느낀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上水道公團 설립
부동산소개 部分許可制
工團등 豫備-民防衛통합

内務部 업무報告 "질서확립 大大的운동"


◇全대통령이 내무부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받고있다.

내무부는 올해 서울시를제외한 전국 시군의 상수도를 통괄하는 상수도공단설립을 추진하고 부동산소개영업제도를 개선키로했다.

盧泰愚 내무부장관은 1일상오 全斗煥대통령에게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자리에서 전국의 상수도관망을도면으로 작성하고 각시군이출연하는 기금으로 상수도공단을 설립하겠다고 보고했다.

盧장관은 또 공청회를 거쳐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으로추진중인 소개영업제도를 부분적으로 허가제를 실시하는방안을 마련하겠다고보고했다.

내무부는 86아시안게임 이전에 선진국수준의 질서생활을 정착시킨다는 목표아래교통·공중·행락·경기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대대적인 운동을 펴기로했다.

이를위해 금년중에 경범죄처벌법등을 쉬운말로 개정한국민질서 편람을 널리보급하고 정사복구분없이 모든경찰력을 투입 질서파괴 행위를 집중단속키로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현재 南大門시장과 롯데백화점등에서 시행하고있는 청원소방관제를 법제화하여 큰 건물이나 공장등에서 자체적으로 화재에 대비할수있는 길을열어주기로 했으며 민방위대원의 귀속감을 높이기위해 직장예비군과 민방위대를 통합운영하는것을 원칙으로 연내에 대형건물과 공단등 3백17개소에 연합대를 창설운영키로 했다.

인구증가를 억제하기위해 학교를 포함, 각급 교육기관에서 산아제한을 교과목으로 설정토록하고 공단주변이나 여학교에 상담소를 두기로했다.

내무부는 또 88올림픽에 대비 올림픽새마을운동을 전개하고 각시도에 체육지원계(釜山·仁川·京畿는과)를 설치, 지역단위로 올림픽대비조직을 육성토록했고 지방경기장시설도 보완키로했다.

내무부는 이밖에도 경관보전지구와 도로변등에 벌채를 규제하고 미개발산지에는 산로를 개발하며 브라질 자이레 솔로몬등 6개국에 산림개발을 적극 추진키로했다.

"盜伐, 해당官署 문책"
全대통령 指示 前後方, 挑發에 萬全대비

全斗煥대통령은 1일 상·하오 靑瓦臺에서 내무부와국방부로부터 올해 소관업무계획을 각각 보고받았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盧泰愚내무장관으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받은뒤 『최근 일부지역에서 盜伐현상이 다시고개를 들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 『앞으로 盜伐방지를 위해 내무부산하 모든관계관은 물론, 특히 경찰은 검문검색을 강화해나가고 도벌이 발생할 경우 그지역의 해당官署관계자들을 엄중문책하도록 하라』고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정부가 취하고있는 일련의 개발정책과 자율화정책의 근본취지 가운데 하나는 과거 법과 규정이 너무 번잡해 국민들이 이를 바로지키기가 어렵다고판단, 국민들이 보다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것』이라고 설명, 『따라서 이같은취지를 잘못이해해 악용하는사례가 있을때는 과거보다 더욱 엄하게 다스릴방침』이라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또 『금년에는 각종大型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이와관련해 경찰관가운데 성품이나 소행이 부적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사고예방을 위해 즉각 인사조치를 취하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강력범등 국민생활을 불안하게하는 모든범죄는 軍과도 협조,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草地조성은앞으로 농수산부 전문가들의협조를받아 適地확인을 받은지역에한해 신중히 허가해주어 濫伐로 악용되는 일이없도록 하라』고 특히 당부하고 『민방위대의 현조직이 아직 미흡한점이 있는만큼 조직을철저히 재정비해 안보조직의핵심이 되도록 강화해 나가라』고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토지와 주민등록의 電算化작업은 과기처와 협조, 당초계획한 89년보다 앞당겨 끝내도록하고▲班常會를 국민교육장으로 활용할것▲내무부와 건설부간의 중복된업무는 서로협조, 소관부서를 분명히 할것등을 아울러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에앞서 31일 하오 건설부로부터 업무계획을 보고받고▲해외건설업자간의 過當경쟁방지▲에너지절약차원에서 모든 건축물의 표준화추진▲부정부패예방을위해 부하직원에대한 철저한 감독등을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이날하오 尹誠敏국방장관으로부터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현재 北韓내부는 여러가지문제점이 심각하기때문에 언제對南도발을 해올지 모르므로 各軍은 이에대비해 전방은물론 후방경비태세를 강화하도록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 『지금은 南北이 모두 발달된 무기와 火力을 갖추고있어 유사시에는 初戰3일간이 成敗를 좌우하게 되며 특히 開戰초일이 중요한만큼 각군지휘관도 이를 명심해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예비군의 교육훈련과 임무수행능력을 특히 향상시키고 금년중에는 예비군의 부조리현상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實戰的인 훈련을강화, 내실있는 전력증강이되도록 노력하고▲군의책임감·인내심·충성심·협동심등을 훈련을통해 함양하도록▲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도록할것등을 지시했다.

2천여億원 私學金庫추진
李民正총무 "定期國會서 立法"

【晉州】民正黨은 각급私立학교의 건전재정확충을 통한 항구적인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私學金庫를 설치키로하고 올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私學金庫법안(가칭)을제출, 법적근거를 마련할계획이다.

民正黨의 李鍾贊총무는 1일낮 慶南晉州지구당(위원장 安秉珪의원) 개편대회 참석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私學은 우리나라교육의 큰몫을담당하고있으나 그 재정의 취약성으로 교육의 질적향상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지적, 『사립학교에대한 재정적지원을 강화하고 私學財源의효율적운영을통해 私學을육성, 발전시키기위해 私學金庫를 설치할방침』이라고밝혔다.

民正黨은 앞으로 설립될私學금고의 財源도 현재 각私學재단이 보유하고있는 遊休재산을 매각, 出捐한 자금과 여기에 適正비율의 國庫를지원, 2천억원 내지 2천5백억원규모의 재원을 기본자산으로 ▲私學시설 투자자금의 貸付 ▲私學운영비의 보조▲收益사업실시등의 기능을 수행토록할 방침이다.

民正黨은 私學금고설립을 지원키위해 金庫出捐을 목적으로 私學이 遊休재산을 매각할때는 양도소득세등 각종세금을 減免해줄 방침이다.

美·蘇정상회담提議
레이건 "중거리核禁協定위해"

【西베를린聯AP=聯合】레이건 美대통령은 31일 西유럽을순방중인 조지·부시부통령을 통해 밝힌 공개서한에서 『모든 美·蘇중거리地上발사 核미사일을 금지』하는 협정에 조인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유리·안드로포프 소련공산당서기장과 美·蘇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지난1월28일자로 서명된 이공개서한에서 美·蘇양국관리들이 중거리核미사일 감축협정을 이룩하기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중거리 지상배치 核미사일과 미국이 새로 배치하려는 核미사일을 모두 함께 금지할것을 소련측에 계속 촉구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의미에서 東西양진영이 만나는 베를린에서 안드로포프서기장에게 核무기금지협정조인을 위한 美蘇정상회담을 제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안드로포프서기장이 이를 수락해줄것을 촉구했다.

北傀 準戰時태세
팀스피리트訓鍊 트집

【서울=聯】北傀는 1일 北傀軍최고사령부(사령관 金日成) 명령1호로 北傀軍全부대、인민경비대、勞農적위대、붉은청년근위대등 전체무장병력에 2월1일부터 4월중순까지 準戰時상태로 들어갈것을 하달했다고 1일정오 北傀보도기관들이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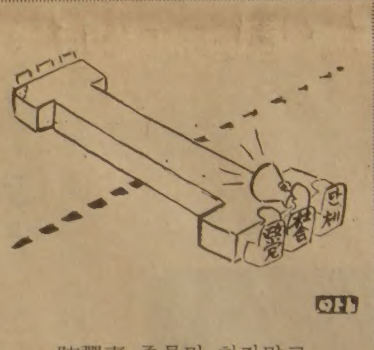
北傀는 이 準戰時상태突入명령 이유로 2월1일부터 실시되는 韓美연합연례군사연습인 팀스피리트83에 대처키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韓美양국은 韓半島방위태세를 다짐할목적으로 실시하는 연례적인 방위위주의공동군사연습에대해 이를 구실로 전체무장병력에 準戰時상태 突入명령까지 하달, 전쟁분위기조성에 광분하고있는 저의는 金正日후계세습책동과 당면한 경제난국등으로심화되고있는 對內外的 갈등을 긴장의식조성으로 탈출구를 모색해보려는 책동의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蘇 비난·中共 침묵

【서울=聯】소련정부기관지 이즈베스차紙는 1일부터 실시예정인 韓美합동연례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83에 언급, 이는 『미국이 韓半島를 자기의 패권주의적 정책수행을 위한 발판으로 전변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범죄행위』라고 격렬히 비난했다.

한편 中共은 소련의 이같은 팀스피리트83 군사훈련계획에 관한 민감한 반응과는 달리 31일 현재까지 아무런 논평도 가하지 않은채 짤막한 사실보도에 그치고있어 소련과는 대조적인 태도를보이고있다.



防彈車 주문만 하지말고 나와 앉으시오…

北傀機、白翎島 침범
國防部발표
戰鬪機 1대 我軍機출동·警告사격받고 도주

◇白翎島상공을 침범한 북괴폭격기와 동형의 IL28.

국방부는 북괴전투기 1대가 지난달31일밤 서해白翎島상공을 침범했다가 아군의경고사격과 공군기출동으로 도주했다고 1일 발표했다.

국방부朴鍾植대변인은 이날 『31일밤8시25분부터 26분사이 북괴의 IL28폭격기 1대가 白翎島상공을 침범했으나 아군지상군의 경고사격과 공군기의 즉각적인 출동으로 북상도주했다』고 발표했다.

이발표에 따르면 IL28북괴전투기가 북방5㎞ 白翎島상공에까지 접근한것을 아군관측소가 즉각 포착, 응사했다는것.

북괴는 지난 81년8월12일에도 미그21전투기4대를 白翎島상공에 침투시킨일이 있었다.

국방부대변인은 이번 침범으로 북괴는 도발근성을 또 드러냈을뿐 아니라 이번에도 예외없이 허위날조하여 1일 새벽2시50분 UN군측 정전위에 항의전문을 보내는등추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국방부대변인은 이같은 북괴의 도발행위는 정전협정체제를 명백히 위반했을뿐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도발행위라고 규탄하고 이로인해생기는 모든불상사는 북괴가 책임져야 할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또다시 이같은 도발이 자행되면 강력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民權黨총재 金義澤씨別世

◇金民權黨총재

金義澤民權黨총재가 1일하오12시15분 서울城北區城北洞43의2 자택에서 숙환인 膵臟病으로 別世했다. 享年73세.

故金총재는 全南咸平에서 태어나 光州農林학교를졸업, 普文시험에 합격한뒤 忠北·全北道警察국장을 지냈으며 3·4·5·8代국회에 진출한 4선의원으로 民主黨총무, 新民黨전당대회의장, 수석부총재겸 정무위원, 총재권한대행을 역임했다.

故金총재는 81년 民權黨을 창당 총재로서 대통령후보에 나섰었다.

故金총재는 지난해 9월28일 膽石症으로 明洞성모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왔으나 膵臟癌이 併發, 최근 병세가악화돼 31일밤 城北洞자택으로 퇴원했다.

故金총재는 작년4월 부인과 死別했으며 유족으로는高大英文學교수인金禹昌씨(48)등 1남1녀.

영결식은 5일상오 9시 明洞성당. 葬地는 南楊州郡瓦阜面가곡묘지. 연락처762-2231~4

地平線

서양사람들이 사기그릇을 굽게된것은 채 3백년도 되지 않는다고한다. 사기그릇이란 1천3백도에서 1천4백50도에 이르는 고열로 구워내는 소위「硬質도자기」를 뜻한다. 중국에서는 우리의 3국시대말에서 통일신라때인 隋·唐시대에 벌써 고도의 발달을 본 기술이다. 동양의신비로운 사기그릇이 서양에알려진 것은 14세기초 마르코·폴로의「동방견문록」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서양사람들이 사기그릇을 굽는데 성공한것은 1천7백10년대 독일에서 였다. 그러니까 중국의 사기그릇은 유럽과 동양을 잇는 가장 중요한 무역상품이 될수밖에 없었다. 중앙아시아의 사막과 초원을 가로 지르는 실크·로드는 중국의 비단뿐만 아니라 사기그릇을 유럽으로 실어나르는 길목이었다. 터키의 이스탄불에 중국밖에서는 세계 최대인 중국도자기 콜렉션이 남은 이유다.

▼전남의 신안앞바다에서 노다지를 발견한 한국도 宋·元代의 도자기 콜렉션으로서는 최대급을 갖게됐다. 지금까지 건져낸 청자와 백자만 1만3천4백23점. 그밖에 2천2백27점의 갖가지 사기그릇이 있다. 이중에는 고려청자도 3점이있지만, 어쨌든 중국의 사기그릇은 동양에서도 중요한 무역상품이었음을 눈으로 볼수있게 됐다. 게다가 이배의연대를 짐작할수 있게됐다.

▼그배는 고려 충숙왕 10년인서기1323년 중국을 떠나 일본으로 가다가 가라앉았음이 거의 확실해지고있다(한국일보 1일자 7면보도). 몽고의 힘에 의지해서 명맥을 이어가던 고려왕조가 기울어가던 때다. 모두 24년동안 왕위를지킨 충숙왕은 왕위를 노리는 숙부의 모함으로 元나라에 갔을 때 옥새를 뺏기는 곤욕도 치렀다.

▼파란이 많았던 충숙왕은 결국 어린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줬다가 2년뒤 다시 복위했고, 元의 공주에게 세차례나 장가들었다. 충숙왕을 둘러싼 파란은 말하자면 14세기가 저물기도전인 1392년,망할 고려왕조의말기를 예언한 것이었다. 유라시아대륙이 몽고기마병의 말발굽아래 하나의 거대한 帝國을 형성하고있을때의 비극이다.

▼신안 앞바다의 노다지배는 이무렵 동북아시아의 비밀을 6백60년만에 노출시키고 있다. 무역상품을 주문한 바이어로는 일본의 東福寺라는이름이 보이고있다한다. 아직까지 고려와의 관련이 분명치않지만, 동북아시아의 고대무역의 한모습이 드러난것이다. 문화재관리국이 건진것만큼이나 도굴당했을 것이라는 추측이긴 하지만, 안개속에 가린 고려사연구에도 큰 기대를 걸어본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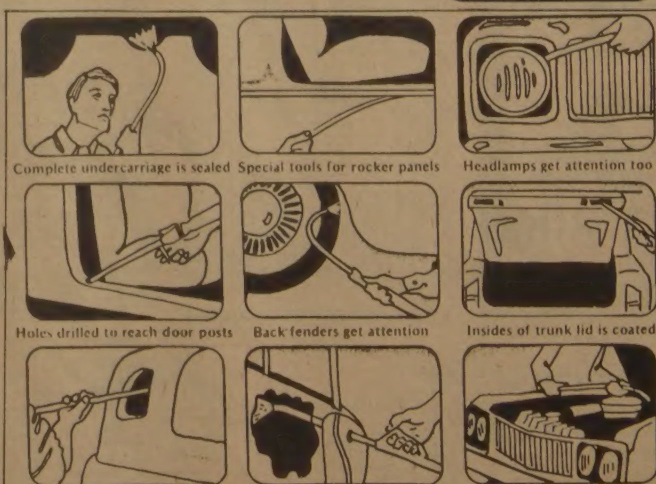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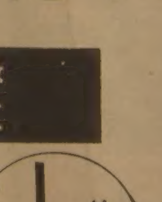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교포운영업체-
VITAL®
NEW & USED CAR
RUST PROTECTION
PROTECT YOUR INVESTMENT
자동차는 귀중하고 값 비싼 재산
녹쓸지 않고 오래 보존하도록 보호합시다.
⊙교민 특별가격봉사
VITAL 'LIFETIME' RADIATOR SERVICE


COMPLETE RUSTPROOFING & UNDERCOATING SERVICE
VITAL CENTRE—ETOBICOKE
6590 FINCH AVE. WEST REXDALE, ONT. M9V 3Z6
741—2701


公館長 일부 異動

駐말聯大使 沈基哲씨 / 駐그리스大使 沈瑋燮씨 / 駐스웨덴大使 李昌洙씨 / 駐수단大使 柳宗夏씨

◇沈基哲대사

◇沈瑋燮대사

◇李昌洙대사

◇柳宗夏대사

정부는 1일 駐말레이지아 대사에 沈基哲본부대사를, 駐그리스대사에 沈瑋燮 駐수단대사를, 駐스웨덴대사에 李昌洙본부대사를, 駐수단대사에 柳宗夏 駐英國대사관 공사를 각각 임명 발령했다.

정부는 또 裵永奎 駐스웨덴대사를 본부근무로, 본부근무중인 崔東鎭 亞洲국장을 駐英國공사로 각각 발령했다. 신임대사들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沈基哲대사 ▲48세 ▲陸士·서울大卒 ▲서울출신 ▲駐모로코부장 ▲駐수단대사 ▲京畿출신

◇沈瑋燮대사 ▲52세 ▲空士卒 ▲空軍본부참모부장 ▲駐수단대사 ▲京畿출신

◇李昌洙대사 ▲52세 ▲서울文理大卒 ▲통상국장 ▲駐홍콩총영사 ▲외무부 제2차관보 ▲이란대사 ▲외무부기획관리실장

◇柳宗夏대사 ▲47세 ▲서울大文理大卒 ▲駐美참사관 ▲美洲국장 ▲駐英공사 ▲慶北출신

◇예산안 브리핑에 나선 美경제담당관들
데이비드·스토크먼美연방정부豫算管理局長㊧이 31일 워싱턴에서 도널드·리건 재무장관㊥, 마틴·펠드스타인 경제자문위원장㊨과 함께 8천4백85억달러규모의 84년도 연방예산안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워싱턴31日AP電話=聯合】

美 연례國防보고서 "蘇군사력 팽창은 災殃"경고

蘇서 西歐·西南亞 동시공격하면 北傀도 南侵가능성

【워싱턴=李文熙특파원】 美국방성은 31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국방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남침가능성및 움직임에 대해 경고했다. 美국방성은 소련이 재래식전력으로 두개의 결정적戰域인 西歐및 西南아시아에 공격을 개시할 경우 북한은 한국에 대해 압도적으로 우세한 공군및 전술공군으로 공격해 올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총3백35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소련의 군사력증강이 서구와 서남아시아등 2개지역에대한 동시공격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소련의 군사력팽창을 이대로 방치할경우 커다란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美合參이 의회에 제출한 한 보고서는 미군의 한반도와 東北亞주둔이 이지역 안정지속과 침략봉쇄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북한의 군사력에 언급, 북한해군이 잠수함, 미사일함, 수륙양용함정등 東西海에 배치된 함정들로 한국의 중요항구에 기뢰를 부설, 해상소통로를 완전히 차단시킬수 있는 水陸양면 공격능력을 갖추고 있는가하면 지난 80년이후 미사일 공격함과 수륙양용 함정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미국은 이에 대비하고 한국의 해군력을 보강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물시장 原油價下落

배럴當 1弗떨어져 28·80弗

【암스테르담聯=聯合】 지난주 석유수출국기구(OPEC) 임시石油相회의의 決裂에 따른 여파로 急落했다가 안정을 찾는듯했던 현물시장의 원유가격이 31일 다시하락, 거래상들을 놀라게했으며 원유公示價에 대한 인하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날 현물시장에서는 北海원유가 지난28일의 週末閉場시세보다 배럴당 1달러정도씩 다시 떨어져 가장 중요한 油種인 브렌트油와 포티즈油가 배럴당 28·8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公示가격이 배럴당 33·50달러인 브렌트油와 포티즈油가 배럴당 29달러이하로 하락한것은 작년3월이후 이것이 처음이다.

OPEC基準油인 사우디아라비아産 輕質油(공시가격 배럴당34달러)도 지난28일의배럴당29·80달러에서 내려간29·25달러로거래됐다.

현물시장의 한 중개상은 『현물시세는 계속 하락할것같다. 바닥시세가 어디까지 떨어질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려우며 사우디와 기타 산유국들에 대한 公示가격 인하압력이 조만간 견디기 어려운 정도까지 이를 것이다』고 말했다.

거래상들은 더우기 2월에는 리비아 원유가 현물시장에 더 유입될것이라는 조짐과 더불어 현물시장에 대한 원유공급은 계속 증가될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매자들은 그동안 油價의 추가인하에 대한 기대로 공시가격을 기준한 장기공급계약을 기피해왔으며 이는 減産을 하거나 직접 현물시장에 원유를 내다팔수밖에 없는 산유국들을 압박해왔다.

美本土 RDF司 西南亞이전 검토

【워싱턴AP=聯合】 미국은현재 美플로리다州 맥딜공군기지에 있는 美신속배치군(RDF) 사령부를「西南아시아지역」으로 옮기는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있다고 캐스퍼·와인버거 美국방장관이 31일 밝혔다.

와인버거장관은 이날 美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구체적으로 RDF사령부가 서남아시아의 어느국가에 설치될 지는 밝히지 않았다.

美, 中央司발족 東南亞방어 역할

【워싱턴=聯合】 레이건 미국대통령은 금년1월1일을 기해 미중앙사령부(USCENTCOM)를 발족시켰다고 31일 워싱턴에서 배포된 「미국의 군사태세」란 보고서가 밝혔다.

이사령부는 과거 유럽사령부와 태평양사령부 사이에분리되어있던 책임지역의 일부를 함께받아 미국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있는 지역에서중요한 이익을 감시하는 일을 맡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閣僚등 15명체포

수리남, 쿠데타협의로

【파라마리보(수리남) AP=聯合】 수리남군 당국은 30일밤 육군부사령관 레이·호르브스트를 포함한 15명을 정부전복을위한 쿠데타음모혐의로 체포했다고 관영 수리남통신(SNA)이 31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군사정부 수반인 데시·부테르세중령에 대한 암살과 정부전복음모가 발견되어 부테르세중령에 충성을 바치는 군대가 이를분쇄하고 주모급 관련자들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이통신은 이들 체포된자가운데는 호르보스트외에도 임시군사정부의 존·하르트요프 라진토文化相과 양·사리만농업상이 포함되어 있다고밝혔다.

경제학자인 헨리·네이호르스트대통령이 이끌어온 민간정부는 지난12월 군부가 민간인을 살해한는등 정치소요사태가 벌어진 와중에서 물러나고 군총사령관 부테르세중령이 집권했다.

미국과 네덜란드등은 이같은 군부의 민간인살해를 비난하면서 즉각 수리남에 대한 원조를 중단한다고선언했었다.

社說

새對話 위한 突破口

—當局·政·社회의 提議에 붙인다

온 겨레가 갈망하며 국제여론도 뒷받침하는 南北간의 統一對話 재개에 새 突破口가 마련될는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雨水·경칩이면 大同江도 풀린다는데 새봄과 더불어 南北관계에도 과연 解氷은 올 것인지, 기대가 부푼다.

『政府는 1일 孫在植통일원장관의 對北聲明을 통하여 能動的이며 包容性 있는 對話재개方針을 천명하였다. 새 제의의 골자는 ①빠른시일내에「南北韓 當局및 政黨·社會團體 代表會議」를 개최할것 ②議題는「南北韓當局 최고책임자 회담을 실현하는 문제」와「平和的統一을위해 南北韓쌍방이 제기한문제」등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며 ③實務급 豫備會談을 오는3월중에 개최하되 각기當局대표 2명과 政黨대표3명을 참가케하자는것으로 간추려진다. 孫장관은 또 성명발표후 기자회견에서「北韓측이 시기와 장소를 수정제의해오면 굳이 반대할 의사가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대조되는것은 北韓측이 지난 1월18일에 발표한「聯合聲明文」이다. 그내용은 오직 駐韓美軍철수문제만을 토의하기 위해「南北 諸政黨·社會團體 연석會議」를 열자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주장이었다. 그들은 또 豫備會談에 관하여 南과北이 각기 주요3당 대표 1명씩을 참가시키자고 했었다.

쌍방 제의를 비교할적에 우선 뚜렷한것은 우리측 제의의 開放的 包括性이다. 이는 대표단 구성과 議題에 관하여 고루 명백한 바이다. 北韓측 주장을 포용하되 문제해결을 위한 合理的 고찰을 십분 감안한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한편 北韓측이 當局을 소외시키고자한것은 상투적인「統一戰線」획책의 底意를 내포한것이며,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非現實的인 억지임이 명백했다. 政府當局을 제쳐놓고 도대체 무엇을 해결할수 있다는 말이겠는가. 議題의 恣意的局限도 빗나가라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애당초 南北對話란 그동안의 分斷상태로 말미암은 多樣性을 인정하면서 동일한 民族이란 뿌리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견해와 의견을 조정해 나가려는 和合의 求心作用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측 2·1제의는 폭넓게 종래의 北韓측 주장도 감안한 내용이고 豫備會談의 대표단구성도 當局대표 2명과 北韓측이 제의한 각 政黨대표 3명을 포함하여 각 5명으로 하자고 하였다.

요컨대 北韓측이 마다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보게된다. 만약에 北韓측이 2·1제의마저 거듭 거부한다면 그들 자신의「政黨·社會團體 연석會議」주장이 처음부터 對話를 위한 것이 아닌 선전적 구실에 불과했음을 자체폭로하는 꼴로 되고 말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北韓측은 지난 31일 계획적으로 전투기 1대를 우리측 白翎島상공에 침공시켰다는데 그같은 도발을 통한 긴장조성 수법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딴데 돌리면서 對話거부를 합리화해보고자 시도한다해도 부질없는 짓에 불과할 것이다.

北韓측이 고집하는 일방적 排他性 가지고는 南北對話가 순조로이 이어져가기 어려울 것이다. 또 그러한 자세로는 같은 民族이기 때문에 서로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平和統一 접근에 한몫 도움될것이 없다.

다만 우리측이 인내와 성의를 다한 對話재개 노력과 지취적이며 아량있는 平和統一접근 자세를 견지하는 까닭에 내외 동포들의 희망이 지탱되는 셈이다. 이미 세계 97개국에 걸쳐 우리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에 대한 적극적 지지가 확인된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北韓측이 정녕 국내외 여론의 귀추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지리한 살벌적 수법을 맴돌지 말아야 한다. 지체없이 우리의 포용성있는 새 對話제의에 대하여 성의어린 호응을 표시하도록 평양측에 촉구해 마지 않는 바이다.

18세 未成年의 경우

—行動規制보다 成人대접 해줘야

사람의 成年을 20세로 규정한 現行法(民法)이 時流에 적합하지않은 사례가 점차로 늘어가고 있다.

17세에 이른 男女는 주민등록증발급대상이되어 常時 주민등록을 지니고 있어야한다. 未成年者가 혼인하려면 父母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일단 그렇게하여 결혼한뒤에는 독립하여 世帶를 이루고 세대주가 될 수있으며 이에 따른 권리의무를 다할 수있게 돼왔다. 兵役의무도 18세부터 지며 국가공무원이 되는 자격 역시 18세부터 얻는다.

고용통계는 14세이상이면 각종 산업에 취업할수있다는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未成年者로서 취업중에 있는 靑少年들이 산업역군으로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는 실질적이다. 지난 80년중 20세미만의 취업자수는 1백7만5천명으로서 총취업자 1천3백70만5천명의 7·8%나 되었고 그중 2만명가까이는 가장 고도의 자질를 요구하는 전문·기술·관리직에 몸담았던것이다. 앞으로 20세미만의 사회진출은 더욱 세차게될 추세에 놓여있다고 보아야 할 판이다.

보건사회부당국은 이러한 현실을감안하여 18세이상의 未成年者들에 대하여 여가활용상의 現行제약을 완화하는 改善案을 구상중이라고 보도 되었다(1일자 한국일보 11면). 거론되고있는 개선안은 당구장과 전자오락실등 현재 未成年者에게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대하여 일정한 醇化요건을 붙여서 이들의 出入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그외에 경마장 각종유흥오락장에대해서도 未成年者의 出入을 계속 금지하는것이 타당한가 여부를 연구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국의 이와같은 문제의식은 당연히 전진적으로 평가되어야 할것이다. 국가와 사회가 未成年에게 의무만을 지게하고 이에 맞먹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비단 衡平의 원리에 벗어나는데 멈추지 아니한다. 생각하면 個性과人格의 건전한형성을 위해서도 이들에게 레크리에이션(遊樂)의 기회는 줄 필요가 있을것이다. 그렇지 않을경우 흔히 따르기 쉬운 젊음들의 욕구불만과 脫線은 心身兩面으로 한창 자라는 나이또래인 이들의 보람을 본의아니게 위축시키고 편협성·활달성결여·이중성격형성등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몰아넣을지 모른다.

책임과 자유는 표리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이들에게 규제나 책임만을 강조한다면 그 과정은 탈선적방법에 의한 해방과 실속없는 껍데기만의 似而非행동을 유발시키게 될것이다. 이는 두가지가 다 건실한 사회발전의 要件과 거리가 먼것일뿐 아니라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기성세대로서는 사랑과 양으로 이를 자라나는 다음 世代들이 구김살없이 個性및 人格을 形成하게끔 가능한 모든 배려를 다할 필요가있다고 보겠다.

「요새아이들은 우리가 자랄때보다 점점 나빠져가고 있다」는 기성세대의 푸념은 先祖대대로 내려온 판에 박은 관념이자 비평이다. 날로 文物이 발달하고 사회가 진보하는 현상은 이와같은 전통적 사고방식이 옳지 않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거시적으로 언제나 아들 딸들의 훌륭한 점을 신장시키려는 각각을 앞세우도록 요구치않을수 없게한다.

우리가 未成年者를 위한 당국의 規制완화시도를 전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리와 사실에 연유하는 것이다. 또 아예 成年연령의 인하마저 권하고픈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보사당국은 다른 관계부처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그 완화의타당성 여부를 깊이있게 연구측정하기 바란다. 동시에 시민들의 반응및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집하여 合理로운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 특히 고등학교졸업반의 약 83%가 18세 이상인 현실에 비추어 이들의 父母와 교사들의 견해도 빼놓을수없는 중요한 대목이라 하겠다.

黨憲改正문제 논의

民韓, 全黨大會준비

民韓黨은 오는 9일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1일 제1차전당대회 準備委(위원장 李泰九부총재)를 소집, 정강 정책의 정비문제 在野인사의 迎入에 대비한 黨憲개정문제를 논의했다.

南北韓당국-단체대표자회의 제의에

各黨, 北韓측에 수락촉구

民正·民韓·국민등주요정당은 1일 상오 정부의 南北韓당국및 정당·사회단체 대표자회의 개최제의에 대해 다음과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民正黨金璐泰대변인=책임있는 당국자를 회의에 참가시키고 의제에 있어서도 평화통일을 위한 포괄적인 모든 문제를 다루고자한 우리측의 對北제의는 현실성과 책임성있는 합리적인 제안으로 환영한다. 北韓측이 만일 이번에도 우리측의 이제안을 거부한다면 지난번 駐韓美軍철수문제를논의하기위해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하자고한 제의가 南侵야욕을 僞裝한 불순한 정치선전에 불과하다는것을 입증한것이다.

▲民韓黨金珍培대변인=北韓당국은 우리가 제의한 통일문제를 협의하기위한 준비회담에 허심탄회하게 응하기를 촉구한다. 우리의 제의는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것으로서 만약 北韓측이 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아무런 성의가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드러낸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것이다.

▲국민당李成一대변인=이번 제의는 南北대화를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평가하며 北韓측은 이제의를 지체없이 수락할것을 촉구한다.

記者의 눈

地區黨대회와 熱氣

주요정당이 政治祝祭인 전당대회를 앞두고 예비잔치로 전개했던 각지구당대회는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같다.

야당인 民韓黨과 국민당은 이미 지난 월말로 지구당대회를 모두 완료했고 民正黨은 막바지피치를 올리고있다.

民正黨이나 民韓·국민당할것없이 연일 계속되어온 대회들이 대개 판에 박은듯한 類型으로 진행되는게 보통이었다.

판에 박은듯하기는 與黨인 民正黨이 더하겠지만 야당들 역시 주어진 政治領域을 맴도는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民韓黨의 지구당대회는 지극히 치레적 인상을 주는 대회가 많았다. 여당쪽과는 좀 다른것같고 막바지에서는 黨內문제를 적극적인 입장을 갖추지못한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의 일선에 나서는등 모처럼 국민들에게 「정치의 맛」을 보여주기도 했다.

개편대회를 늦게 착수한 民正黨의 경우 중반까지는 중앙당이 시달한 圖式대로 대회를 진행, 대회가 당원과 중앙당간및 지구당위원장간의 대화가 아닌 一方的인과정이어서 硬直된 분위기를 자아낸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중반이후부터 지역별로 式順및 진행에 多樣化를 기하고 또 당직자들이 對국민, 對野를 향해 그런대로 과감한 정치발언을 잇달아함으로써 점차 活氣를 불러일으킨것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제5공화국 출범후 처음 시작된 民韓지구당대회는 사실 작년말 民韓지구당 대회가 처음 시작될무렵 창당이래 줄곧 짊어졌던 「創黨콤플렉스」를 안고있는 民韓黨으로서는 오랜만에 제 모습을 正視하면서 제위치를 가다듬을수 있는 기회가 된듯했다.

특히 창당이래 가장 큰 고심거리의 하나였던 지도부와 일선당원들간의 時局觀의 차이와 狀況인식의 거리를 좁힐수 있었다는점에서도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눈치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인 시각에 반해 개편대회에서 그토록 주창했던 「민주화실천」「질서」의 熱唱이 어느정도 實體化될수있을까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없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아 이러한 정치活性化의 몸짓이 앞으로 「自生의 의지」를 보이면서 밖으로는 「경쟁의 위치」를 획득시킬만큼 적극적인 방향으로 발전했다.

民正黨과는 「獨走獨占」 논쟁을 비롯해 선거법개정, 地自制실시등 정치현안을 놓고 攻防을 벌였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터전을 마련하라고 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정치活性化의 몸짓은 극히 부분적일 망정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일깨우는데 자극제가 되지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李成俊政治部기자】

國會法 효율개정

李民正대표 밝혀

民正黨의 李載瀅대표위원은 1일 『국회에서 정당간의 화합정치를 촉진하고 민주주의의 원리인 다양한 견해를 취합하게 하기위해 4월까지 심의를 끝내기로돼있는 국회법개정이 국회운영을 보다 기동성있고 활력있게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李대표는 이날아침 民正黨慶北지구당개편대회에 참석하기위해 大邱에 온 壽城관광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고 『구체적인 국회법개정내용은 이정신과 원칙아래 關係小委에서 연구될줄 안다』고 말했다.

人事異動

財務部 ▲관세국장 金基仁(관세청통관관리국장) ▲관세청통관관리국장 林文憲(관세국 관세감독관) ▲관세국 관세감독관 林營浩(국세심판소 심판관) (1일字)

農水産部 ▲農水産部勤務 朴相禹 ▲農機械課長 金正千 ▲業務課長 金棟均 ▲國際協力課長 權正鉉 ▲企劃豫算擔當官 南久熙 ▲行政管理擔當官 ▲重仁 ▲企業金融課長 李範涉 ▲農政課長 金鍾大 ▲農產統計擔當官 金東泰 ▲法務擔當官 姜國瑞 ▲當官 尹駿炳 ▲種子供給所 ... 李在孝 ▲種畜場庶務課長 徐承鳳 ▲農協中央會派遣 李材明 ▲새마을運動中央本部派遣 白顯基 ▲生檢釜山支所長 鄭斗均 ▲教育院庶務課長(職代) 朴文祥 ▲米產課長 徐廷善 ▲田作課長 安信煥 ▲果樹課長 金允善 ▲菜蔬課長 金元鎭 ▲蠶種場保全課長 金元鎭 ▲資檢生物檢查課長 李炳... ▲生檢檢查課長 蔡洙君 ▲蠶種場生產課長 崔九天 ▲資檢化學檢查課長 李秀玉 ▲種子供給所生產課長 金正基 ▲教育院教授部長 李寅秀 ▲檢疫課長 趙玉植 ▲教授部長 林正模 ▲東教育院 ... ▲平澤支所長 林宅圭 ▲山支所長 金炳豪 ▲仁川支所長 沈聖燮 (1日字)

보사부 ▲국립서울정신병원특수치료과장 朴康圭 ▲국립羅州정신병원 정신위생과장 尹昌範 ▲〃일반정신과장 文哲君

中小企業銀行 ▲국립木浦결핵병원홍과내과장 吳英子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장 洪鍾成 (1日字) ▲企劃部長 朴慶夏 ▲經營開發部長 鄭弘潤 ▲審査部長 權鍾泰 ▲資金部長 全明善 ▲人事部長 崔鳳昊 ▲國際部長 朴鍾大 ▲審査1部長 李東宰 ▲營業2部長 ... ▲企業指導部長 李東圭 ▲信用分析部長 尹滿 ...

政局往來

◆夫婦가 함께 班常會참석토록

全斗煥대통령은 1일 상오 내무부로부터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받는자리에서『금년에는 외국 귀빈들이 많이 訪韓하는 만큼 이를 계기로 도시 질서확립을 위한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나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이것이 바로 도시先進化의 지름길이라고 강조.

全대통령은 또 공무원들의 自家운전과 관련,『경찰의 경우도 경찰대학에 운전교육과정을 넣어 운전을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특수차량을 제외하고 순찰차등은 운전기사를 따로 둘 것이 아니라 순찰업무와 운전업무를 같이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班常會운영에 관해『지난번 班常會에 가보니 부부가 함께 참석한 班員들이 보기좋더라』면서『부부가 班常會에 함께 참석토록 권장하기도』.

◆힘께나 쓰는분 들어오라한적 없어

民正黨의 李載瀅대표위원은 1일 大邱南·壽城지구당(위원장 李致浩의원)개편대회에 참석, 앞으로의 黨職개편에 대해『그권한은 총재한테만 있으므로 이자리에서 대답할 사람이 없지않느냐』고 말하고 정치被규제자 解禁에 대해서도『관계당국이 열심히 검토하고 있으므로 관망함이 제일좋을것』이라고 피력.

그는 또 폭넓은 외부인사의 迎入문제에 대해서는『民正黨은 어느누구도 入黨을 못하게 문을 닫은적이 없다』면서『그동안 힘께나 쓰는분들을 들어오라고 얘기해본적도 없었다』고 부연설명했다.

한편 이날 權翊鉉사무총장은 裡里(梁裕植의원) 南原지구당(梁昌植의원)개편대회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선거가 끝난후 託配조직이 당원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정치의 先進化를 위해서는 당원 각자가 과거의 정치부조리를 비판하고 국민을 계도하는데 앞장서자』고 당부.

◆改革의 鎔鑛爐에 새旗手로재창조

1일상·하오에걸쳐열린 慶南晉州(위원장 安秉珪의원), 忠武·固城지구당(李孝益의원)개편대회에 참석한 李鍾贊총무는 民正黨을 鎔鑛爐에 비유,『과거여야인사는물론 혁신계인사까지도 黨이념에 따르는 사람이라면 개혁의 용광로에 새시대의 旗手로 재창조, 同參시키고 있다』고 역설.

한편 같은날 釜山北區대회에서 張聖萬위원장은 특히 民正黨의 실적을 과거정당과 대비,『과거정당은 돈받고하는 머슴정당이었으나 民正黨은 돈내고하는 주인정당』『과거정당은 필요에 따라 만들어내는 거수는 농업정당이었으나 民正黨은 땀흘려 공업정당』이라고 비유했다.

이두 지구당개편대회에 참석한 陳懿鍾정책위의장은『우리가 단결해서 노력하면 선진국의 앞줄에는 못서도 뒷줄에는 설수있을것』이라고 말하기도. 【釜山=李以春기자】

◆解禁인사 迎入에 제도改善을

1일 상오 民韓黨의 전당대회준비9人委에서는 解禁인사의 迎入채비를 위한 黨憲 개정문제가 조심스럽게 거론.

이날 柳洪鎬중앙상위의장은『현행 黨憲附則은 在野정당과의 통합을전제로 한것이지 在野인사의迎入을규정하고 있지는않다』고지적한뒤『解禁인사의 迎入의지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병행해야 한다』고 黨憲개정론을 제기했다.

또한 金俊燮 전당대회의장도 이에 적극 동조하면서『차제에 肥大해진 당 규모에 맞게「30명이내」로 되어 있는 당무위원 숫자를 늘리는게 바람직하다』며 당무위원 增員을 제의하기까지.

한편 柳漢烈사무총장은 최근 民正黨당직자들의「政治關係法」에 대한 발언과 관련,『국회법을 고칠 필요성을 느끼지않는다』는발언은 이해하기 곤란하며 이미 총무들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 民正黨당직자들이『衆口難防식』이라고 비난하면서『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일관성있는 자세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朴鍾泰총무도『국회법개정의 당위성은 宜寧사건과 어음사기사건등으로 국정조사권을 발동시키지 못한데서 드러났다』며『이는 의원이면 여야를 초월해 누구라도 느꼈을것』이라고 주장.

"解禁문제는 관계당국이 열심히 검토중이니 관망함이 좋을 것"

本社來訪

▲金容元씨(大宇電子社長) ▲李楷씨(韓國機械研究所長) ▲丁芝秀씨(大韓住宅公社 弘報室長) 新任人事次

제1회 문학작품현상공모및 제6회 수학경시대회

본 온타리오주 한인대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학구력의 장려와 우수한 후배 양성을 목적으로 수학경시대회와 문학작품 현상공모를 실시합니다.

제6회 수학경시대회

◆참가자격 : 20세 이하(1962년 2월20일 이후생) Ontario 고교재학중의 한국학생.
Junior부~9, 10, 11학년 Senior부~12, 13학년

◆시 간 : 1983년3월12일(토요일) 오전11시

◆장 소 : University of Toronto Mclennan Physical Lab Room 102 60 St, George St,

◆출제방식및 수준
- 영문으로 쓰여진 수학문제.
- Junior부는 9, 10, 11학년 수준.
- Sinior부는 12, 13학년 수준.(단 13학년 Calculus와 Algebra제외)
- 문제는 선다형(Multiple Choice)으로 틀린답에는 감점함.
- 30문제 제한시간 1시간30분.

◆등록방법 : • 아래의 양식대로 서신으로만 접수함.
• 참가자의 이름(한글, 영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학교, 학년.

보낼곳 : KUSA 2067 ISLINGTON AVE, NO. #1114 WESTON, ONT, M9P 2R8

◆신청마감 : 1983년 3월9일(수요일)

◆시 상 : Senior부 1, 2, 3등(장학금및 상패) Junior부 1, 2, 3등(상패및 부상)

◆참가비 : 없음.

◆문의전화 : 김중수 247-2998, 임정혁 463-1234

◆발 표 : 교포신문에 수상자발표함과 동시에 개별 통지함.

제1회 문학작품현상공모

◆참가자격 : 20세이하(1962년 2월20일 이후생)
Ontario 고교 재학중의 한국학생. Junior·Senior부 구별 없음.

◆응모요령 : 한글이나 영문으로 쓰여진 수필(Essay)을 아래의 양식대로 모집 함.
• Suggested Guideline: 한인교포사회나 이민1세들인 부모님들에 관련된 것을 소재로 할것.
• Length: 한글 200자원고지 15매 내외, 영문 500 Words Typed.

◆등록방법 : 완성작품을 우편으로 소정양식에 따라 아래 주소로 보내기 바람.
(참가자의 이름(한글·영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학교, 학년)

◆보낼곳 : K.U.S.A. / 173 Roxborough Dr, Toronto, Ont M4W 1X7

◆신청마감 : 1983년 3월9일(수요일)

◆시 상 : 우수작및 장려상(상패및 부상)

◆참가비 : 없음.

◆문의전화 : 이영희(964-6672), 김은희(421-8360)

◆발 표 : 교포신문에 수상자발표함과 동시에 개별 통지함.

주최 : KUSA (온타리오주 한인대학생회)
후원 : 한인장학재단
한인재미과학기술자협회(온타리오 지부)

2·1 對北제의의 背景과 意義

포용성있는 對話의지

—北의"政黨·단체 대표참가"제의 受容

孫在植통일원장관이 제의한「南北韓당국및 정당·사회단체대표회의」는 한마디로 평화적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위한 현안문제에대해 雙方各界의사를 집약, 폭넓게 협의해보려는 생산적 對話의지를 밝힌것으로 풀이할수있다.

이는 곧 북한측의 일방적 거부와 기피로 중단되어온 南北대화의 돌파구 마련을위한 꾸준한 노력의 일단이며 나아가 對北優越의 포용성있는 對話자세를다시한번내외에천명한것으로 평가된다.

北韓측이 소위 大民族통일의「1·18 政治연석회의」을 들고 둘째 제의한 駐韓美軍철수문제만을 논의키위해「南北韓 諸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개최제의에 대해南北韓당국자를포함, 雙方의 각계의사를 대변할수있는 대표들이 참가토록 하자고 한것이다.

포괄적이고 현실적인제의라는 평가다. 그 이유는 우리측이「민족의 所望과 意志」인 통일을 위해 北측의 주장이 터무니없는것이지만 그들의 정당사회단체 대표가 참가하자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들이내세운 주한미군문제를 평화적 통일을 위해 南北韓雙方이 제기하는 문제」에 포괄적으로 受容, 반영시켰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이번 제의에서 그들이 주장한「當局대표 제외」를 南北간에 책임있는 당국을빼곤 어떤 결정도 이루어질수 없다는 현실성을 강조, 南北韓당국자와 정당·사회단체대표가 함께 대화의 場에 나가야 한다고 제의한 정도를 들수있다.

이번 제의에서 우리는 형식면에서 당국및 정당、사회단체 대표회의를 내놓았고 내용면에서 2개항의 의제를 함께 제안하고 있다.

즉 81년6월5일이후 제의해놓고 있는 南北韓당국최고책임자회담을 실현하는문제와 평화적통일을위해 南北韓쌍방이 여태껏제기해놓은 갖가지 통일방안이란 두의제를 토의하자는것이다.

◇北韓측의「南北諸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주장을 일부 受容한 우리측의「南北韓당국및 정당·사회단체대표회의」제의가 1일 對北성명으로 이루어졌다. 사진은 80년6월 板門店에서 열린 南北총리회담실무회담광경.

우리는 그동안 81년1월12일 南北韓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을 제의 한데이어 그해 6월5일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제의했고 다음해인 82년1월22일「통일의章典」이라는 평을 받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내외에 천명했다。이와함께 南北간에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하나의 조치로 서울—平壤간의 도로를 연결, 개통하자는것등 20개항의 시범실천사업을 82년2월1일에 제안했고 같은해 2월25일엔 閣僚級을 수석대표로하고 정당대표를 참가시키는 南北韓고위대표회담의 개최를 제의 했었다.

그러나 北韓측은 번번이 우리 제의의 기본정신을 외면하는 엉뚱한 주장만해왔다.

즉 우리의 南北韓당국최고 책임자상호방문및 당국최고책임자회담제의에대해선 81년8월6일 이른바「통일촉진대회」를 내세우며 그들의 聯共노선에동의하는 인사라면 이들을상대로 대화를 하겠다고 억지를 부렸으며 20개示範실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측대표까지 저들이 지명하고 소위「南北政治人1백人연합회의」를 개최하자는 엉뚱한 주장으로 대응해 왔다。

그들은 금년들어서도 우리가 실현가능성이 높은제의를 하고나선직후 순수한 통일문제는 외면한채 대화와는 관계도 없는 안보문제인 주한미군철수문제를 의제로 한는 내정간섭적인 주장을 담은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열자고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北韓측이 그들의 내부사정으로해서 부당한 구실을 내세워 대화의 문을 봉쇄하려는 기도에 구애되지 않고 이번에 새제의를 한 것이다.

이번 제의는 南北韓당국·사회단체대표등 참여폭이 넓다는 점과 예비회담의 장소와 시기、대표단 구성을 명시했다는 점이 특징을 이루고 있다.

또 北韓측의 주장을 감안, 정당·사회단체대표의 회담참여로 대표단의 구성을 확대한 것과 예비회담 대표단구성에 있어서 3人의 정당대표를 참여시키자고 제의한 점이다.

北韓의「1·18」주장、즉 南北韓 정당·사회단체대표가 모여 주한미군철수문제를 논의하자는 그들의 이번 주장은 우리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남북한당국최고책임자회담제의가 국내에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폭넓은 지지를받고있는데 대해 주한미군철수가 통일문제해결의 선결조건이라고 부각시켜 南北대화에 대한 우리의입장을 퇴색시켜 보려는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봄수있다.

"가로놓인 모든問題 논의하자"

對話거부에 쐐기… 北韓 이젠 名分잃어

그들의 주장은 또 남북대화에대한 자신들의 거부태도가 대내외적으로 비판을 받는 守勢的인 입장을 벗어나려는 시도이며 최근들어 그들이 들고 나오는 선전구호인 소위「反美자주화투쟁」을 조장시키려는 底意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또 이번 주장은 非同盟국가들이 주한미군철수주장에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있어 오는 3월의 제7차 비동맹정상회의에서 주한미군철수문제를 부각시켜 그들의 優勢를 만회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같은그들의간교한 의도속에는 다소나마변화가 있는것으로 풀이돼주목된다。

우리의정당、사회단체와는 이야기를 못하겠다는태도를 바꿨고 지금까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온주한미군철수문제를 대화의 의제로 바꿨다는점이다。

이같은 변화는 대화에응하려는 긍정적인 자세로의 전환으로 볼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對南赤化통일전략을 버리지 않는한 주한미군철수의제는 통일의 장애요소라는 해석이 더강하다。

그러나 이번 우리측제의의 신축성 때문에 그들이 또다시 제의를 거부한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을것이며 예비회담 수락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있다。

만약 그들이 우리의제의를 또다시 거부한다면 지금까지 입버릇처럼 주장해온「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라는 것도 대화를 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대화를 거부하기 위한구실이거나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정하면서 정치선전에 주력하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임을스스로 입증하는 결과만을가져오기 때문이다。

對話를 하자면서 口實、底意를 드러내는것은 統一이란 섬스런 民族意志에는 逆行되는 행위임을 누구도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河長春기자】

메아리

바운티 2世

英國왕실은 해마다 新年敍勳의 전통을 지킨다。그에따른 금년도 엘리자베드女王의 敍勳리스트에는 뜻 밖의 이름이 들어 있었다。톰·크리스천(47)。이름도 낯이선 남태평양의 낙도 피트케언의 無冠士다。

피트케언 섬은 남미 대륙과 오스트레일리아 중간에 자리한 넓이 18평방마일의 작은 英國領섬이다。주민은 43명。그러나 英國領의 낙도중에서는 작년에 전쟁을 치른 포클랜드보다 더 잘 알려져 있다。

지도에서 찾아보면 섬의 동북쪽에 바운티灣이란 이름이 표기돼있고 랜딩(上陸)이란 지명이 두군데, 포인트·크리스천이란 곶(岬) 이름도 보인다。바운티란 배의 선원이 섬에 상륙했고,그 중에 크리스천이란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섬의 역사가 잘 나타나 있다。올 새해에 훈장을 받은 톰은 그 크리스천의 5代孫이다。

바운티호는 2백20톤의 영국화물선이다。1787년에 영국을 떠난 바운티號는 2년뒤 4월 타히티 앞바다에서 船上반란을 겪었다。선장 윌리엄·블라이(1754~1817)의 橫暴狂的인 학대에 반항하여 선원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선원들은 선장이하 18명을 보트에 태워 쫓아 버렸다。선장 일행은 가까스로 영국에 귀환했고,반란 선원들은 타히티에서 붙들려 재판을 받았다。그러나 나머지 선원9명의 행방은 묘연했다。

이들의 운명은 19년이 지난 1808년에야 밝혀졌다。피트케언에 이른 일행중 플레처·크리스천 한사람이 살아남아 섬에 정착한것이다。

이들의 船上반란은 1935년 클라크·게이블과 찰즈·로튼이 주연한 영화「바운티號의 반란」으로 일약 유명해졌다。지금도 映畵사전을 보면 별표(☆) 넷의 名畵다。우리가 사건을 알기는 이 영화를 통해서다。

금년 새해 엘리자베드女王의 敍勳은 그러니까 사건발생 1백93년이 지나 船上반란의 重罪를 사면한 셈이 된다。훈장을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모르나,훈장을 받은 톰은『英國이 아직 우리를 잊지 않고 있는 증거』라는 소감을 無電으로 말했다고 전한다。

정초의 外信을 보고,「往年의 名畵」를 잠시 생각하던 참인데, 그게 몇백년전 일만이아니란 소식이 연거푸 날아든다。어제 아침 미국 플로리다 앞바다에서 일어났다는 한국 外航선원들의 해상난동 보도가 그중의 하나이며,근래의 충격적인 사건이다。

外信을 보아서는 난동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가 없으나, 지금은 대강가라 앉은 모양이다。그러나 기사를 읽어 가슴 아픈 대목은 하나 둘이 아니다。12개월 승선계약을 했으나 15개월간 한번도 상륙이 허가되지 않은채 계속근무했다는 근로조건, 일이 벌어진 뒤 미국해안경비대와의 접촉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 나갔했다는 것등이다。이것만으로도 미국인 관계자가,사건은 船上반란이라기보다 노동분규라고 지적했다는 말에 수긍이 간다。

金昌悅
<編輯委員>

사건은 단순한듯 하지만 복잡하다。그리스人소유인 선박의 船籍은 파나마이며,승무원은 한국인、사건관할은 미국이다。船上난동罪의 규명보다는 自國民보호가 더 시급한 형세라 할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약 3만명의 外航선원을 외국배에 태우고 있다。근면·성실하고 기술이 좋은 그들은 국제간에 평가가 높고, 작년 한해 이들이 벌어들인 돈이 2억9천만 달러에 이른다。

앞으로도 한국선원의 수요는 계속 높아질테지만,가정과 나라를 떠나 지내는 그들의 고초나 상대적으로 값싼 노임등에 대하여는 배려가 너무 적은 인상이다。船員송출을 둘러 싼 非違,외신에서 자주 들리는 각종 사고소식이 그런 그늘을 잘 말해 주고 있다。

근래 정부측의 조사에서도, 外航선원들중「滿足」을 밝힌 비율은 겨우 22%,나머지 62%가「下船하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니 外航선원의 자녀중 선원지망이 겨우 4%라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每日經濟 1월14일字)。

先進海洋國을 꿈꾸는 마당에、이런사정을 그냥 묵과하지는 못할 줄안다。3만명에 이르는 外航선원 머릿數의 比重,그들의 외화 稼得額을 생각하면、그것은 작지않은 사회문제요,경제문제다。

이번 사건의 충격은 그저 형사사건다루듯하는 진상조사로는 소화되지 않는다。사건의 뿌리— 外航선원 송출에 따른 문제점、그들의 근무조건등을 살펴 가리는 것이 사건재발을 막는 길이다。그리고 이런 階梯에 우리나라의 在外權益,自國民보호 태세가 얼마나 완벽한지도 점검해봐야 옳을것이라 생각한다。

내무부 올해 內務행정 기본방향

人氣·展示행정 배격

郡道 내년까지 千여km포장

내무부는 금년도 내무행정의 기본방향을 질서정착과 사회안정을 바탕으로 국민화합을 이루는데 두었다。

盧泰愚내무장관은 이러한 기본시책아래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촉진,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자율질서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안정기반에 초점을맞추어 선진행정풍토를 정착시키되 인기나 전시를위한 행정은 용납치 않기로했다。

또 모든행정은 주민편의위주로 개선하고 민원업무를 하부기관에 대폭 이양,일선 읍·면·동에서 해결할수있도록 추진키로했다。

특히 내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을 강화키로 하고 교육과정의 정신교육과목을 현재 10%에서 30%로 늘리고 직급별 기본교육을 승진의 필수과정으로 설정해 선교육 후보직의 원칙을 세웠다。교육내용은 현재의 교육기간 3주를 4주로늘리고 전국3백34명의 시장·군수에 대해 6개월씩 기본교육을 실시하며 시장·군수·읍·면·동장에게 1박2일코스로 집합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일선조직을 활성화 하기위해 현재 신규임용자를 읍·면·동에 먼저배치해 오던것을 앞으로는 신규임용자를 시·군에 먼저 배치하고 훈련을 받은후 일선으로 내보내기로했으며 시·도의인력을 줄여 일선 읍·면·동에 배치하고 총정원제로 신규증원을 억제하기로했다。

내무부는 앞으로 지역의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으로 지역정주기반을 조성한다。이계획에 의하면 금년안에 寧越·槐山·青松등 산간지3개소、井邑·安城등 평야지 2개소、瑞山·康津등 임해지역 2개소를 정주생활권의 시범지역으로 개발모형을 확정해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성장시키도록했다。

이와함께 지방도로망을 확충하기위해 IBRD차관으로 군도를 포장,내년까지99개 노선에 1천6km를 포장하게되는데 중앙에서 군도포장에 직접 나선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다。

내무부는 또 낙후지역을개발하기위해 온천관광지 5개소를 개발할 계획인데 현재 개발에 착수한 곳은 강원襄陽郡西面五加2里、春城郡東面萬泉3里、전남和順郡北面西西里、경북尙州郡化北面雲興大里、경북慶山郡南山面上里등 5개 지역으로 개발기준에 맞으면 온천지구로 지정하고 부대시설을 추진키로 했다。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기위해서는 농어촌의 균형발전기반을 확충하고 새마을운동의 민간조직을 육성키로했다。특히 금년에는 인구증가억제대책을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적극추진하고 새마을청소일을 월2회로 늘리는등도시를 정화하고 전국 1만2천6백94개 새마을금고중 인가를 받지않은 8천1백24개소중 부실금고는 정비키로했다。

특히 마을금고의 사고에 대비,사고보전기금도 12억원을 마련했다。

치안행정은 선진적사회질서기반을 세우는데 초점을맞추어 대대적인 국민질서 운동을 펴게된다。특히 교통 공중 경기장질서등에는 전경찰력을 동원、단속을 강화하고 불량청소년은 리스트를 작성、지속적인 선도와 예방활동을 펴기로했다。또 국민과 경찰의 벽을 없애기위해 학생과 경찰간의 운동경기를 열고 시민을 위한 행사를 많이 펴도록했다。

산림은 공익적기능을 높이기위해 영세산주의 협업단지를 권장하고 간벌제의 판로를 확보토록했다。또 초지조성을 위해 보전지역중 자원이나 공익가치가 낮은곳은 산지전용을 허용했다。【裵琪哲기자】

多角협력 첫布石

—슐츠 訪日사흘… 남긴것은

蘇의 核 極東 위협에 共感

「韓·美·日」등 3角체제 다져

【東京=宋孝彬특파원】지난 3일동안 이뤄진 조지·슐츠 미 국무장관의 첫 극동 순방외교는 소원했던 미·중공관계의 개선과 한·미·일·중공등의 다각적인 협력강화에 크게 도움이 된것으로 일본외교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슐츠장관은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일본에 머무르면서 나까소네(中曾根)수상、아베(安倍)외상、다니가와(谷川)방위청장관등과 잇따라회담을 갖고 소련의 백파이어극동배치와 중거리미사일 SS20의 증강배치로 극동지역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일치,이에대한 대응책을 협의한뒤 미·일협력을 한층 강화키로 합의했다。

특히 슐츠·나까소네 회담에서 미·일 양국은、소련이 지난 78년부터 우랄산맥以東에 SS20 중거리 미사일을 계속배치、현재 약1백基이상의 SS20을 배치했음을 확인하고 이로말미암아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안전을 위협할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전력핵균형을 깨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슐츠장관의 연쇄회담에서는 또 극동지역에 대한 핵균형 과괴는 소련이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정책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일본에 대한 외교적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두려워하는한편 나까소네 수상의 訪韓과 訪美、그리고 일본열도의「不沈항모化」발언에대해 타스통신이 즉각『일본은 핵보복의 대상이 될것』이라고 위협한 것에 대해서는 소련이 극동핵전력의 압도적인 우세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31일 나까소네수상과의 회담을 마친뒤 아베외상과 회담하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는 슐츠미국무장관(右)。

일본정부는 소련의 SS20 증강배치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수 없다。나까소네수상은 슐츠장관과의 회담에서『유럽의 중거리핵전력제한교섭에있어 소련이SS20을 극동에 이전할 구상을보이고있는데대해 일본정부로서는 용납할수 없는것』이라고 전제、『미국정부는 핵전력제한교섭에있어서 일본을포함한 동아시아에 불리한교섭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슐츠장관은『다른지역에 불리한해결은 하지않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일본측에게 일단 한시름 놓게했다。

그러나 중·소간의 개선움직임과 일·소관계의 악화、그리고 미·중공관계의 소원등을 들어 과연 미국이 소련의 중거리핵미사일 극동배치계획을 저지할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일본은 미국이 중거리미사일을 유럽에 배치 않는대신 소련의 중거리 미사일SS20을 극동에 배치하지 않는다는 소위「제로·옵션」을 지지하고 있으나 레이건은 최근 소련과의 중거리핵전력제한 교섭에 있어서 제로·옵션에 구애되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일본을 불안케 만들었다。

따라서 슐츠장관의 訪日목적은 일본의 불안을해소시키고 미·일안보조약을 기축으로 미·일간의 협력을 저변으로하는 한·미·일 3각협력체제와 미·일·중공의 또다른 3각협력체제를 강화하려는데 있었다。

나까소네 수상은 그밖에도 슐츠장관에게『중공의 근대화를 추진하기위해 온건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일이며 일·중공우호관계는 계속 강화되고있다』고 말하고『미·중공관계도 우호관계를 유지하는것이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고 말함으로써 슐츠장관의 중공방문성과를 기대했다。

일본측은 슐츠장관이 北京에서 처음만나는 중공지도자들과 소련의 南下정책을 봉쇄키위한 미·중공협력강화및 경제·무역의 협력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일본 共同통신은 남북한문제에 관한 구체적인새구상이 슐츠장관과 韓·日·中共3국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협의될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海外토픽

◇젖먹이 水泳강습　소련의 민스크病院에서는 간호원의 감시下에 생후 8週에서 7개월된 어린아이들에게水泳을 가르치고 있다고。【키스=聯合】

스타크와 絕交명령

★엘女王、앤드루王子에

英國여왕 엘리자베드 2세는 앤드루왕자에게 포르노영화배우출신인 쿠·스타크양과의 관계를 청산하라고 명령했다고 英國의대중지「선」이 보도。

선紙보도에 따르면 엘리자베드여왕은 스타크양이 1월의 마지막 주말을 앤드루왕자와 함께 노퍼크의 샌드링엄왕실 저택에서 보내지 못하도록 직접 개입했다면서 앤드루 왕자에게『수치레나 이상야릇한 영화에 알몸으로 출연한 스타크양이 왕실의 의무를 수행할 왕자비의 자질을 갖고있지 못하기때문에 스타크양과의 결혼계획을 포기하라』고 말했다는것。

그러나 버킹검宮은 앤드루왕자와 스타크양의 로맨스에 엘리자베드여왕이 직접 개입했다는 보도에대해『난센스』라고 일축하면서 그같은 일에 논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부연。【런던=AP·AFP】

고양이에 不姙시술

★엄청난 증가 방지책

니스의 2개동물보호단체들은 길잃은 고양이들이 날로 증가하는 사태를 방지하기위해 지난2년간 약2천3백여마리의 고양이에게 불임시술을 실시했다고。

이같은 고양이 불임시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이번 사업이 완성되려면 아직도 3년이나 더 걸려야 한다면서 불임시술은 고양이들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사태를 막기위한 유일한 보호방법이라고 강조。

市당국은 이 사업을 지원하기위해 지난해 20만프랑의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고양이 불임시술에 드는 비용은 암컷은 30달러、수컷은 18달러선이라고。【니스=AP】

比학생들 映畵祭비난示威

"외설"규탄에 이멜다"인간成長과정"

무검열외설영화의 일반공개로 말썽이 일고있는 마닐라국제영화제가 개막된지 4일만인 31일 약80명의 필리핀학생들은 이 영화제를 비난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정부영화센터앞에 모여든 학생들은 이영화제가 외설영화잔치라고 규탄、『저주받을 마닐라국제性영화제』라고쓰여진 포스터를 내걸고 시위를 벌였으나 아무런 사고없이 경찰에 의해 곧해산됐다。

프랑스의 칸영화제 스타일로 진행,「황금독수리」賞 시상식을 끝으로 오는4일 폐막되는 이영화제에는 국내외의 많은 작품이 출품됐으나 마닐라의 1백50개 영화관은 필리핀것도 포함,외설영화만을 골라 상영함으로써 특히 국내가톨릭교계의 비난을 받고있다。【마닐라=AP】

새로 개업한

일본식당

"KURI"

栗林

ㅁ각종 스시및 일본식요리

ㅁ부페식파티등 단체예약 환영

(100명이상 수용함)

ㅁ술 면허 있음

(새벽 1시까지 open)

◀ 영업시간 ▶

월~토 11 : 30AM－2 : 30PM

6 : 00PM－1 : 00AM

일요일 6 : 00PM－1 : 00AM

165 Bloor St. E.

(블루어×Church)

☎ : 960－1765

어디에도 비교될수없는
저렴한 가격과
아담한 분위기속에서
고객을 맞이하고있아오니
한번쯤 들려보십시요!

오뎅백반	$2.95
칼국수	$2.95
우동	$2.95
짜장면	$2.95
김밥	$2.50
물만두	$2.95
곰탕	$2.95
비빔밥	$2.95
불백	$4.95
갈비백	$4.95
생선찌게백	$3.75
두부찌게백	$3.25
만두국	$2.95
떡국	$2.95
떡만두국	$2.95
된장찌게백	$3.25
순두부찌게백	$3.25
통닭	$4.95
1/2 닭	$2.95

☎537-0432

내고향 통닭집

658½ BLOOR ST.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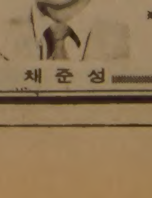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전 화 : (B)(416) 497－8900
(R)(416) 633－7892 (David Chae)

* 주택·대지·상가·사업체·투자처·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채 준 성

아파트村등 새로운 "소리公害"

自動車 백·부저

손수運轉 늘면서 "멜로디 洪水"

警笛 경쟁… 조용한 아침 빼앗아

요즈음 大都市에는 새로운 「소리공해」가 등장했다. 자동차가 후진할때 울리는 백버저(Back Buzzer) 경적이주인공. 자동차의 후진 사고를막기위해 등장한 안전장치지만 너도 나도 차에 단데다가 소리까지 제각기여서 한꺼번에 울리기 시작하면 듣는 사람을 피곤케하고 짜증나게한다.

◇소음 허용치의 2배나 — 자동차의 백버저가 지난해 여름부터 아파트촌 도심업무중심지의 새로운 소음공해로 등장,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소음이 배제돼야할 캠퍼스구내에서 측정한 결과 쾌적한 주거공간의 소음허용치에 2배가까운 강도를 보였다.

특히 승용차나 출근차가많은 아파트촌의 이른새벽아침에는 백버저의 합창이일어나 조용한 아침공기를 마음대로 헝클어놓고있고 큰빌딩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시끄러워 못살겠다」고호소한다. 더구나 일부운전자들은 경쟁적으로 더큰소리가나는 버저를 부착하는게 경향이어서 만만찮은 「소리공해」로 자리를 잡아가고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클랙슨은 단속대상이되나 백버저는 단속을 할수도 없게돼있는 실정이다.

백버저가 처음생겼던 7~8년전만해도 일부 청소차나 백미러로 차뒤편 전체를 쉽게 볼 수 없는 대형화물트럭등에 부착했는데 2년전부터 승용차를 비롯한 소형차량인 택시에까지 달기시작, 지난해 여름부터 부쩍 유행했다.

특히 차를 새로 샀거나 운전경험이 많지않은 자가운전자층이 애호하고 있는데 고급아파트일수록 소음공해가 심하다.

백 부저는 시중의 자동차 액세서리 상점이나 배터리가게, 부속상등에서 3천~8천원이면 살수있는데 즉석에서 부착이 가능하다.

메이커는 차량의 액세서리 등을 주로 만드는 10여개의 소규모회사나 이름없는 전자회사들로 부저 소리는 「엘리제를 위하여」「즐거운 나의 집」「뻐꾸기왈츠」「징글벨」등 10여종의 음악부터 새소리나 「삐삐」소리까지 15종에 이르고있다.

서울江東區 實童洞 J아파트10동 경비원 洪啓杓씨(48)는 같은동 30여대의 승용차중 20여대가 백버저를 달고있다고 밝히고 『출퇴근시간에는 얼룩은 멜로디 홍수를 이루고 늦은밤시간에 들어오는 자가용이나 외부차량들이내는 버저소리에 깜짝깜짝 놀랄때가많다』고 말했다.

이아파트 6층에 산다는 주부 金모씨(35)도 애써 재워놓은 아이들이 깨게된다고 불평을 터뜨렸다.

가구의 대부분이 승용차를 가지고있는 汝矣島 S아파트의 경우 아침7시전후 해서 백버저 소리가 다투어 나가지, 조용한아침을 빼긴지 오래라고 金모씨(40·女)는 불평했다.

90%의 가구가 승용차를 갖고있다는 서울江南區 狎鷗亭洞 H아파트중 32동의 경우 약20%, 중류층인 江東區 遁村洞 D아파트 32동은 약60%정도가 승용차에 백버저를 달고있는데 D아파트 許모씨(38·여)는 반상회 때 이야기를 하고싶어도 『자가용도 없는 주제에』라는 흉이 잡힐까봐 속만 탄다고 했다.

도심의 사무실근무도 마찬가지. 시청앞 코오롱빌딩 4층에서 일한다는 姜모씨(32)는 『차들이 공장이나 거래처등에 일을 나가는 상오 10시~11시께는 뒤섞여 들리는 음악소리에 정신이 빠질지경이라고 하루종일 간헐적으로 들리는 음악소리에 일에 집중이 되지않는다』고 호소했다.

이 빌딩의 주차장 직원 金仁哲씨(34)에 의하면 하루 3백여대의 주차장입차중 자가용은 90%선, 소형트럭의 경우는 거의 전부가 부착했다는것.

한편 이같은 백버저 소음량을 측정키 위해 漢陽大예방의학교실 朴恒培교수(51)팀과 함께 소음이 차단된 방에서 간이소음계(Sound level meter)로 1m거리에서 측정한 S전자의 「징글벨」 백버저는 85데시벨, 새소리 백버저는 80데시벨이었다. 이는 방앗간안이나 고속버스엔진 혹은 도심의 로터리에서 얻은 소음치와 맞먹는다는것. 朴교수에 의하면 쾌적한 주거공간이 40~50데시벨정도인데 이정도의 소음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불쾌감(annoyance)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한 경찰관계자는 『자동차 클랙슨은 서울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규제하고있으나 백버저는 「반경5m이내」에 주의를 주는 정도의 소리의 강도이므로 아직 규제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환경청 당국자는 연내 소음환경기준과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라면서 『자동차의 백부저공해는 실태조사를 거쳐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韓基泰기자】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
1560 Bayview Avenue Toronto
(B)488-2444 (R)759-4560

深夜 아파트人夫숙소에 불

現代건설現場 煖爐불 이불에… 3명숨져

果川住公

【安養】 1일새벽1시5분께 경기 始興郡 果川面文原里 주공3차고층아파트 현대건설 현장사무소 노무자숙소에서 불이나 잠자던 콘크리트 인부 김창수씨(42·경기城州郡坡州面長坡里49)와40대인부2명등3명이불에타숨지고 50평짜리가건물이전소됐다. 이날 불은 인부 6명이 전날밤 피워놓은 연탄난로가 과열돼 인화, 일어났다. 불이 나자 잠자던 인부 6명중 신원을 알수없는 40대 남자 2명은 미처 피하지 못해 중화상을 입고 安養市 대양병원과 한성병원에 옮겨졌으나 곧 숨졌으며 김씨는 일단 불을 피했다가 소지품을 꺼내기위해 다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40대남자 2명의 신원을 수배하는한편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聯】

한국선원 船上반란

플로리다沿岸 "15개월 上陸금지" 반발

【美플로리다州(키웨스트)AP船=聯】 플로리다州해안을 항해중이던 파나마선적 화물선 이스턴·나브호(9천톤급 선장 김서연)의 한국인선원 4명이 15개월동안 상륙을 금지당한데 불만을 품고 동료선원들의 지지를받아 29일밤 요리실을 부수는등 난동을 부려 선장이 마이애미 해안경찰에 긴급구조를 요청했다.

선상소요를 일으킨 선원들은 무기를소지하지않은채 선장에게 고향으로 돌아갈수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항해에 필요한 장비에는 손을 대지않았다고 경비대 대변인은 말했다.

한편 미국해안경비대측은 한국정부에대해 선원들이 귀국할수 있게 비행기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며 해안경비정이 키웨스트에서 8km 떨어진 해상에서 이스턴·나브호의 선원들이 투신하는등의 행동에 대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船主側서 계약어겨

한편 해운항만청은 1일이같은 선상분규 사건은 선주측이 당초의 승선계약을 어겨 3개월이나 선원을 교체시켜주지 않은 불만이 폭발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眞相파악 긴급훈령

외 무 부

외무부는 1일 미국 플로리다沿海에서 일어난 파나마國籍의 화물선 이스턴·나브號의 한국선원 船上반란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 보고하도록 駐애틀랜타 총영사관에 긴급훈령을 내렸다.

"學術올림픽" 태평양과학대회

87년 서울서 개최

세계최대의 국제학술대회로 꼽히는 제16차태평양과학대회(PACIFIC SCIENCE CONGRESS)가 오는 87년 서울서개최된다.

이같은 사실은 제15차대회가 개최중인 뉴질랜드 더니딘에 참가하고있는 한국대표단(단장 申泰煥학술원 회장)이 1일열린 태평양과학협회(PSA) 이사회에서 서울개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음을 알려옴으로써 밝혀졌다.

이태평양과학대회는 미국·소련·일본등 36개태평양연안국가와 주변국가들의 과학자들이 이지역의 번영과 복지에 관련된 학술적문제를 토론해 나감으로써 이지역주민의 평화적 결속강화를 목적으로 매4년마다 개최되는 비정치적학술올림픽이다.

한국대표단이 보내온 소식에의하면 오는 87년의 제16차대회개최지로 필리핀이 유치경쟁에 나섰으나 이사회가 열린 이날자진철회했다는것.

이대회는 지난1920년 미국하와이에서 개최된이래 호주·일본·캐나다등을거쳐지난79년에는 소련 하바로브스크에서 열려 46개국 1천3백6명의 과학자들이 참석했고 지난66년 동경대회때에는 59개국의 과학자 6천72명이 참석한적도있다.

우리나라는 지난57년 가입한이래 대표단을 파견한것은 10차(61년) 하와이대회가 처음이고 지난66년 이사국으로 지명되었다.

葬儀버스 전복

原城서 16명 중경상

【原州】 1일 상오 7시50분께 강원原城郡 興業面梅芝2里 충원국도인 속칭 양아치고개아래서 영동장의사소속 강원7아7001호 장의버스(운전사 김범선·47·江陵市 龍岡洞50의11)가 길가 민가를 들이받고 전복돼 차에 타고있던 백승하씨(30·경기 始興郡蘇萊邑果林里5반)등 16명이 중경상을입고 원주기독병원에 입원, 가료중이다. 【聯】

東草港서 變屍體로

집나간지 10일만에

【東草】 28일 낮12시께 東草市 靑湖洞 속초항부두에서 친목계원들과 술을마시고 지난 8일밤 행방불명됐던 윤준백씨(56·中央洞7통2반)가 수심3m의 항구에 빠져숨져있는것을 잠수부 김석만씨(48)가 발견, 인양했다. 【聯】

後期大경쟁 3.36대1

曉園大 관광경영과 16.4대1 최고

전국 36개 후기대학의83학년도 평균경쟁률은 총모집인원 3만3천2백95명에 11만1천8백98명이 지원, 3.3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1일 문교부가 집계한 전국 후기대학 지원현황을보면 서울의 10개 대학은 평균3.5대1, 지방의 26개대학은 3.3대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가장높은 대학은 경기 城南市에 있는 曉園大로 7.2대1이며 최고경쟁학과도 이대학의 관광경영학과로16.4대1 이었다.

한편 그리스도 신학대등 4개대학의 4개학과가 정원미달이었다.

후기대의 면접은 2일, 합격자발표는 9일이다.

示威선동 慶北大生

2명 징역1년선고

【大邱】 대구지법제1형사단독 白秀一판사는 1일전慶北大생 金祥淑(20·여·생물학과3년)피고인에게 징역1년, 金炅稀(20·여·사학과2년)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3일동교교내에서 불온유인물 1백80여장을 뿌리고 학생들에게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聯】

학교公金횡령 도주

前경리직원을 검거

【大邱】 대구南部경찰서는 1일 학교공금 2천3백여만원을 가로챈 전청인고등학교경리담당직원 金中圭씨(33·대구中區大新洞289)를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 이고등학교 서무과경리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82년2월22일 신입생입학금및 수업료 1천2백여만원을 횡령, 7차례에 걸쳐2천3백62만5천14원의 학교공금을 횡령한 후 달아났다가 검거됐다. 【聯】

22萬弗사건 朴俊庸 재판장

"保釋 請託 안받았다"

問責인사 不服 사표

전대법원장 비서관 姜儀用씨 독직사건과 관련, 당시재판장으로사표를종용받아오다 大田지법 江景지원장으로 전보된 서울형사지법 朴俊庸부장판사가 1일상오『이번 인사에 승복할수없다』고 밝히고 金炳瑀서울형사지법원장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朴부장판사는 이날『姜비서관이 청탁을 받은 22만달러 밀반출사건의 관련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것은 외부청탁이 있어서가아니라 객관적으로 허가해줘야할 사유가 있었기 때문인데도 나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朴부장판사는 『지난달26일 대법원장으로부터 사표를 종용받았으나 책임이 없기때문에 물러날수 없다고 버텨왔으나 3일자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시킴으로써 결국사표를 강요하고 있는것같다』고 주장하고 『사법부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법관에게 사표를 강요하거나 좌천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사표를 내기로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大邱 6일째 봄날씨

낮 최고10도넘어… 가스事故 늘어

【大邱】 大邱지방의 낮최고기온이 연6일째 영상10도를 넘어서 이지방의 메리야스·양말제조업체등 일부 섬유업계는 이미 봄철제품 제조에들어갔으며 또 일부상가에서는 겨울옷은 거두어들이고 봄옷을 진열하는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다.

1일 大邱지방측후소에 따르면 지난26일부터 31일사이 大邱지방의 낮최고기온은 섭씨10도를 웃도는 10도8분으로 예년보다 6도7분이나 높다.

이같은 이상난동으로 大邱시내 중심가인東城路·中央路에는 두터운외투를 벗고 가벼운 옷차림을한 행인들이 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을 주고있긴하나 연탄가스 중독환자들이 크게늘어 하루7~8명정도가 입원, 치료를받기도한다.

지난26일부터 大邱지방의 낮최고기온은 26일 10도, 27일 10도, 28일 12도3분, 29일 12도4분. 【聯】

防衛兵싸움 말리다

예비군中隊長 숨져

【寧越】 1일 새벽2시께 강원도旌善郡旌善邑鳳陽8里후허가 대포집(주인 김명자·41)에서 정선읍 예비군중대장 소한섭씨(30)가 방위병 전희열씨(22·旌善邑鳳陽9里10반)와 최철수씨(23)가 싸우는것을 말리다 전씨가휘두른 깨진맥주병에 목을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 숨졌다. 【聯】

관광여권 신청자 적어

대부분 50~60代 無職

1월중 63명에發給

외무부는지난1월 한달동안의 관광여권신청자수는 부부동시 여행희망자 10명을 포함 모두 83명으로 이중 63명에게 여권이 발급됐다고 1일밝혔다.

관광여권신청자들은 대부분이 無職인것이 특징이며 50~60代가 주류를이루고있는데 여행목적지는 일본이 가장많고 그다음이 대만 홍콩등 東南亞지역 미국 유럽 濠洲 브라질의 순이었다. 【聯】

日NHK 서울주재원 千學範씨

「야누스的 苦惱」

「日本앞잡이」소리 들을땐 悲哀가…

무릇 기자란 가장 치밀하고 냉철스러운 관찰자인 동시에 관찰의 대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야하는 局外者이기도하다.

한국인으로서 日本의 대언론기관인 NHK방송국의 서울주재원(스트링거)으로 일하는 千學範씨(57·사진)에게 이 야누스的 자기분열의 고충은 더욱 심했을 것이다.

대체로 日本언론의 「입맛」은 서울發 뉴스를 매우 맛있어하는 일반적 속성을 지니고있고, 이 입맛은 한국의 격변기에는 더욱 게걸스러워지게 마련이다.

千씨는 4·19이후 23년간 서울發뉴스를 이처럼 포식하는 日本언론을 위해 한국産 뉴스를 공급해왔다. NHK가 서울에 심어놓은 뉴스의 최일선 촉각인 셈이다. 서울에는 千씨와 같은 외국언론社 소속 한국인 주재원이 20명가량 뛰고있지만 千씨는 이들 중에서도 가장고참이다. 舊정치인, 정재계의 인사, 언론계에 이르기까지 그는 예민한 촉각을 뻗치고 있고, 많은 서울發 특종과 역대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기사들을 전했다.

『사실을 정확히 전하고 일본인 제작자들이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일이지요. 나름대로 「한국의 참모습」을 알리려 노력했읍니다』고 그는말했다.

10·26이후 「三金」이 외신, 특히 일본언론의 취재 초점일때는 기자가 아닌 한사람의 한국인으로서 고뇌를 겪기도 했다고 말하더니 NHK의 百濟문화권 특집제작을 위해 日本문화의 근원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한국인으로서의 사명감으로 扶餘일대를 온통 뒤졌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지난해 일본교과서왜곡문제로 한일간에 파고가 높을때는 한국국민의 노한 목소리로 그대로 보냈다가 일본자민당의 경고가 NHK에 전달되는 소동도 빚었다.

그러나 그는 새까만 후배기자들이 「일본앞잡이」로 경원시하거나 장성한 자녀들까지 아버지의 이력을 탐탁해 하지 않을때는 기자경력23년에 비애를 느끼지 않을수없다고 했다.

『지금은 무엇보다 일본제인것을 무조건 배척하는 자세를 벗어나 자신감을 갖고 대응하는 의연함이 필요합니다』고 그는 말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때쯤 되면 그의 「야누스」를 이해할수 있을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악수를 나눴다. 【姜秉泰기자】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야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한국현대무용단

동남아지역·유럽을 거쳐 북미주로는 처음 오리엔탈 파레스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읍니다.

바쁘신중에도 친지와 가족동반하셔서 회포를 푸시기 바랍니다.

인기자매
별자매
1월24일(월)부터
뉴 서울
공연
529 BLOOR ST. WEST
TORONTO, ONT
예약전화 533-1500

한국卓球 앞날걱정

主戰5명 負傷핑계 평가戰외면
名聲앞세운 추천선발 없어져야

4월 東京세계大會 불안
代表 15명 精神武裝부터

4월 東京세계선수권대회 후보 15명의 풀리그를 앞두고 갑자기 출전을 포기해 버렸다. 대한탁구협회는 지난 31일 남녀대표선수 15명을 확정, 새 대표팀을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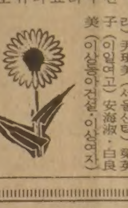
대표선수 선발은 지난 1월의 종합선수권대회와 국가대표최종선발전 성적에 따른것이다. 그러나 남자대표 7명중 金浣·金琦潭(이상 제일합섬) 등 2명이, 여자대표 8명중 李壽子(제일모직)·梁英子(이일여고)·安海淑(동아건설) 등 3명이 부상을 이유로 최종선발전을 기피했던 선수들이다.

새로구성된 탁구대표팀은 최소한 5명의 부상자를 안고 있는 셈이다. 염려스러운 것은 이들 부상선수들이 이제까지 한국탁구를 이끌어왔던 주전선수들이고, 오는 4월 東京에서도 주전으로 큰 몫을 해내지않으면 안된다는 데있다.

협회는 이들이 세계선수권대회이전에 정상컨디션을 회복, 제기량을 되찾을 것으로 믿고있다.

병을 이유로 선발전을 외면한 선수들 가운데 적지않은 숫자가 처음부터 부상으로 불참한 것은 아니라고 일부 지도자들은 주장한다. 실제 5명의 부상선수중 3명은 종합선수권에 참가, 부실한 성적을 냈으며 대표로 보인다.

◇탁구대표팀
▲감독=金昌濟 ▲코치=金忠勇(남자) 尹相汶(여자)
▲선수=尹吉重(삼호)·安宰亨(광성공)·李昌勳(성무)·金浣·金琦潭(이상 제일합섬)·權五澤(한성대)·朴利熙(在서독·이상남자) 李美雨·金貞美·李壽子(이상 제일모직)·申得花(부산코카콜라)·尹璟美(서울신탁)·梁英子(이일여고)·安海淑·白良美(이상동아건설·이상여자)



「겨울이 없다」
—프로야구 强訓현장을 가다
OB 베어스 (上)

◇새로마련한 利川 전용연습장 — 利川에 마련된 전용 연습장에서 용수철 튀듯 순발력훈련에 열중하고있는 OB 베어스 선수들. 【利川=張善文기자】

老·少壯이 어울려 連覇의지 다져
해외訓鍊엔 日巨人 코치도 초청

常夏의 땅 臺灣의 카오슝(高雄)으로 떠나면서도 OB 베어스 선수들의 어깨는 무겁기만했다. 프로야구 元年에 이룬 정상의 무거운짐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OB는 82년 첫 시즌보다는 한결 어려운입장에 서있다.

『臺灣과 日本을돌며 올해엔 꼭連覇의 답을 얻어올 작정입니다』

金永德감독은 이번 원정에서 「OB連覇」의 열쇠를 찾겠다고 말한다. ... 【方錫鎬기자】

실업排球 「게임忌避症」 심각

선수負傷등 내세우지만 성적不振때 문책두려워
남자쪽 더심해… 작년大會 全팀出戰 한번도없어

조명탑

한국남녀 실업배구는 언제 동면에서 깨어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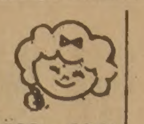
그렇지 않아도 게임의질이 낮은데다 수가 적은 실업배구가 또 ...

지난해 12월23일 개막하려다가 「고교졸업선수」 2월말까지 실업팀에서 뛰지 못한다」는 문교부방침때문에 오는12일로 연기됐던 82년 제3차 실업연맹전이 또다시 3월로 연기될 움직임을 보여 말썽이되고있다. ... 【金仁鎬기자】

國·洋弓 분리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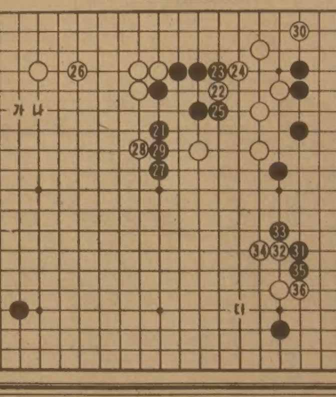
弓道協 申회장 常備軍둬 유망주 育成

대한궁도협회 申東興신임회장은 1일 지금까지 궁도협회서 통괄해온 양궁과 국궁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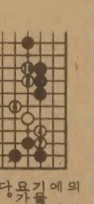

533-2361

張吉山 <1655>
黃晳暎 作 ·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15)

第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9局 第2譜 21~36
白(4段) 李相浩 (1勝1敗)
黑(6段) 張秀英 (2勝0敗)
(각5시간 덤5집반)



"下手를 다루는식"



【一凡】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한국식품이라면!
제일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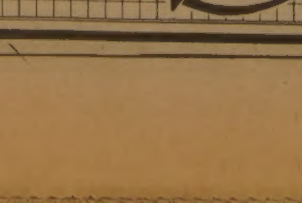
항상 싱싱한 야채와
맛있는 젖갈류와 밑반찬이
준비되어 있아오니
가족식탁을 위해서는 물론
각종 파티및
잔치상을 차리실 때는
언제나 제일식품을
찾아주세요.
뒷편에 넓은 주차장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아리랑 식당옆〉
532-1054

에코시가구점
확장이전안내
ECOSYS 가구

그간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에 각 가정마다 축복있으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에코시 가구점이 2월1을 기하여 아래 장소로 확장이전하기에 안내말씀 드립니다.
교민여러분의 밀어주신 덕분에 5년 10개월이라는 세월동안 꾸준히 자라왔으며 이제는 토론토에 이름있는 고급가구점으로 성장했읍니다.
우리교민을 위하여 보다 값싸고 최신형 고급가구를 한눈으로 볼수있게 넓고, 교통이 편리한 장소로 이전했읍니다.

1. 이전일—1983년2월1일(화)
2. 자축파티—1983년2월13일(일요일·구정) 오후3시—오후9시까지
3. 오픈스페샬 2월1일~2월20일까지(20일간)

21 Vanghan Rd.
(1440 Bathurst 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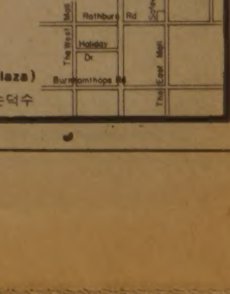


※초청안내는 개별적 초청을 못드리고 지면을 통해서 인사드림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김만구

Grant Brown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한구
☎: 247—7161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드리는
한인식품
한인에 필요한 식품 생활필수품 일체
연중 무휴 아침10시부터 밤10시까지
시내 전역과 근교 무료배달



15 West Deane Pk. Dr. (east mall Plaza)
Etobicoke Tel. 622-2643 대표 손덕수

濟州에 국제自由港

建設部보고 종합개발계획 수립

서울등 再開發본격화

올해 住宅건설 24만호 책정

全斗煥대통령은 30일 하오 金宗鎬건설부장관으로부터 올해건설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金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오는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에대비, 濟州道에 국제자유항지역을 설치할것을 골자로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2백19개 기존도시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외에 서울등 대도시 재개발사업을 본격화하는 한편 ▲올해 주택건설규모를 24만호로 책정, 이중 1만3천호는 임대주택으로 지을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수해 극복과 각종 용수의 안정공급을위해 오는 91년까지 陜川, 住岩, 臨溪, 臨河, 咸陽, 洪川, 明川등 7개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시지역의 주차장제도를 개선하기위해 상반기중 주차장법 개정을통해 기존건물에 대해서도 주차장 설치비용을 징수하는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金장관은 ▲올림픽에따른 관광시설과 수도권지역 위락시설확충을위해 北漢山, 道峰山, 水洛山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할것이며 ▲IBRD 및 ADB등 국제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차관사업으로 도로포장및 확장사업을 계속실시, 전국국도 포장률을 82년말현재 60·4%에서 67·0%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날보고된 건설부 업무계획에 의하면 무주택서민을위한 임대주택건설의 촉진방안으로 올해부터 민간업자에게도 국민주택기금에서 年利5%의 저리자금을 융자지원하고 토지개발공사등 공공부문에서 조성하는택지는 일정비율이상을 임대주택用地로 묶어 값싼택지를 확보해나가기로했다.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신규분양되는 공공및 민간아파트가격은 작년수준에서동결하여무주택서민들의내집마련을지원토록했다.

한편 주차장제도를 개선, ▲기존건물이라도 주차시설이 없는경우에는 주차장설치비용을 별도로 징수, 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에 예치토록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주차장특별회계를 별도설치, 운영토록하는것과 ▲路外주자장설치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키도록 주차장법을개정할계획이다.

한편 전국도로망의 확충을위해 大田—西光州간 (170·7㎞) 호남고속도로확장공사 (86년완공)와 서울—仁川간 (23·4㎞) (84년5월착공) 및서울—水原 (26·3㎞) 고속도로 확장 공사를 착공하는한편 일반도로 사업 54건과 세계은행 (IBRD) 5차및 아시아개발은행 (ADB) 5차차관도로사업으로오는86년까지 총7백45·8㎞의 도로포장및 개수사업을시행할계획이다.

건설부는 北漢山국립공원의 신규지정, 개발등 국립공원의 확충, 정비에따른 재원확보방안으로 국립공원 입장료상한선을인상할방침이다.

◇全대통령이 奬忠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아마추어 바둑대회를 둘러보고있다。

全대통령, 바둑大會 참관

全斗煥대통령은 일요일인 30일낮 서울 奬忠체육관에서 열린 KBS주최 전국 아마추어 바둑대회를참관하고 참가棋士들을 격려했다.

全대통령은이날낮12시에 예고없이 대회장에 들러 李元洪KBS사장과 趙南哲 대회심판장의 안내로 장내를돌며 대국모습을 살펴보고 단상에서 열리고있던 한국 정상의 바둑대결도 관전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정상대결을벌인 曺薰鉉9단 徐奉洙7단, 여류기사 尹希律 趙英淑초단, 꼬마기사 구양회 (9급) 李東炫군(8급) 등과 근처 대중음식점에서 점심을함께하며 趙대회심판장으로부터 한국바둑계의 현황에관해 설명을들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우리바둑을 잘보급해 전문기사들을 태권도사범처럼 해외에 많이보내 세계각국으로 부터 우리의 바둑실력을 인정받도록 기반을 닦으라』고 당부했다.

말聯장관에 훈장

全斗煥대통령은 31일 상오 청와대에서 말레이지아의 압둘라·빈·하지·아마드·바다위 首相室장관을 접견하고 修交훈장 光化章을 주었다.

이자리에는 李正五과기처장관과 朴贊兢총무처장관과 알룰·마지드 駐韓말레이지아 대사가 배석했다.

公職者 財産등록 마감

行政·司法府 전원등록, 立法府 저조

公職者의 재산등록이 31일마감됐다.

행정부는 등록대상 2백94명가운데 등록연기신청을 낸 외교관 20명을 제외한 274명 모두가 등록을했고 사법부도 71명 전원이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입법부는 2백79명 대상자중 상당수가 연기신청을 냈다.

재산등록은 기한내에 등록을 하지않을경우 소속기관장이 징계에 회부할수 있게 규정돼있다.

李외무, 워커要談

李範錫외무장관은 31일 하오 리처드·워커 駐韓미국대사의 예방을받고 슐츠美국무장관의 訪韓을 포함한 韓美간의 현안문제에관해 70여분간 요담했다.

社會漫評

住宅 정책…

美, 極東巡洋艦 核장비

슐츠-나까소네, 蘇SS20대항

【東京=宋孝彬특파원】訪日중인 슐츠美국무장관은 31일 나까소네일본수상및 아베(安倍晋太郎)外相과 연쇄회담을 갖고 소련의 중거리 미사일 SS20의 極東증강배치에 따른 東아시아정세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슐츠—나까소네회담은 美日양국이 태평양을 사이에둔 맹방이며 東아시아지역의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합의하는 한편, 소련의 SS20극동배치가 아시아의 戰域核 균형을 깨뜨리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대한 대응책을 조속히세우기로했다.

슐츠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소련의 중거리미사일 SS20을 극동에 증강배치함으로써 한국, 일본, 중공,그리고 필리핀까지를 그 사정거리안에 두게됐다고 지적하고 『소련은 중거리미사일 증강배치로 외교적 발언권을 강화시켰으며 美日정상회담에대한 타스통신의 강한 비판이 나오게 된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국측은 SS20의 극동배치에 따른 대응책으로 84년 순양함에 핵탄두를 부착시킬 것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슐츠美國務長官(右)과 나까소네·야스히로(中曾根康弘) 日本首相이 31일 도오꾜 (東京)에서 회담중 사진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슐츠장관은 일본방문을 마친뒤 韓國과 中共을 방문할 예정이다. 【東京31日AP聯合=聯】

日, 査證발급 완화

日本정부는 2월1일부터 우리나라의 短期商用入國者중 ▲國營기업체 ▲증권거래소 1·2부 上場회사 ▲對日거래실적이 年間1억円 이상의 기업체의 이사및 영업부장, 3년이상 근무한 정규사원에 대해 複數査證을 발급키로했다고 외무부가 31일 발표했다.

社告

제2회 한국教育者大賞

진정한 師道의 등불 찾습니다

한국일보社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教育者大賞」을 시행합니다. 우리 사회에 진정한 師道의 등불을 밝히기위해 마련한 「한국教育者大賞」은 참된敎師인 82년 大賞 두분과 스승의賞 스물네분등 모두 26명의 모범 선생님을 선정하여 온국민의 감사와 존경의 꽃다발을 한데모아 드린바 있었읍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둘러보건대, 국가의 百年大計를 위한 教育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모자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先進祖國창조의 現場이어야할 우리의 교육환경은 여전히 실의와 좌절의 늪에 들어있는등 만족스럽지못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국일보社가 「한국教育者大賞」을 해마다 시행하고자함은, 이처럼 힘들고 벅찬 教育與件속에서도 教壇을 天職으로 지키면서 自矜과勝利의 教育者像을 창조해온 「고마우신 우리 선생님」들을 찾아내, 그 이름들을 민족의 스승으로 歷史에 기록하려는 뜻에 있읍니다. 讀者추천후보자의 수준과 公正性을 확보하기위해 추천요건을 강화한것이특징인 「1983년도 제2회 한국教育者大賞」의 운영요강은 다음과같습니다. 한국일보社가 教育立國의 국민적희망과 의지를 결집하여 마련한 「한국教育者大賞」에 국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호응 있으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初·中等 大賞 2명에 5백만원·海外여행

추천마감 3월15일…독자추천도받아

스승의賞 24명엔 副賞 1백만원

◇賞의 種類와 施賞人員=大賞2명 (初等1·中等1명) 스승의 賞24명 (각市道마다 初等1·中等1명씩)

◇選拔범위=教職에 15년이상근속한 初·中等教師·校監·校長및 教育專門職 종사자. 가능한한 평교사를 우선함.

◇후보자推薦=후보자는 市道教育委員會, 大韓教聯및 市道支部, 大韓私立中高等學校長會등 3개기관에서 추천하며, 한국일보讀者도 임의로 추천할수 있음. 독자추천의 경우는 반드시 2인이상의 학교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함.

◇推薦인원=3개추천기관은 각시도에서 각각 4명씩 (초등2·중등2)의 후보자를 추천할수있음. 독자추천후보자는 제한이없음.

◇제출서류=이력서·공적서 (推薦機關長의확인) 및 소정양식의 신청서 각 1장, 반명함판 사진 2장.

◇접수마감=3월15일.

◇심사=文教部·教職團體·教育界元老및 한국일보社 幹部를 포함한 10명내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 이 심사위원회의 審査와 現地確認을 통해 수상자를 선발함.

◇施賞=①大賞2명 : 副賞각 5백만원및 해외여행.
②스승의賞24명 : 副賞각 1백만원.

【문의처】한국일보社 事業部 (직통722—1472·1575, 722—4151交437)

主催 한국일보社
後援 文教部·大韓教育聯合會·大韓教員共濟會

4월초에 臨時國會

3黨대표 연설청취·要職선출

3黨대표연설 청취와 임기가 끝나는 國會要職선출을 위한 제1백16회임시국회가 오는 4월초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李鍾贊 民正黨총무는 31일 상오 경남 河東·南海지구당 개편대회참석에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3黨대표연설과 정부의 새해 업무현황보고청취및 對정부질문을위한 제1백16회 임시국회를 오는 4월초에 열계획』이라고 말하고 『국회소집 문제등을 논의하기위해 오는2월11일께 3黨총무회담을 가질예정이며 임시국회 會期는 對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7일, 常任委 10일등 15~20일정도가 될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野黨측이 2월임시국회소집을 요구하고 있는데대해 『정부각부처가 소관업무계획을 아직 확정치못한 상태이고 民正黨의 지구당및 市道지부개편대회 日程등으로 미루어 3黨대표연설만을 듣기위한 短期의 임시국회소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제한후 『국회요직의임기가 만료되는 오는4월10일에임박해서국회를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李총무는 『이번국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국회의장단 및상임위원장등국회要職의선출이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

뇌물受賂 사건과 관련 鐵道廳관리 9명사표

정부는 31일 철도청뇌물수뢰사건과 관련, 철도청시설국장 金喜國씨등국장급3명, 역장2명, 과장급2명, 계장급2명등 모두9명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날 사표가 수리된사람은 다음과같다.

▲시설국장 金喜國 ▲서울지방철도청장 權奇顏 ▲기술연구소장 湯相萬 ▲水原역장 權泰文 ▲裡里역장 金奎來 ▲보선과장 吳鍾國 ▲중부공사사무소장 張來煥 ▲선로계장 金현규 ▲계획〃 鄭時溶

全黨大會 공고 民韓, 제출案件확정

民韓黨은 31일 오는 2월8일의 全黨대회에 제출할案件을 확정, 中央常委 (의장 吳洪錫의원)를 소집하고 9일 상오10시 世宗문화회관에서 全黨대회 (의장 金俊燮)를 개최한다고 정식공고했다.

鄕軍 사무총장에 金英圭씨를 발령

재향군인회는 사무총장에 金英圭씨 (53·예비역 육군소장)를 1일자로 임명 발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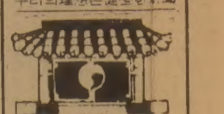
제2차 公館長회의 오는 10일부터열려

금년도 제2차 在外公館長회의가 亞洲·美洲및 歐洲지역 공관장 37명이 참석한가운데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중앙청회의실에서 열린다.

地平線

조선왕조때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게될 인재를 뽑는데는 과거제도를 통해서 였다. 전국의 유생들 가운데서 극소수의 영재를 뽑자니 경쟁도 치열하였거니와 거기에 따르는 폐단도 많아서 늘 사회적인 물의를 빚곤 했던것은 오늘의 각급 학교 입시제도와 별반 다를것이 없었다. ▼과거에서는 과문육체(科文六體)라 하여 문과의 경우 시(詩)·부(賦)·표(表)·책(策)·의(義)·의(疑)등의 여섯종류를 시험하였다. 시험의 결과는 이상(二上)·이중(二中)·이하(二下)·삼상(三上)·삼중(三中)·삼하(三下)에 차상(次上)·차중(次中)·차하(次下)등 9등급으로 나누었다. ▼이 가운데서 평점이 삼하이상이 되어야 급제를 시켰으니 합격권이 상당히 느슨한듯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은 이 등용의 관문을 통과하기란 오늘날의 고등고시가 문제되지 않을만큼 어려웠던것이다. 그래서 도의를 생명처럼 여기고 염치를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겼던 그무렵에도 온갖 부정이 따랐다. ▼때문에 19세기초 순조연간에는 과거를 보는 유생의 명단을 지방관서에서 책으로 만들어 시험관서로 보내, 본인인 것을 확인하게 한 다음에야 수험표격인 강첩(講帖)을 발급케 했다. 또 이도 모자라서 시험관이나 수험하는 유생은 한번 입장하면 시험이 끝날 때까지 퇴장하지 못하게 했다. ▼특히 제술(製述)은 제목을 내고 3시간 안에 마쳐야 하며 만약 부정이 적발되면 사직당국에 넘겨서 군졸이 되게 하거나 좀 심하면 수갑을 채워 하옥시키는 것과 같은 엄벌로 다스렸다. 한데 그래도 부정은 가시지 않았으니 이를 시험이라는 제도가 지닌 결함으로 보아야 하겠는지 아니면 경쟁에선 견딜수 없게되는 인성(人性) 자체의 모순으로 보아야 옳을지. ▼83학년도 후기대 전형을 위한 신입생의 원서접수가 어제하오6시로 마감되었다. 후기전형 36개대학 가운데 서울은 10개교 지방이 26개교고 모집인원은 3만3천2백95명. 서울보다는 지방대학에 지원자가 몰리고 있으며 그가운데서도 서울에서 통학이 가능한 지방대학의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다. ▼모든수험생들은 수험에 앞서 차분히 가라앉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일이다. 합격의 관문을 통과하여 기쁨을 안게되거나 또 불합격의 고배를 들게되거나 그것은 다 같이 긴 인생의 한 과정일뿐이다. 대학입시의 당락이 인생의 전부라는 단견을 갖지 말고 평소의 성실과 노력이 중요함에 눈뜨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싶다.

한국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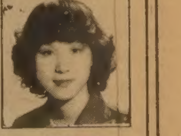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 (416) 532-273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감사합니다

지난 벡커프랜차이즈 정기
총회및 신년파티에 나와 주신
귀빈여러분과 화환을 보내주신
여러단체및 기업체대표 제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벡커프랜차이즈
협회
회장 김 병 진

온타리오 한인상공인협회 회원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완전한 차체수리
○ 페인팅 (Oven Bake Finishes)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수리중 차 대여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LTD.
PLAZA
JOHN ST.
PEAK-O-DAWN RD.
DUNDAS ST. HWY 5
Q.E.W.
HWY 10 HURONTARIO ST.
69 John Street, Missi
Bus.: 275•3131, 3133
R 457—1234
정 창 헌

비데오게임
〈Rout for Sale〉
2개씩 게임기계가 있는 장소대여
(선착순. 약 10~12자리 있음)
*수익성 높음.

⊙24시간 써비스
⊙분배율 50% (기계에서 오는 이익)
⊙정기적으로 기계를 책크·업하고 교환해 줌.
TRANS AMERICAN
245—5544(낮) Page #4030
636—0906(저녁 7시이후)

日、中共에 特使 파견

오는 4월、나까소네首相 韓·美방문 설명

蘇SS極東배치도 打診

◇고개를 쳐든 나치의 亡靈 히틀러집권 50주년을 기념하기위해 30일 西獨마인츠에서 열린 극우단체들의 집회에서 군복차림에 복면을한 청년들이 「나치」식 경례를 하고있다。【마인츠 (西獨) 30日AP聯=聯】

【東京=聯】일본정부는 나까소네·야스히로(中曾根康弘)수상의 한국및 미국방문결과를 설명하기위해 오는4월말까지 정부특사를 中共에 파견할 방침이다。

일본 외무성의 한 고위관리는 30일하오 일본정부의對中共특사파견은 중공측이 나까소네수상의 韓·美방문을통한 「韓·美·日3국유대강화」경향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아래 나까소네수상의 韓·美방문결과를 中共측에 자세히 설명해줌으로써 의구심을 갖지않도록 하기위해 결정된것이라고 밝혔다。

이관리는 또 앞으로 中共에 파견될 특사는 최근의 極東정세 특히 소련의 최신형중거리핵미사일 SS20의 극동배치가능성등에 관한 중공정부의 견해등을 타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특사로는 (安倍晋太郎)외상이나 차관급의 외무성 고위관리또는 自民黨의 親中共人士가운데서 선발될것이라고 덧붙였다。

물거품된 라오스 美兵구출 特攻作戰

지난해 11월 美그린베레출신등 16명이 감행

暗號名「라자루스」…인기배우 資金지원說

라오스 反政게릴라 기습받고 1명숨져

【방콕UPI=聯】인도차이나전쟁당시 포로로잡혀 공산라오스의 한수용소에 억류되어있는 약1백20명의 미군실종자들(MIA)을 구출하기위해 美그린베레출신으로 구성된 특공대가 지난11월 극비리에 작전을 폈으나 실패했다고 태국의 英字일간지 방콕 포스트가 31일 폭로했다。

이신문은 前그린베레중령 제임즈·보·그리츠(43)를 작전총책임자로 전직美軍특수부대출신 미국인 및 라오스용병등 총16명으로 구성된 美특공대가 지난11월 라오스에 구출작전을 감행했으나 라오스反정부게릴라들의 매복기습을받아 대원1명을 잃은채 퇴각했다고 밝혔다。

암호명「라자루스」로 불려진 이비밀특공작전에 관한 보도는 美캘리포니아및 태국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태국정보소식통들이 확인한 작전전모는 다음과 같다。

제임즈·보·그리츠등 4명의 그린베레출신 미국인들은 지난11월중순 방콕북동쪽 6백27㎞에 있는 태국국경마을 나콘·파놈으로부터 비밀리에 메콩강을 건너 라오스로 잠입했다。

美특공대는 12명의 라오스출신 용병과함께 나콘·파놈마을남동쪽 1백35㎞의 라오스―베트남국경지대인 트체폰의 미군포로수용소를 기습공격할 계획이었으나 라오스국경을 넘어선지 얼마안되어 라오스反政게릴라들의 매복기습을받고 퇴각、이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전투에서 美특공대원1명이 사망하고 도미니크·자포니라는 이름의 또다른 특공대원은 부상、라오스반군에 포로가 됐었다고 방콕·포스트지는 보도했다。그러나 자포니대원은 약 1만7천달러의 인질금이 반군들에게 지불된후 풀려나 미국으로떠났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방콕 포스트는 정통한소식통의말을인용、이비밀작전에는 美인기영화배우인 크린트·이스트우드가 자금을 지원했다고밝혔다。이신문은이같은 보도들은 며칠전 레이건미대통령이 인도차이나에서 실종된 미국인들을 찾는것이『국가의 최우선과제』라고말한후 나온것으로 그같은발언은 이사건을 암시하고 있는것으로보인다。

태국정보소식통들은 최근 특공대장 그리츠가 태국으로 돌아온것을 확인했으나 그의 소재는 알려지지 않고있다。

태국외무성은 31일 태국에서 개시된 특공작전을 비난하면서 당국이 현재 관련자들을 수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태국정부는「라자루스작전」을 승인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작전과 관련된 밀입국자나 무기불법소지자들을 체포、엄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教皇 6월波재방문 波관영언론들 確認

【바르샤바UPI=聯】폴란드의 관영 언론들은 30일 教皇 요한·바오로2세가 오는 6월18일 故國 폴란드를 방문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국영 라디오와 TV방송은 이날밤 전국 교회들에서 교황방문에 관한 주교단의 教書가 낭독된후 요한·바오로2세가 취임후 두번째로 오는 6월18일 순례차 폴란드를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송들은 『교황방문에 관한 서방언론의 구구한 추측은 이제 끝났다』면서 교황의 폴란드 방문을 확인하고 이같은 방문일정이 지난해 11월8일 보이체흐·야루젤스키수상과 요제프·글렘프 大主教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副統領 본到着 12일간 盟邦巡訪

【본·워싱턴UPI·AP=聯】조지·부시美부통령은 이틀동안의 공식西獨방문을위해 30일 본에 도착했다。

부시부통령은 西獨방문을 시발로 12일동안에 걸쳐 벨기에와 네덜란드、이탈리아、스위스、프랑스、英國을 차례로 순방할 예정이다。

바레인國王을 예방 朴東鎭 대통령특사

【매나마=聯】朴東鎭국회외무위원장은 30일 이사·빈·술만·알·할리파 바레인 국왕을 예방하고 全斗煥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양국간 정치·외교·경제협력증진방안에 관한 것으로 믿어진다。

朴위원장은 全대통령 특사자격으로 페르시아灣 아랍국 순방의 첫 기착지인 바레인에 이날 상오 도착했다。

“美의무기판매 高金利차관 일부구입국 財政안정해쳐”

【워싱턴UPI=聯】미국의 대외무기판매에 적용되는 高金利차관은 일부무기구입국들에게 단기상환및 조세부담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이들 국가의 재정적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美의회의 한 보고서가 30일 경고했다。

美의회審計局(GAO)은 美행정부가 지난 75년이래 대외무기판매에 있어 최고年利16%의 보증차관을 제공、그렇지않아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무기구입국들의 재정안정기조가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행정부및 의회에 대해 對外무기차관판매계획을 재고하도록 촉구했다。

시리아、베이루트砲擊 이侵攻이래 最惡의 사태

【베이루트UPI=聯】시리아군이 베이루트철수후 처음으로 東베이루트가 시리아군의 포격을 받았으며 西베이루트경계선에서는 이스라엘軍 순찰대가 무장괴한들의 로키트추진 유탄공격을 받아 사망자를 내는등 30일 베이루트의 휴일은 지난해여름 이스라엘의 레바논침공이래 최악의 폭력사태로 흔들렸다。

레바논경찰은 기독교도가 주로 거주하는 東베이루트를 노린 시리아군의 포격이 시내중심부에서 인근교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피해를 입혔다고 전하면서 다행히 인적이 드문 새벽(이하 현지시간)이었기때문에 인명손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레바논의 우익 민병대소식통들은 대포와 로키트포를동원한 시리아군이 베이루트동쪽15㎞의 산악지대에서 이날 상오4시부터 약1시간동안 포격을 가해왔다고 밝혔다。

大法院 法官39명 人事단행 지체부자유 4명도 新規로

대법원은 31일 지법부장전보11명 지법부장승진4명 고법판사승진 4명및 신규임명 4명등 모두39명에대한 법관인사를 오는 3일자로 단행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해 8월 사법연수원수료후 신규임용에서 탈락됐던 지체부자유자 趙炳勳씨가 서울지법東部지원판사로 임용되는등 4명이 구제됐다。

또 서울민사지법 수석부장(고법부장)에 許正勳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이、서울형사지법수석부장에 安又萬서울민사지법 수석부장이 각각 전보됐다。

◇지법부장전보▲서울지법東部 李一永▲〃南部 金信澤▲〃議政府 梁仁承▲서울형사 金滄烈▲서울민사 辛敎澔▲水原 鄭洸照▲〃 金炫彩▲大田 文正斗▲江景 朴俊庸▲長興 鄭命澤▲群山 盧京來 ◇지법부장승진▲부산 諸且龍▲〃 柳仁義▲光州 河泰圻▲光州 소년부 鄭德鎭 ◇고법판사승진▲서울 金晋英▲〃 柳昌錫▲〃 金明吉▲〃 鄭鎬瑛 ◇지법판사전보▲서울南部 金善中▲城南 孫容根▲大邱 金在久▲安東 田炳植▲尙州 金炯鎭▲光州 李鎔會 ◇신규임명▲서울東部 趙炳勳▲大邱 朴殷秀▲부산 金伸▲順天 朴燦 ◇재판연구관지명▲車光雄▲金權澤▲李尙遠▲李康國 ◇직무대리임명(고법부장)▲서울형사수석부장 許正勳▲서울민사수석 安又萬▲東部지원장 尹昇榮▲南部 〃 蔣祥在 ◇직무대리임명(고법판사)▲서울 李基玄▲光州 金相煜

社說

均衡있는 서울再開發
—지나친 民間자본優待 걱정된다

서울의 야심적인 도심재개발계획이 한발 한발 진행되고있다。86년의아시안·게임과 88년의올림픽때 국제적으로 손색없는 현대도시를 보이자는 계획이다。

그때까지 서울의도심지역이 어떤모습을 할것인지를 우리는 작년말인 12월28일 공고된 도시설계안에서 볼수있다。

중앙청에서 서울역까지의 세종로와 태평로를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거리로 만들고、종로와 을지로를 제가끔 특징있는 번화가로 만든다는 것이었다。이 도시설계안은 지난1월26일로 공고기간이 끝났고、건설부의승인을 얻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건설부는 도시재개발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지난 29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가 그린 청사진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강력하게 밀고갈 방편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할수있다。

건설부의 이 시행령개정안은 거의 「착공식」 직전의 단계에 와있는 서울의 도심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될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보도된것처럼 (한국일보 1월30일자 4면) 이 개정안은 「제3의 사업시행자」에게 상당한 편의를 주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제3의 사업시행자란 이경우 계획지역의 땅 50%이상을 확보한 사람과 계획면적 3분의 2이상 소유자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이들에게 각각 사업비예치의무를 아예 면제하거나、그 비율을 20%에서 10%로 내려주자는 것이 개정안의 초점이다。

작년 11월18일 도시재개발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당국의 개발정책이 「주민우선」에서 「개발우선」으로 바뀐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었다。상당한 財力을 가진 대기업의 돈을 끌어들여 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밀고 가자는 정책이다。이번 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게다가 상당한 편의를 덧붙여서 주도록 규정하고있다。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계획면적의 50%이상을 확보한 대기업이라면 나머지 땅을 수용해서 예치금의 부담도 덜채 빌딩을 짓게 되는 셈이다。재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자는 구상은 좋지만、수도서울의 건설은 1백년 앞을 내다봐야되는 사업인 만큼 모든 계획과 절차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신중하게 다루는것이 좋다。

지나치게 민간자본 도입을 서두른 나머지 서울시의 사회·경제적 구성이 균형을 잃는다면、도시계획자체도 자칫 균형을 잃게될 위험성이 크다。

우선 토지면적 50%이상 소유자에게는 예치금을 면제해주면서、3분의 2이상 추천자에게는 10%의 예치금을 부과하자는 발상을 예로들수있다。같은 「제3의 사업자」 이면서 「주민의 합의」를 대표하는 사업자보다 돈많은 대지주쪽에 유리한 규정이라는 인상이다。

이러한 발상은 「가격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주민의 비율을 40%에서 30%로 낮추자는 제의에서도 볼수있다。사유재산권의 보호란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지만、참여비율이 10%에서 20%로 올라가는 「도시계획전문가」의 성격에도 문제는 있다。

지금처럼 적은 도시계획전문가 인구를 가진 형편에서 이들을 주민대표와 바꿀만한 기능적 이유를 설명하기란 쉬운일이 아닌것이다。그만큼 행정관료와 막강한 힘을 행사하게 마련인 대기업의 영향력만 일방적으로 강화할 위험성이 있는것이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토지소유자 2명이상을 반드시 참여시킨다는 규정도 이런우려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지않을까 생각된다。

대기업과 도시계획행정관료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개발사업이 古都 서울의 개선과 사회·경제적 균형을 잃게하고、시멘트와 유리와 강철의 힘을 과시하는 「현대도시」를 만들어놓지 않을까 걱정된다。서울은 고층빌딩의 집합체이상의 민족적 상징이요、문화적 결정체가 돼야한다。

무엇보다도 서울은 대기업이 아닌 시민 모두가 사람답게 살수있는 생활공간이 돼야한다。서울시의 도심지구설계안이 침묵속에 30일간의 공고기간을 넘겼다는 사실도 「당연한 일」일까 생각해 봐야된다。도시계획에 다양한 인간의 소리가 참여하고 사유재산권에 해가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안전판이 필요한것이다。

寒心스런 法曹브로커
—市民과 司法界 협조로 뿌리뽑자

서울地方검察廳은 법조주변브로커들에 대한 일제단속을 펴서 변호사사무실관계자등 32명을 구속하고 10여명에 대하여는 불구속立件 또는 그行方을 추적중인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들은 法을 알고 업무관계로 사법기관과 접촉이 있다는 사실을 利點으로 삼아 교묘한 방법으로 재판에 연관된 利害관계자들을 피어 不當한 방법으로 신성한 司法 기능에 먹칠을 하려던 자들이라 한다。

통치작용중 사법부는 市民생활에 있어 良心의 최후거점이다。그러므로 이번 걸려든 자들처럼 법을 농락하고 法曹관계자의 총명을 흐리게 하면서 그 良心의 거점을 부당하게 파고드는데 따른 국가적 손실은 실로 막중한 것이다。

刑事사건으로 법망에 걸리거나 또는 私的인 이해관계로 困境에 처한사람은 十中八九 지푸라기에라도 매달리고 싶은것이 人之常情이다。法曹브로커들은 바로 사람의 이러한 허점과 약점을 노리고 맹랑한 수법을써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낚은후 벼룩의 간을 내먹는 격으로 경제적·정신적으로 괴롭히기 일쑤다。

이런경우 대개는 이들농간에 말려든 사건관계자들이 희생되게 마련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개중에는 얼토당토않게 사건의 진상을 그럴듯이 허위로 꾸며 일부 수사당국이나 법관을 현혹케하고 그결과 사건을 歪曲、사회의 濁流·혼돈을 조성시키는 행악마저 서슴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市民들이 이런 악덕부로커들 농간에 휘말려 들어 안될것임을 우선 계훈하고자한다。

경찰서·검찰청·변호사회등에는 억울한 처지에 놓인 市民들을 정당한 방법으로 돕기위하여 民願室·법률구조실같은 구제기구를 설치、무료로 돕고있다。누구나 이런 기구의 문을 두드릴수 있는것이다。甘言利說에 정신이 팔려 못된 브로커들의 농간에 말려들지 말아야할것이다。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재판은 正直·正義가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는 진실을 국가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한즉、법조브로커의 그릇에 걸리지않는것이 옳고 이로운 일임을 이 기회에 더욱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흔히 不敏한 사람이나 非理로 살아가려는 爲人일수록 그런브로커의 술수에 걸려드는법이다。평소 우리 모두의 바른 언행자세와 조심이 따라야 할것을 깨우쳐주고 있다。

아울러 둘째로 강조하고픈 대목은 국가와 재야법조인 및 수사기관이 사법부조에 대하여 보다 깊은 배려를할 필요가 있다는 사리다。

도움이 필요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곁에는 사법구조제도가 항상 열려있는 사실을 시민들이 익히 알고있을때、법조브로커들이 날뛸 땅은 없어진다。반상회와같은 기회에 그에관한 홍보를 넓히 하면 명랑사회건설에 보탬이 되리라고 본다。

세째로는 이번사건에 구속된 32명을 보면 변호사를 비롯하여 그 사무실 직원들이 대부분이다。변호사의 일부는 民事사건에선 原告와 피고를、刑事사건에선 피고를 대리하는가 하면 社會正義를 실현하고 기본적 人權을 옹호하는데 있다。

따라서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해도 이번 사건은 변호사의 그같은 本分에 비추어볼때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유관 법조계로서도 다시금 각자의 길과 紀律엄수를 다짐하는바가 있었으면 한다。

이처럼 市民·수사당국·변호사·법원이 모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악덕법조브로커 방지를 위한 점검·다짐·대책을 새로이하여 民·刑사사건에 브로커들이 날뛸 여지를 없애버리면 유사한 사건은 미구에 꼭 근절할수 있을 것이다。

記者의 눈

굼뜬 保社행정

지난달 21일부터 활동을 시작키로 돼있던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열흘이 넘도록 감감 무소식이다。보사부가 갈수록늘어나는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처리하기위해 중앙과 시도에 설치키로 한 이 위원회는 아직 구성조차 돼있지않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보사부당무자는 당초 7~15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조속히 결성、위원회의 모태인 의료법시행규칙이 발표되는 20일이후 가동시킬 예정이라면서 그이후 의료분쟁조정신청이 들어오면 마땅히 접수、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국시도중 위원회구성이 끝났다고 보고한 곳은 단한군데도 없는것。각시도의 부지사、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삼고 나머지 숫자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똑같게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협회의 위원추천이 지지부진이어서 이렇게 늦고있다는것이다。「다행히」아직 분쟁조정신청을 낸사람도 없어서 한시름은 놓고있는모양이다。

더구나 보사부가 이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하더라도 위원회의 활동과 업무내용을 공고한는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을방침이란는것이 알려져 의아감을 불러일으킨다。그럴경우 분쟁을 조장하는 결과가 빚어질지도 모른다는게 「홍보謝絶」의 이유라는 얘기들이다。

그러면 이 위원회는 구색을맞추기위해 마련되는 것이란는 말인가。

의사의 오진이나 수술잘못으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하소연조차 하지못하는 일반국민들을 위한것이라면 널리알릴수록 좋은일이 될것이다。일단구성을 마치고 가동할경우 다른숱한위원회보다 훨씬실효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보사부 스스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위원회운영의 늑장이나 홍보사정은 더욱 실망스러운 일이기도하다。

보사부의 업무는 사실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것이 많아 동쪽을 지향하면 서쪽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등 어려운점이 많아 보인다。『1년내 일해도 표가나지 않는다』는 식의고충도 충분히 이해됨직 하다。

하지만 의료심사위원회처럼 오히려 쉽고、일반국민 모두가 반기는 일이 굼뜬것은 행정의 궁둥이가 너무 무겁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아울러 홍보를 기피하는 현상도 이위원회의 성격상 지양돼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任喆淳사회부기자】

人事異動

◇직무대리해제▲서울고법부장 金碩洙

대한주택공사
▲기획실장 廉在善▲택지부장 方鍾源▲조사개발부장 任鍾淳▲관리부장 朱章煥▲서울지사장 郭厚錫▲경기지사장 徐光善▲충청지사장 沈仁澤▲공보실장 丁芝洙▲택지부차장 丘王鉉▲주택연구소차장 申鉉權▲서울지사강원사무소장 李廷友▲경리부차장 朴濟錫▲경남지사차장 李登龍 (1日字)

文公部
▲문화재관리국 문화재1과장 劉世俊

鐵道廳
▲仁川공작창장 金亨培(釜山지방철도청장)▲釜山지방철도청장 李鍾埠(仁川공작창장)▲서울지방철도청 사무소장 李順福(철도청특별동차사무소장)▲시설국장 金正玉(철도청설계사무소장) (1日字)

朝興銀行
▲漢江路支店長 崔重煥 (1日字)

農水産部
▲國立種子供給所 補給課長 李材明▲農業公務員教育院庶務課長 白顯基▲國立生糸検査所釜山支所長 鄭斗杓 (1日字)

韓一銀行
▲中和洞支店次長兼忘憂洞預金取扱所長 李永三▲蔚山支店 次長兼町洞〃 金尙圭 (1日字)

구독신청 배달사고 933-2861

本社來訪

▲朴聖相씨(韓國輸出入銀行長)▲李丙國씨(金星投資金融代表理事)朴佑萬씨(同副社長)新任 인사차
▲崔熙文씨(한국교육자賞友會회장)洪鍾允씨(同부회장)成百信씨(〃)인사차
▲李丙國씨(金星投資社長)朴佑萬씨(同副社長)新任人事次

政局往來

◆軍에서鄭昌鉉씨로부터바둑배워

全斗煥대통령은 일요일인 30일낮 서울蠶室체육관에서열린 전국 아마추어바둑대회에 들러 대국광경을 지켜본뒤 棋士들과 점심을 함께하는등 바둑에 깊은 관심을 표명。

全대통령은 이날 기사들과 바둑팬들의 박수속에 대회장에 들어서 기사들의 대국광경을 관전했으며 특히 올해 9세인 꼬마기사 金成龍군(2급)의 대국을 보면서 『잘 두라』고 격려하기도。

全대통령은 이어 棋士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나도 바둑을 무척 좋아하는데 軍에있을때 鄭昌鉉4단으로부터 바둑을 배웠다』고 소개하면서 鄭기사의 안부를 묻기도。이에 曺薰鉉9단이 『최근 작고했는데 생시에 각하의 안부를 자주했다』고 대답하자 애도의 뜻을 표한뒤 관계관에게 조의를 전하라고 지시。

◆政黨이 선거때만 움직여선안돼

民正黨의 李載灐대표위원은 31일 浦項·迎日(위원장 李珍雨의원)、慶州·月城지구당(朴權欽의원)대회에서 『물리적으로 돌이켜보고 두려움을 주는 힘이 아니라 감명을 주는 和合을 이룰때 국민이 마음을 열고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화합이 나온다』고 강조。

그는 이어 『국민화합 못지않게 당간의 화합도 이루어져야한다』며 『양화와 협의에 따른 정당간의 화합이 되면 더큰 힘을 모을수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民正黨公州·論山(鄭石謨의원)개편대회는 지금까지 중앙당이 시달한 시나리오대로 진행하던 방식을 탈피、式順등을 지역사정에 맞게 하고 대의원들의 발언도 다양해지는등 다소 變貌。

이날 權翊鉉사무총장은 『정당이 평소 움직이지않고 선거때만 부산하면 정당정치구현에 어려움』이라며 『民正黨이 움직이는 것은 이를 답습하지않기 위한것』이라고 역설했다。

◆大衆정당의 새자세가다듬을터

民韓黨은 30일 大田東區(위원장 朴完奎의원)와 錦山지구(金鉉圭의원)를 끝으로 40일간에 걸친 지구당 개편대회를 모두 끝낸뒤 『民韓黨은 대중정당으로 뿌리를 내리는데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어 나가겠다』고 다짐。

그는 『개편대회에 참석해보니 일선당원들과 국민들의 뜨거운 격려와 성원을 피부로 느낄수있었다』고 『대중정당』의 의미를 강조한뒤 『民正黨도 이제는 우리를 위협적인 존재로 다시 보게됐을것』이라고 自評했다。

柳총재는 이날 개편대회에서 『독립한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민주주의가 정착 못하고 있는것이 어떻게 야당만의 책임인가』고 소리를 높이면서 『정부·여당은 물론 국민들도 이제는 主權의식을 갖고 민주질서 회복을 위한 일단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同參論을 제기。

金鉉圭위원장은 『정권을 잡으려 하지않는 정당은 쥐를 잡지않는 고양이와 같다』、朴完奎위원장은 『선진조국의 강조는 경제력만이 아닌 정치발전이 수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여당은 물론 국민들도 민주질서 회복위한 일단의 책임 느껴야”

◆新共和黨 관계설정놓고 說往說來

31일 국민당 당무회의는 오는 全黨大會에서 채택할 메시지 등에서 新共和黨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는문제등을 두고 說往說來。

이날 李鍾贊전대회의장이 『조국근대화를 이어받은 공화당을 굳이 내세워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黨노선의 재정립 필요성을 역설한데 대해 李成一대변인은 『우리의 뿌리는 누가뭐래도 공화당』이라며 『정당은 역사가 斷絶된 私生兒 정당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反論을 제기。

또 李萬燮총재는 『慶北의 경우 지난 선거에서 공화당과의 因緣으로 많은 득표를 했다』며 『문제가 미묘한것인만큼 칼로 두부자르듯 이문제를 보지 말잔』고 신중론을 제시하기도。

한편 국민당은 이번 전당대회경비를 5천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가운데는 대의원여비가 3천만원 순수경비1천3백만원 世宗文化會館대관료3백50만원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국회財産등록 24명이 延期신청

31일로 마감된 국회의 公職者 재산등록은 마지막날인 이날 75명이 등록、대상자2백79명(의원2백75명 사무처간부 4명)중 2백36명이 등록하고 39명의 의원이 연기를 신청。

정당별 등록상황을 보면 民正黨이 마감날에 접수시킨 李載灐대표위원을 비롯 1백50명、民韓48、국민19、新社3、民權2、勸農1、무소속9명으로 되어있다。

또 丁來赫의장과 金殷夏、蔡汶植부의장도 모두 등록을 마쳤는데 39명의 연기신청을 한 의원은 民韓黨 柳致松총재、劉沃祐부총재등 30명、국민당 6명으로 가장 많고 民正黨은 1명뿐。

이날 등록을 접수한 국회의 사무처 기획감사관실은 한꺼번에 몰려드는 의원 비서관들로 붐벼 눈코뜰새없이 바쁜가운데 하오6시넘게 등록신청과 연기신청을 접수했는데 이처럼 마감날에 신청이 폭주한것은 각정당의 지구당 개편대회 때문인듯。

JAPANESE RESTAURANT
MIKA
みか
⊙일본요리
⊙냄비우동
⊙튀김
⊙사시미
⊙월~금 : 점심 12~2:30
저녁 6~10:30
⊙토~일 : 저녁 6~10:30
2750 Danforth Ave
(at Dawes Rd.) Toronto
Tel: (416) 698-0283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195 Dundas St. W. (던다스×유니버스티)
☎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 Eglinton / Keele / Bayview / Bathurst / Bloor / CHINA HOUSE

한국인이 경영하는ㅁ홍콩 스타일 전문
Rose Garden Restaurant
▪Free 주차장
▪각종 술 full-licence 취득
▪주문시 배달합니다.
▪매일(년중무휴)
⊕ 오전 11:30~새벽 1:00까지
Bathurst / St. Clair / Vaughan
538 St. Clair W. (세인·클레어×베다스트)
유 창 준
656-0456
654-6609

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HAMAMOTO
Authentic Japanese Cuisine
○일본요리
스시, 사시미 덴뿌라.
○소단체 예약 환영.
○Take out도 합니다.
▪술 면허 있음.(LLBO)
Dalecliff Plaza
221 Ellesmere Road, Scarborough, Ontario
(just west of Warden)
Telephone: 444-2211

萬富宮海鮮飯店
KUNG FU MAN RESTAURANT
133-135 Dundas St. West,
Toronto, ONT. M5G 1C4
TEL: 598-3658
사천요리 전문
⊙신장개업 특별봉사
특히 팔진두부, 게탕, 해삼탕,
면류, 각종 중화요리
평일 11-12시
Fri. 1:00-다음날4시까지
Sat.Sun. pm.2:00-다음날2시까지
BAY / DUNDAS ST. W.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YAMAHA
건반악기 Porta Sound
Beginners sound great in minutes.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윤 호 섭

滿18세면 "어른"

앞으론 撞球場·유흥장등 出入가능

"成人 현실화"… "開放 맞춘 緩和로"

각종規制 개정키로

18세 하이틴도 당구장에 갈 수가 있고 성인용 영화를 관람할 수 있으며 디스코클럽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가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의 기준을 20세미만으로 정해 하이틴들을 무조건 「미성년자」로 취급해왔으나 이 기준이 현행민법상 성인을 「만20세 이상」으로 못박아놓았기 때문에 생긴것으로 현실에 맞지않는다고 판단, 현실화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보사부 당국자는 이미 주민등록증은 만17세에 발급하고 있고 만18세이상이면 국가공무원임용대상이 되고있으며 또 각종자격증도 취득할 수있는 사실등을 지적, 의무만 강요할것이 아니라 권리도 부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사부는 중·고교생들의 교복자율화가 올해부터 전면실시됨에따라 유흥업소등의 출입을 종전기준으로 단속한다는것은 불가능하고 정부의 개방정책이 금지보다는 개방을 지향하고있다는 점등을 들어 이들업소의 20세미만 출입금지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보사부에의하면 당구장의 경우 현재 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에 미성년자 출입금지업소로 규정돼있는데 ▲당구장의 성격이 체육시설에 가깝고 ▲당구장이용자의 대부분이 현행법상 미성년으로 간주되는 만18세이상 20세미만인 대학교저학년 연령층이 청소년이며 ▲탁구장의 경우도 미성년자 출입금지업소에서 제외한 선례가 있어 더이상 「18세 하이틴」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것.

보사부는 당국자는 민법상 성년의 나이를 만18세로 인하하는것이 보다 근본적인 조치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면서 『우선 금지업소를 완화해나가는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보사부는 이같은 방침에따라 당구장을 출입금지업소에서 제외하도록 미성년자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해줄것을 내무부에 요청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경마장「복표(福票)발행, 현상(懸賞)기타 사행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및 유흥음식점, 영화관,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 미성년자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馬事會法 복표발행, 현상기타 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등의 관계조항도 관련부처와 협의하거나 자체작업등을 통해 개선해나갈것을 검토중이다.

서울시도 이에앞서 지난해 미성년자의 연령을 아예 낮춰 만18세이상이면 유흥업소를 출입할수있도록 허용해줄것을 보사부에 요청했었다.

우리나라의 현행 각종법규에는 「만20세성년」이란 민법규정과 걸맞지않게 주민등록증은 만17세에 발급하거나(주민등록법) 만18세면 국가공무원임용및 시험시행규칙(공무원임용및 시험시행규칙) 만18세이상이면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게하는등 사회적 성년의 나이가 서로 달라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더우기 유흥업소단속등의 경우에는 이같은 점이 문제되기 일쑤여서 「외관상 성년으로 보이는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고 해서 업소를 허가취소할수는 없다」는 판례까지 나온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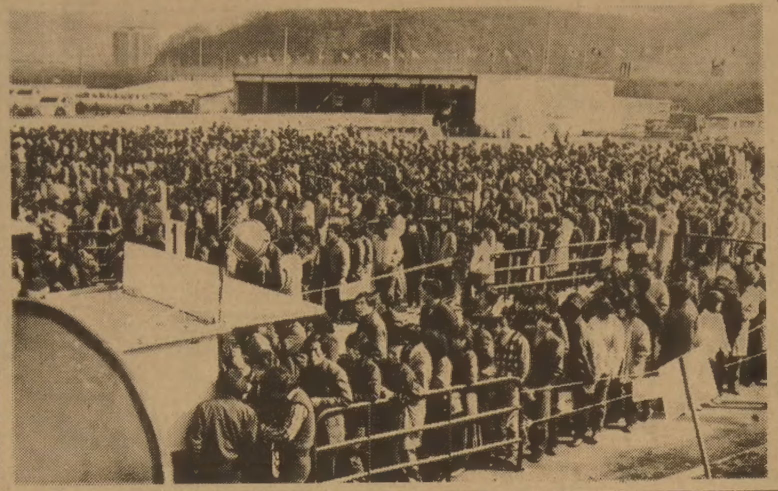
또 경찰의 디스코클럽단속에서도 같은 20세미만경우 대학생은 잡지않고 근로청소년만 단속하는 편파적 사례가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보사부는 그동안 말썽이 돼온 전자오락실에 대해서도 시설및 미비점을 보완, 조건부로 양성화해주는 원칙을 세우고 이번주안에 3가지 방안중 한가지를 선택, 최종 확정키로 했다.

보사부는 전자오락실을 청소년들의 건전한 오락으로 유도하기위해 유기장업법을 고쳐 현재 자유업으로 돼있는 전자오락기구의 제조, 판매를 허가 또는 신고제로 규제, 건전 스포츠게임만 제작케하는 한편 시설기준에 적합한 무허가업소를 모두 양성화해줄 방침이다.

보사부가 현재마련한 3가지 방안에는 ▲상업지구내의 위락시설용도로 건축된 건물에 한해 1평1대이내로 전자오락기구를 설치하고 ▲시끄러운 음향을 없애며 ▲전담관리자를 배치하는한편 ▲교육적이고 순수오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육성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보사부의 이같은방침이 확정되면 올해하반기부터 무허가 전자오락실이 양성화될 전망이다. 【任喆淳기자】



◇마음은 벌써 故鄕에… 舊正이 아직 보름정도 남았지만 고향으로 가는 차표를 사려는 사람들은 임시매표소앞에서 방면별로 장사진을 치고있다. 【31日상오 서울江南고속버스터미널】

億臺 가짜外製 적발

釜山地檢 화장품·시계등 34種압수

【釜山】釜山지검 특수부는 31일 가짜 외제화장품을 밀조해온 李洪範씨(46·서울西大門區北阿峴洞1街1121)와 李昌圭씨(61·서울東大門區典農2洞431)와 화장품 판매책인 부산국제시장 은하상회 주인金萩德씨(49·부산中區富平洞48)등 10명을 부정경쟁방지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등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가짜상품 제조공장 2개소를 적발하고 30여개의 점포에서 가짜화장품 25상자와 가짜중국제 우황청심환의 약품 시계 라이터 면도기등 24종 3트럭분 싯가 1억원상당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외제화장품 제조책인 李昌圭씨는 지난81년10월 仁川市北區山谷洞21에 한불상사라는 화장품제조공장을, 李洪範씨는 82년10월께 서울西大門區阿峴洞에 무허가화장품 제조공장을 차린후 20여종의 가짜외제화장품을 만들어 판매총책인 부산新昌洞 국제시장2공구 A동2층의 은하상회 주인金씨에게 1개에 5백~1천2백원씩에 공급했으며 金씨는 30여명에게 1개에 1천~2천원씩의 이익을 붙여 팔아넘겼다는것이다. 【聆】

市販중인 82개 醫藥品

출고가격 2~25% 내려

시판중인 82개의약품의 출고가가 31일부터 25~2%인하됐다.

대한약품공업협회는 제약업체중 28개 상위랭커회사대표자회의를 소집, 원자재값하락등으로 인한요인이 생긴 전의약품가격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1차로 永進약품의탈피실린 1백칸쉬값을 25%내린는등 13개업체 82개품목을 인하키로 했다고 보사부에통보했다.

주요품목의 인하된 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괄호안은 종전가격)

◇東亞제약▲프리마 2만2천(2만4천2백)▲노베단 2만5천8백50(2만7천5백)▲판피린 5천5백20(6천) ◇柳韓洋行▲가나마이신2천3백(2천4백40)▲삐콤 1천7백(1천9백) ◇永進약품▲탈피실린 1만6천5백(2만2천) ◇同和약품▲암피실린 2만(2만2천3백20) ◇韓獨약품▲훼스탈 3천(3천6백50) ◇大熊제약▲우루사7천8백(8천3백)▲지미신6백50(7백50) ◇日東제약▲비오비타4천5백(5천)▲암포젤엠2천6백(2천9백) ◇한일약품▲프로헤파롬2만5백(2만3천)▲산루프1천1백(1천2백) ◇一洋약품▲원비D 2백(2백6)

「브로커辯護士」등 32명拘束

서울地檢 受任싸고 詐欺… 10여명 搜査중

서울지검특수1부는 31일 법조주변사건 브로커 일제단속에 나서 서울통합 변호사회소속 李鳳在변호사(67)를 비롯,모두32명을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등혐의로구속하고 행정서사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변호사 사무원 유대일씨등 5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구속된 변호사사무원의 범법사실과 관련된 10여명의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입건하거나 대한변협을 통해 법무부에 징계를 상신할 방침이다.

이번 검찰에 구속된 법조주변 브로커는 변호사사무원 11명, 사법서사 1명, 경찰관 1명, 직업적인 여자브로커 10명, 회사원및폭력배 8명등이다.

검찰에 의하면 구속된 李변호사는 지난해12월5일 지방모대학 재단이사장 張모씨에게 『정부가 환수해서 밝혀 산업체인 P공업에 기증한 예비역장성 李모씨의 부동산(싯가3백억원상당)을 시가의 10%만 지급받고 기증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張씨로부터 두차례에걸쳐 기증수속및 등기이전비용 명목으로 3억원을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다.

李변호사는 이에앞서 지난해6월께 모의료법인에 5천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증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3천만원을 받았다가 일이 여의치않게돼 1억5천만원을 변상하게되자 이돈을 마련하기위해 다시 사기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가 환수한 李모씨의 부동산은 P공업에 기증된 사실이 없는것인데 李변호사는 張씨가 이를 사실로 믿도록 하기위해 P공업회장의 부동산 처분결의서를 직접보았고 그처분 위임장도 자신이 갖고있다고 속였다는것이다.

또 구속된 金모변호사 사무원辛相動씨(53·서울恩平區鷹岩洞241)는 지난80년11월부터 81년2월 사이에 여자브로커 이인순씨등으로부터 모두 5건의소송사건을 알선받아 이들변호사에게 소개하고 건당 수수료5만원을 받았고 지난해10월16일 구속피의자의 가족에게 석방시켜 주겠다며 청탁명목으로 2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여자브로커 陳梅月씨(51·서울中區新堂洞57)는 지난 81년12월과 82년8월 두차례에걸쳐 모변호사에게 5건의 소송사건을 알선해준 혐의며 李貞煥씨(40·서울銅雀區上道洞2)는 지난해 4월29일부터 8월사이에 서울中區忠武路2街 라이온스빌딩 1300호실 金모씨 사무실에서 金씨가 제소한 12억원상당의 부동산사기사건을 수사기관에 부탁, 해결해주겠다면서 8백30만원을 받은혐의다.

永登浦경찰서수사과 순경 柳根彰씨(35)는 지난17일 장물취득피의자 李모씨에게 『검사에게 부탁,구속영장을 기각시켜주겠다』며 3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번수사에서 변호사의경우▲자신의 사회적신분을 이용한 사기등 범법행위뿐아니라▲등록된 사무원외에 등록이안된 사무원을 고용, 이들에게 사건알선료를 지급하며 사건을수임하는 행위▲사건브로커에게 직접 사건알선료를 지급하고 사건을 수임한 행위▲사무원이란 명목으로 변호사사무실에 브로커를 상주시키고 신청사건에대해 자신의명의를 대여해주고 대여료를 징수해왔다.

또 변호사 사무원은▲사무원이란 직함을 가지고 사실상 브로커의 행위를 하면서 광산사고등 손해배상 사건을 수집,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사건브로커들과 연결해 그들로부터 사건을 알선받아 변호사와 분배하는 행위▲법조 주변의 여자브로커들을 저질러왔고 직업적인 여자브로커들은 구치소주변에 상주하면서 면회온 피해자 가족들에게 『자기 아들이 모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석방됐다』『어느 변호사가 실력이 최고다』는 등으로 유인, 연결된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소개료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번 일제단속을 계기로 구속된브로커의 개인카드를 만들어 사후관리를 철저히하고 분기마다 정기단속을 펴기로했으며 법조주변 브로커외에 행정사무브로커, 종합병원주변의 의료브로커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 방침이다.

연탄가스에 一家族5명 死傷

【釜山】30일 상오11시께 부산東區佐川2洞997의14 김효노씨(55)집에 세들어사는 오혜균씨(46)의 일가족 5명이 새벽에 갈아넣은 연탄가스에 중독, 신음중인 것을 집주인 김씨의부인 이병연씨(53)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씨의부인 홍순화씨(34)와 장녀 현정양(16) 2녀 희정양(12)등 3명이 숨지고 오씨와 장남 상명군(10)등 2명은 중태에 빠졌다. 【影】

金得九선수 母親 자살

劇藥마시고…평소不眠症으로 고생

【高城】비운의복서金得九선수의 어머니 梁善女씨(66)가 29일 하오3시께 강원高城郡巨津邑盤岩里4班 집에서 극약을 마시고 신음중인 것을 남편 金鑛烈씨(64)가 발견, 巨津 후생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金씨에의하면 이날 하오2시40분께 서울아들집에 전화를 걸기위해 자신이 집을 잠깐 비운사이 안방에서 음독했는데 머리맡에는 먹다남은 극약병이 발견됐다.

가족들에 의하면 梁씨는 아들 得九군이 지난해 11월18일 미국에서 맨시니와의 세계타이틀전을 치르고 KO패한후 뇌수술받고 끝내숨지자 큰충격을받고 불면증세까지 보이며 고민해 왔다는 것이다. 【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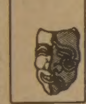
◇靈前엔 아들의 一代記가… 고 金得九선수의 집안방에 마련된 어머니 梁善女씨의 빈소. 金선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울지않는 호랑이」의 책자가 놓여있다. 【束草=聆】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목거리
B536-1692
H245-3539

부드러운 손

철도 女子公安員 金銀淑양

안내양과 혼동…"보람은 있어요"



요즘 기차를 타본 사람들중에는 얼핏 안내양처럼 보이는 정복차림의 아가씨를보고 의아해하다가 허리에찬 수갑을 보고 움찔 놀란경우가 더러 있을것이다.

이들은 지난 5일부터 깔끔하고 상냥한미소로 객실을 누비고있는 우리나라 첫 철도여자공안원들이다. 모두 5명으로 金銀淑양(23·사진·水原市高等洞 금강아파트)도 그중의 한사람. 남자공안원과 함께 2인1조로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지만 짓궂은 농담과 수작에 난처한 경우를 간혹 겪는다.

지난 79년 수원여고를 나온 그는 그동안 몇군데 직장을 기웃거렸다. 그러나 한곳 정열을 쏟아 일할만한 곳을 찾지 못했다. 어려서부터 여행을 좋아해온 소녀취향적인 낭만에다 무작정상경해 타락의 길을 밟는 가출소녀들의 경우를 소설등에서 보고 이들을위해 힘을될 찾는판에 공안원모집 소식을들었다.

키가 1m60이상이어야하고 신체건강하며 용모도 단정해야 한다는등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5명모집에 2백50명이 몰릴만큼 공안원이 되는 길은 좁은문이었다.

뜻대로 공안원이된 그녀는 지난연말 협렵 형사소송법에 호신술까지 익혀 이제는 스스로 생각해봐도 제법 공안원티가 나는편이다.

그녀가 하는 일은 사실 만만치가 않다. 열차내의 형사범이나 행정사범을 단속하는 기본업무 이외에도 여성의 섬세함을 필요로하는 일이 많다. 객실을 돌다 깊은 잠에빠진 승객을보면 가볍게 흔들어깨워 내릴곳을 묻기도 하고 우는 아기를 어머니와함께 달래거나 선반의 짐이 떨어지지않게 챙기는 일도 대신해준다. 이런 일을 해주다보니 어떤이는 사법권을 가진 철도경찰관으로 봐주지않고 「철도안내양」쯤으로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섭섭하다.

『보람은 있지만 근무가 끝난뒤 여성으로서 쉴만한 장소가 마땅치않다』고 고충을 말하기도 한다. 여성동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도 한다. 우먼파워를 내세워서라기보다 여성이 꼭 필요한 곳이기때문이라는 것.

「적자철도」「濃職철도」등으로 이미지가 한껏 구겨져 있는 철도행정이 金양과 같은 아가씨들의 손으로 큰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을는지. 【朴珍利기자】

西江大生2명 實刑

反政府 유인물뿌려

서울형사지법 吳允德판사는 31일 西江大 柳長春군(24·정외과4년) 辛惠蓮양(23·독문과4년)등 2명에대해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柳피고인에게 징역2년을, 辛피고인에게는 징역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27일정오께 학교 과학관 4층창문을 통해 반정부유인물 3백여장을 뿌리며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成大 曺佐鎬총장

문교부, 취임승인

문교부는 31일 成均館대학교 曺佐鎬신임 총장(66·사진)의 취임을 승인했다.

曺총장은 오는 3월말로 임기만료되는 金敬洙 전임총장의 사의 표명에 따라 신임총장으로 선출됐었다.

曺총장은 東京帝大(東洋史)를 졸업한뒤 延世大 東國大 成均館大 교수로재직해왔다.

한편 문교부는 이날 嶺南大 吳海鎭 초대학장(49)의 취임도 승인했다.

釜山-시모노세끼 航路에

한국國籍船 페리 첫취항

韓日간정기여객항로인 부산-시모노세끼(下關)간에 한국 국적선인 페리가 4월1일부터 취항한다.

31일 해운항만청에의하면 새로취항할 釜關페리는 5천7백톤급호화여객선으로 승객6백명과 트럭87대, 승용차 1백9대,콘테이너50대를 동시에 실을수있으며 2일에 1번씩 왕복, 기존일본선적 페리와함께 매일 서비스가 가능하게된다.

새페리는 주식회사 釜關페리가 ADB차관 22억원을들여 일본서도입한 선박으로 태극기를 달고 취항하는 최초의 국적선이다.

嶺東에 큰눈

高速道한때막혀

1월의 마지막날인 30일 大關嶺을 비롯, 嶺東산간지방에는 최고 32.6㎝의 눈이 내려 嶺東고속도로가 한때 두절됐으며 쪽풍주의보가 내려진 束草 注文津등의 어선 5천여척이 출어하지못했다.

한편 기상대는 1일우리나라의 날씨는 차차흐려져 전국적으로 밤한때 비나 눈이 오겠으며 서울0~5도 江陵 영하3~4도 光州 1~7도 大邱0~6도로 예년보다 5~6도 높은기온분포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獨立유공자 金泰泳옹

독립유공자金泰泳옹(74·사진)이 31일 상오1시 10분서울鍾路區付岩洞128의27 付岩주택207호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발인 2일상오10시, 장지는 전남靈光郡白岫面莊山里 선영. 연락처723-6228

日加
주간 〈일가타임스〉
日本과 캐나다의 뉴스및 생활에 도움주는 정보를 전하는 주간신문.
The Nikka Times
720 Spadina Ave., Suite 508
Toronto, Ontario
Canada M5S 2T9
☎ 923-2819

소 잃고 난후 외양간 고치시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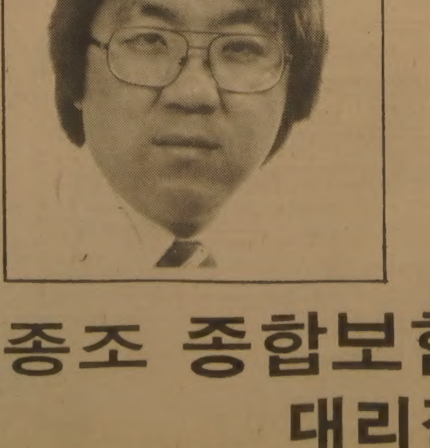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불행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법……

보험대리인 김 종 조는 여러분에게 좋은 상담역이 되드릴겁니다.

자동차 — 생명 — 교육 — 사업 — 적금 — 부동산

◎ 모든보험은 한곳에서!

김 종 조 종합보험은 신속하고 친절한 봉사가 자랑입니다.



651 BLOOR ST. W.

535—0028
535—7200

김종조 종합보험 대리점

女子마라톤 서광비쳤다

崔敬子·安春子 日대회서 한국新

세계기록엔 아직遼遠
중장거리·스피드訓鍊 시급

◇崔敬子 ◇安春子

한국여자마라톤의 호프 崔敬子(산업기지)와 安春子(산업기지)가 30일 日本오사까국제여자마라톤대회서 2시간44분48초, 2시간45분21초로 각각 11, 12위를 차지하며 한국신기록을 수립, 84년LA올림픽을 앞두고 기록향상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종전한국기록은 작년 이대회서 林殷珠가 세운 2시간47분03초. 세계 최고기록은 뉴질랜드의 앨리슨·로가 81년 뉴욕 마라톤서 수립한 2시간25분28초. 日本최고기록은 마스다·아께미(增田明美)가 82년 세운 2시간36분34초.

이번 대회서는 에이레의 커리·메이(23)가 2시간29분33초로 우승했고 日本선수들은 모두 13위 밖으로 밀려났다.

커리의 기록은 세계역대7위의 호기록인데 여자마라톤도 2시간20분대이내에 들어야 우승할수있다는 국제적인 추세를 보여주었다.

국내에서 풀·코스 마라톤을 실시한것은 81년 11월마라톤선수권대회였으며 이때 林殷珠가 3시간16초의 기록으로 첫 완주자가 되었다.

여자마라톤이 국제무대에 뛰어들수있느냐는것은 아직 미지수이지만 마라톤이 로스엔젤리스·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짙어지고있는 현시점에서 한국기록이 경신되었다는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선수들의 기록은 세계기록과는 차이를 보이고있어 섣불리 희망을 거는것은 금물이다.

한국 여자마라톤의 문제점은 일정한 준비단계를 거치지않고 탄생했다는사실이다.

남자의 경우 마라토너가되려면 5천m, 1만m서 기초체력과 스피드, 지구력등을 기른후 마라톤·코스에 들어선다. 여자의 경우 이같은준비과정을 거치지않고 풀·코스에 도전하고있다. 여자마라톤 세계최고 기록이 2시간25분28초로 급속도로 스피드화 되었다는것을 입증해주고있다.

얼른가락으로 잡기도 힘든 한국여자마라톤계는 과제궤도를 수정해 어떻게 정상궤도로 진입시키느냐가 과제다. 롱·러너라고할수있는 安春子, 崔敬子, 林殷珠등은 풀·코스를 완주할수있는 실력을 갖고있다.

한국여자마라토너들도 자체 스피드의 개선이 시급한 문제이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스피드개선의 기본훈련인 5천m, 1만m 트랙경기를 외면하고 있다. 日本선는 이미 여자5천m, 1만m 트랙경기를 실시한지 오래다. 단위스피드를 개선하는것이 바로 마라톤기록을 단축하는 첩경이다. 여자마라톤이 국제무대로 도약하려면 단위스피드를 측정할수있는 훈련과 경기방법이 요청된다.

【閔炳寬기자】

오늘 對폴란드戰이 고비

泰청소년축구 한국、싱가포르를 6-0大破

【방콕=聯】한국청소년축구대표팀은 30일 방콕국립경기장서 열린 제1회태국국제청소년축구대회 B조예선리그 1차전서 싱가포르를 6-0으로 대파, 첫승리를 거두었다.

한국은 이날 경기초반부터 공격의 주도권을 잡아 전반26분께 李太炯이 金鍾建의 센터링을 받아 선제골을 뽑고 40분 金三洙가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전반을 2-0으로 끝냈다.

한국은 후반25분 申連浩가 헤딩슛으로 1골, 31분에 金鍾建, 37분 李太炯, 44분 金鍾珉이 각각 골을 추가, 6-0으로 대승했다.

오는 6월 멕시코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 대비, 실전을 쌓기위해 이대회에출전한 한국은 2월1일 폴란드와 예선2차전을 갖는다.

◇제3일전적

▲B조

한 국 6(4-0 2-0)0 싱가포르
(1승) (1패)

폴란드 1-1 헝가리
(1승1무) (2패)

태국B 2-2 오만
(1승1무) (1무1패)

「겨울」이 없다

—프로야구 强訓현장을 가다

해태 타이거스 (下)

"2等은 싫다"…名將金應龍 자신만만

補強된 배터리에 철벽內野陣 든든

◇시원스러운 타격, 빠른 걸음을 살려 가장프로다운 게임을 펼쳐 보이겠다는 金應龍감독.

83년시즌을 준비하며 해태 타이거즈가 얻은 최대의 수확은 세계아마야구(슈퍼월드컵)를 제패한 관록을 가진 명감독 金應龍씨를 확보한것이다.

『운동에 2등이 어디있읍니까. 목표는 우승외에 있을수 없읍니다. 내가 거두는 성적에 맞춰 대우해주면 그것으로 만족입니다』

金감독의 시원스러운 취임답에 해태구단은 새로운 희망에 가슴 부풀어했다.

점차 선수들과 단내나는 훈련에 들어가며 金감독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었다. 투수·포수·내야진에 많은허점과 구멍이 발견된것이다.

83년 새해에 해태가 연고지역에서 활용할만한 선수라고는 포수 趙鍾奎(경리단)와 내야수 張鎭凡(영남대) 정도였다. 해태는창단 첫해보다 더 혹심한 선수기근에 열병을 앓았다.

타구단과의 마찰과 협상을 거쳐 투수 黃起善(상은)·金鉉宰(포철종코치), 내야수 梁承虎(상은), 외야수 宋日燮(선우) 등을 스카웃했다. 三星에서 徐定煥을, 롯데에서는 金一煥을 이적선수로 받아 미흡한 내야진을 보충했다.

金應龍감독이 순수 뛰어나며 1년넘게 야구볼을 놓았던 무명투수 嚴平載를 불러들였다.

嚴平載에 걸린 해태구단의 기대는 대단하다. 1m 80㎝의 늘씬한 키에 날렵한 체격의 嚴平載는 金勇男 李相潤등 강속구투수이상의 위력적인 스피드를 가졌다는것이 金應龍감독의 평가다.

『아직 게임감각이 어려서…좀 길러봐야겠지만 좋은투수가 될겁니다』

무척 조심스럽고 겸손한 편이지만 嚴平載의 훈련모습을 지켜보며 金감독은 남몰래 야망을 키우고있다.

『저 녀석으로 한번 프로야구 판도를 뒤흔들어보리라』

金應龍감독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하는것은 재일동포 선수들의 합류계획이다. 히로시마·카프의 2군투수 포수로 야무진 방망이를가진 金茂宗(일본이름 木本茂美)이 이미 계약서에 사인하고 4일부터 시작될 해태의 日本전지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계약협상에 실패, 日本으로 돌아갔던 언더드로우 기교파 투수 朱東植(한신타이거즈)도 자신의 주장을굽혀 해태구단이 日本에 머는동안 계약을 끝내고 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해태는 만일 朱東植과의 계약에 실패하더라도 日本과의 상호협력관계에있는 한큐·브레이브스에 지원을요청, 불안한 마운드를 보강할예정이다.

재일동포 투수의 보충만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우승을 향한 해태의進軍에 큰 문제가 없읍니다.

투수진은 모두11명. 『그만하면 투수진 운용에 무리가 없으리라고 金應龍감독은 믿고있다. 金城漢·金勇男·李相潤·姜晩植·房水源·金鉉宰·申泰中·黃起善·嚴平載등에 구원투수로 등판준비중인 柳南鎬코치와 재일동포투수 1명을합치면 해태 게 완투시키지않고 선발투수 5~6명, 구원투수 5~6명으로 등판스케줄을 짤 생각입니다』

아직 테스트해보지는 못했지만 金茂宗의 포수와 타자로서의 활약에 기대가 크다. 지난해 가장 불안했던것이 해태의 홈·키퍼였다. 유능한 포수 金茂宗·趙鍾奎의 확보로 마운드나 내·외야진도 크게 안정을 찾은것이다.

1루에는 金奉淵과 金一煥, 2루에는 車榮華, 3루에는 梁承虎와 張鎭凡, 유격수로는 徐定煥·趙忠烈, 외야에는 金一權·林楨勉·金準桓·金鍾潤·金宇根·宋日燮등이 포진하고 있다.

호쾌한 장타력을 자랑하는 해태·타이거즈는 이제 수비진의 강화로 안정된 야포를 캐터필러에 얹어 우승을향해 돌진하고있다.

『일본에서 한큐·브레이브스와 3차례 친선경기를 갖게 됩니다. 돌아온 후에도 20게임의 연습경기 기록을 토대로 레귤러 자리를 확정지을 방침입니다』

호랑이팀 해태에는 자질구레한 갈등사인이 필요없다. 金應龍감독은 그때그때 펼쳐지는 상황에 따라 타자 스스로가 때리고 주자가 알아서 달리는 완전自主제를 만들 작정이다. 개인기록에 충실하면 팀공헌도 높아지게 마련이라는 것이 金應龍감독의 지론이다. 【方錫崎기자】

◇金奉淵

◇金城漢

◇金勇男

◇金茂宗

◇嚴平載

◇코칭·스탭

감 독	㊴	金應龍	(42)
코 치	㊶	趙昌秀	(34)
	㊲	柳南鎬	(32)
	㉟	白基成	(32)

◇선수명단

위치	배번	이름	나이	키	左右	前소속
투수	㉙	金勇男	24	182	右	한국화
〃	⑪	金城漢	23	178	〃	동국대
〃	⑯	李相潤	23	181	〃	한양대
〃	㉖	申泰中	27	184	〃	포철
〃	⑰	姜晩植	26	179	〃	롯데
〃	㉑	房水源	23	178	〃	영남대
〃	㉞	黃起善	25	180	〃	상업은
〃	㉛	嚴平載	21	180	〃	철도청
〃	⑭	金鉉宰	27	178	左	경리단
포수		金茂宗	29	181	右	廣島
〃	㊳	趙鍾奎	27	177	〃	경리단
〃	㉒	朴田燮	24	174	〃	동국대
〃	⑫	洪淳萬	26	180	〃	포철
내야	㉗	金奉淵	31	178	〃	한국화
〃	④	金一煥	29	174	左	롯데
〃	⑤	車榮華	26	176	右	〃
〃	⑲	林楨勉	25	176	〃	농협
〃	⑥	徐定煥	28	178	〃	삼성
〃	③	趙忠烈	24	171	〃	연세대
〃	㉝	梁承虎	23	176	〃	상업은
〃	⑱	張鎭凡	24	180	〃	영남대
〃	⑦	金鍾模	24	177	〃	제일은
외야	①	金一權	28	173	〃	한양대
〃	⑩	金準桓	27	178	〃	상업은
〃	⑧	金鍾潤	26	172	〃	제일은
〃	⑳	金宇根	27	178	〃	포철
〃	㊹	宋日燮	25	175	左	[illegible]

최우수選手에 陳幸範 뽑혀

【자카르타=本社國際電話】한국은 20일 이곳에서 폐막된 제6회 인도네시아대통령컵 국제복싱대회에서 금메달3·은메달3·동메달1개로 蘇聯에이어 준우승을 차지했다.

蘇聯은 금3·은2·동2개를 획득, 메달에서는 한국에 뒤졌으나 대회횟수에따른 채점에서 1점이많아 우승했다.

6명을 결승전에 올려놓은 한국은 대회최우수선수로 뽑힌 陳幸範(라이트)을비롯, 金光善(라이트플라이)·張漢坤(라이트헤비)이 각각 승리, 금메달을 차지했고 金東吉(라이트웰터)·河鍾湖(웰터)·尹永北(미들)은 은메달에 그쳤다.

◇최종일결승전적

▲라이트플라이
金光善 판정 바부와델(印尼)

▲라이트
陳幸範 3회 KO 유리(蘇聯)

▲라이트헤비
張漢坤 판정 하비볼라(파키스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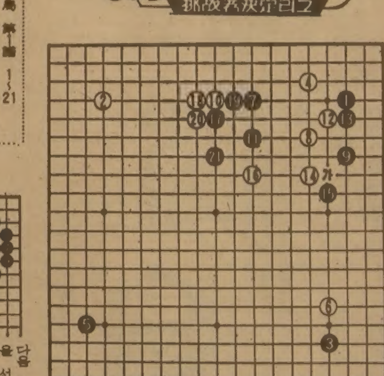
두란 KO勝 4回에 뉘어

【로스앤젤레스30日AP合同=聯】라이트및 웰터급 前세계챔피언 로베르토·두란(31·파나마)은 前웰터급세계왕자 피피노·쿠에바스(25·멕시코)를 4회에 KO시켜 차돌주먹을 과시했다.

30일(한국시간) 로스앤젤레스 스포츠·아레나에서 1만6천여 관중이 본가운데 열린 12회전 경기서 두란은 2회부터 게임의 주도권을잡고 4회 좌우 소나기펀치로 쿠에바스를 난타, 다운시켰다. 쿠에바스는 카운트9에서 일어났으나 매니저 루페·산체스씨가 경기포기신호를 보내 4회2분24초만에 두란의 승리가 선언되었다.

第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9局 第1譜 1~21 (각5시간·덤5집반)
白(4段) 李相澈<1勝1敗>
黑(6段) 張秀英<2勝0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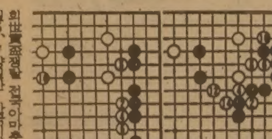


이번판도 제조의 스타트인 張6단과 名人戰에 처음으로 등장하여 반반의 전적을 기록한 李4단의 대결이다.

3귀를 차지하자 李4단은 되도록 복잡한 변화를 피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장기전의 자세, 어쩌면 제한시간을 모두 소비할지 모른다.

우선 白12, 14는 오랜만에 나타난 정석의 일종. 요즘에는 직접 「가」자리에 써우는 형을 많이쓴다. 이후 여러가지 변화가 있거니와 그중 참고1도는 기본형이다. 黑1에 대해 白2로써 黑3, 5로 나와 白6, 8 다음 白10을 선수한후 12에 뛰고 黑13이면 白14까지일 단락이며 수순중 黑3을 참고2도의 3이면 白10까지의 진행이 예상된다.

長期戰을 피하며


참고·2도 참고 1도

★제2회世賢盃쟁탈 전국아마추어대회가 2월6, 7양일간 한국기원본원과 강남지원(잠실라이프상가 3층 ☎423-4503)에서 개최된다. 【一民】

張吉山 <1654>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14)

『모진 악기 갑작하여 오는 배는 어떤 배인고, 그 배에 오는 망제는 세상 있을 적에 부모에 불효하고 동기간에 우애없고 일가에 살이 세고 동네 사람에게 불순하고 시주도 못하고 남의 욕해 잘하고 남의 말 엿듣고, 여지 흉청하고 간절하여 싸움이기와 살 죽이기와 딱이 많아 작은 되로 주고 큰 말되로 받고 짐승 많이 살생하고 만법 공주에 비발한 죄로 하탈지옥 팔산지옥으로 가는 배로구나, 저기 물에 엎혀서 불도 끄고 달도 밝고 임자없이 엎혀 있는 배는 어떤 배인고, 그배에 있는 망제는 무거신과 해삼구재와 사제삼섭과 진오기 새날도 못받고 길을 잃고 세계를 돌라 임자없이 엎혀있는 배로구나, 우여라 슬프다, 아무 망제 정성 받으신 자취에 바리공주가 천도하여 선상하여 가는 배워에 올라 아미타불 지장보살님 영을 받아 극락세계 시왕세계 연화대로 왕생천도 하소서. 도중에 부모님의 살여와 부닥치게 되었다. 바리공주가 부모님 시신을 내어 입가에 약물을 흘려 넣으니 모두 소생하였다.

『에우 석어 석어, 연그저께 살았던 몸이 넋이 되고 혹이 되어서 영혼이란 말이 해탈이나, 우리 착한효부 자손들아, 나는 오늘 극락 가고 싶은 가신다 모두 큰 일을 했으니 내가 복와 주마, 내가 발을어 주마, 내 살던 곳게 나고 나 좋은 섬날 편안하게 도와주고, 우리 금같은 자손들 복이 되고 귀히 되고 아무쪼록 내가 돌봐주고 돌봐주마. 엔하마라 나는 모두 자손 덕에 극락 가고, 부처님의 기자되어 훨훨 날아서 나는 극락 가고 시왕 가신다. 가누나 사마 진이오 보내는니 앉는 간작 일하자 영이행에 베개 넘어가 숨이로다』

하며 넋을 보내고 나니 뒷전을 거쳐서 모두 끝이났다. 묘목은 살우인 장례와 함께 계화의 굿을 받으면서 맨먼이나 가슴이 저리도록 갈등을 느꼈다. 그것은 저 이상스런 힘을 가지고 엮어지고 허우적대면서 지옥을 헤엄쳐 지나가는 바리공주의 환난고초 때문이었다. 무지개를 건너서 지옥을 헤쳐 나와 칼끝한 종류의 장막 위에다 생명의 불꽃기를 피우는 지장보살이 보일듯 하였다. 굿판의 열기는 새벽이 가까와 올수록 더욱 달아 보이는 것같았다. 굿판은 끝났으나 무감차례가 되어 문상꾼 몇네 사람들이 흥에 겨운 사람들 차례대로 판에 뛰어들어 한바탕 흔들려지게 춤추고 놀았다. 다음에는 화회의 마누라 무당이 판을 휘어잡고, 이어서 계화의 남편 김승이가 갑드러진 목소리로 올조린는데 제법 화려하 갖았다. 화랭이란 무부(巫夫)를 일컫는 것이지만 미륵님을 받드는 당취(黨聚)라는 의미도 있었으니, 까마득한 옛적부터 미륵님을 받드는 자들을 화랑이나 향도라고 부르던 까닭이다. 황회나 정원때 돌이 시작한 경계는 풀이하며니와 종잡이네 살쭈게도 살았던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었던 향도계(香徒契)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았던 터였다. 김승이 구월산 일대의 화랭이를 사이에 잘알려진 창세가(創世歌)를 풀었다.

『미륵님의 세월에는 섬들이 말씀이 잘수시고 있간 세상이 태평했으며 석가님이 내려와서 이세월을 빼앗자고 마련하여 미륵님의말씀이 아직은 내 세월이요 네세월이 아니다. 석가님 말씀이 미륵의 세월은 다 갔으니 내 세월이 분명하다. 미륵님 말씀이 네 내 세월인줄 알겠거든 내기를 시행하란』

金得九선수어머니 梁善女씨 自殺 충격

아들葬禮후 바깥出入않고 悲痛의 나날
遺品불태우고 평소"나도 뒤따라가야지"

◇아들의 장례식때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열하던 梁善女씨. 옆은 金賢治매니저.

어머니의 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만큼 절박했던 것일까.

故 金得九선수의 어머니 梁善女씨(66)의 자살은 충격과함께 「金得九비극」을 되살려놓았다. 함가에서는 梁씨가 金得九사건때 보여준 너무도 침착하고 강인한 태도에 대해 『아들을 잃은 어머니로서 차라리 차분하고 강인하기도 했지만 梁씨와 친하게 지낸 많은 권투관계자들은 『모든 슬픔을 안으로 가라앉히는 침착한 성품과 한국적 모성애를 갖춘 어머니』라고 말했다.

특히 梁씨는 金得九선수 사망후 각계에서 들어온 조위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다운 태도를 지켜 감명을 주었다. 당초 한국권투위원회(KBC)는 1억2천여만원의 성금을 어머니에게 60%, 약혼녀에게 40%를 분배할 계획이었으나 梁씨가 『나는 내 아들이 죽어서 번돈에 관심이 없다. 내가 40%를 갖고 60%는 며느리에게 주라』고 주위에 당부했다.

金賢治 매니저에게는 『아들의 뜻을 살리는 사업이 있으면 나에게 돌아온 모든 돈을 내놓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추모사업이 제대로 성사되지않자 3천만원을 들여 아들묘지를 확장하고 싶다고했다. 梁씨는 金선수의 장례를 지내고난후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않은채 울기만 했다는게 주변의 이야기다. 梁씨는 金得九의 사십구일제를 지낸 지난1월4일 가운 트레이닝복등 유품을 불태워버리고 아들의 사진을 보며 『나도 저놈뒤를 따라가야지』하고 슬퍼했으며 최근에는 金得九의 생애를 영화화하는 문제를놓고 고심해왔다.

梁씨의 자살동기를 놓고 갖가지 추측이 나돌고있으나 梁씨는 말한마디 남기지않고 조용히 세상을 등졌다. 【金仁奎기자】

● 백학같이 우아한 미!

●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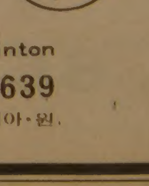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실비아·원.

533—2361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쎌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림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초레스토랑(월-금: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 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Enco Mechanical 냉동기·히팅(전기·개스) 수리·설비.
Lic. Mechanic. Engineering Technician
전화: 769-5956 김명근.

RASCO 냉동 -★에어콘, 히팅, 워킹쿨러, 후리저,
Washers, Dryers, Stoves등등 시설·판매수리.
전화: 439-0047 Mr. 최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921-7486(R) 유문원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이삿짐센타

이사하실 분은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전화 : 533-9233 Mr. 유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4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 번 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탁.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자동차 수리 (파타임)
전기 일체에 관한 일
전화 : 291-4547 Mr. 윤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Stewarts 카페엣 Land(70%까지 세일중)
무료설치, 스폰지 무료, 무료배달.
1200 Kennedy Rd. Scarboro(Tel. 757-281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 - 스카보로
◉1974년도 육대학 경제과 전공 ◉1976년도 육대학 경영관리학 회계학전공 ◉현 캐나다최대의 컴퓨터회사의 어카운터 메니져 ◉소규모사업체 회계사무 6년경험
44 Gil Roy Dr. Scar. Ont. M1P 1J9
전화 : 752-9332(R) (오후 5시30분이후)

광고문의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THE KOREA TIMES Toronto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햄버거숍에서 파트타임 오전중에 일하실분.
오전 11시~오후 3시
전화 : 447-1460 (오후 3시 이후)

저녁때 일할 파트타임 Hairstylist 구함.
Knob Hill Farms, 222 Lansdowne Ave.
전화 : 531-1011 Manager

도넛숍 카운터 헬퍼 구함.
(1)밤12시~아침8시 (2)주말 아침8시~오후4시
전화: (B)690-3920, (R)491-8734 Mr. 김

적은 「레스토랑」 맡아서 하실분. ◉약간의 경험이 있으시면 더욱 좋음.(부부가 운영 가능함) ◉보증금: $1,000
695 The Queensway 전화: 251-1423(오후7시이후 요망)

영어할수 있는 풀타임 여자 캐쉬어 구함.
주5일, 교통 편한곳임, 다운타운 지역
전화: 699-3953

풀타임, 파트타임 도넛숍에서
밤일 하실분 구함.
전화: 977-0303

밴운전 할수있고 사다다리 올라갈수 있는 미혼남자.
그림 그릴수 있으면 좋음. 1일 8시간 근무. 127 Manville Rd.
전화 : B)755-9087, R)755-5304 Mr. Lee Scarboro, Unit 9 rear.

입주하셔서 애기와 가사 돌봐주실
할머니 구함.
전화 : 266-6355

여자 캐쉬어 급히 구함.
영주권 가진 자.
전화: 691-6768 Mr. 김

Tavern 에서 일하실 경험 있은
젊은 웨이트레스 구함.
전화: 491-4058

World Book—Childcraft of Canada
A division of SFZ International, Ltd.

자녀들의 필수교과서 "WORLD BOOK" 백과사전
총 22권 • Special 가격으로 판매.
문의처 : 533-2364 김
767-1702 (오후 6시이후)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남자친구를 찾고 있읍니까?
24살의 남자가 18세~30세 여성을 찾고 있읍니다.
전화: 532-3465 Marshall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	224-2491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승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221-2556 Mrs. 리(Finch & Yonge 근처)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광고문의 533-2361

매 매

타사업 운영으로 인해 아동복 전문점 급매.
좋은 조건으로 양도하겠음. 꼭 흥미있는 분만 연락요망.
전화 : 530-0023

Hardware 비지네스 $25,000
좋은위치, 넓은 파킹장, 렌트및 장비양호
전화: 883-1721 Harry Pridham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2층에 살림집 있고 렌트 월 $600. 2년+5년 옵션. 관심있는 분만 연락바람. 247-1090

◉연평균 주매상 약4천불의 버라이어티 스토아
렌트: $450. 4년+5년 이층아파트 입주 가능
권리금: 3만5천.(전화 225-1204)

Soft Ice Cream 머신 일절 매매.
★산지 2년 됐음.
전화: 961-3517

매매 (Tuck Shop)
100% Cash Deal
전화 : 242-2630 Mr. Park(밤 10시30분 이후)

가게 매매 또는 매니저 - 해밀톤
주매상: $5,000. 렌트: $500. 리스: 5년+5년
전화 : 498-5242(토론토)

◉쇼핑 Mall Smoke Shop
좋은 리스, 아스킹: $55,000
◉새로 시작한 Donut Shop
밝은 전망, 아스킹: $60,000
◉버라이어티 스토아 — 주매상: $5,500
★535-0028 Mr. 김

COIN LAUNDRY

28 Washers, 2 Heavy Duty Washers, 11 Dryers,
1 Pop Vending Machine, 1 Soap Machine.
Lease august 31, 1988, extention possible.
Yearly net income $24,000(Minimum)
Asking price $50,000(one price)
Address: 3412 Dundas St. W. Tor.(in Plaza)
Telephone: 762-1264

◉몬트리얼 영어지역에 위치한 수퍼마켓 매매
좋은 리스 드림, 건물 매매도 가능함.
연매상: 80만불, 현주매상: $14,000
윗층에 아파트 4½ Room 있음.
◉가게를 맡아서 운영하실 메니저 구함.
전화 : 1-514-481-3291 Mrs. 김

에드몬톤에 있는 주유소 급매.
정비공장 가스스테이숀, 자동차 Part Shop, 토잉설비
Asking: $125,000(설비+Part+토잉트럭 완전포함)
연 Net Income: 7만불
연락처: 1-403-475-9613, 1-403-475-1631 Mr. 박
(Collect Call도 무방함)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3 Pcs. Wall Unit. $199
2)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거울달린 화장대 $79
4)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5 pcs. Kitchen set(식탁 + 4개의 의자) $89
6)쇼파 4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해밀턴에 성업중인 가게 급매.
전화 : 1- 560-0612 Jimmy (오후2시에서 밤12시)

◉아이스크림 커피숍: 바쁜 Indoor Mall, 일요일 닫음, 리스 9년, 권리금: 7만 9천 ◉가게와 건물: ~~1)토론토 서쪽60마일, 주매상: 6천+티켓, 2Bed Rm.아파트 3개, 가격: 19만불,~~ 2)주매상: 5천5백, 짧은 영업시간, 가격: 19만불 ◉코리아타운 투자용건물: 40만불 다운페이, 가격: 89만9천.
(황용현부동산) Call 임윤식(Tony) 449-8644 (B), 636-7950(R)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타운하우스 렌트 혹은 매매. 3 Bed Rm.
쇼핑쎈타및 학교 지하철 가까움. 동부 한국식품 근처.
렌트: 월 $630. 전화 : 439-4885

방 하나 세놓음.
◉월: $150
전화: 466-2455(저녁6시 이후) Mrs. 조

가게 렌트.(약500sq. ft.) ◉렌트: 월650
꽃가게 그로서리 적합. 다운타운. 신개발지역.
전화: 766-4504, 493-9599, 365-1489 다이엘

---

2 Bed Rm. 아파트 써브렛.(3월1일부터 입주 가능)
Queen & Lansdowne. 써브웨이 가까움.
렌트: 월 $402. 전화: 537-7624 Mr. 이(오후 7시이후)

아파트 렌트. ◉1Bed Rm. 독신. 월 $190
◉2Bed Rm. 부부. 월 $290
전화: 766-4504, 493-9599, 365-1489 다니엘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1440 Bathurst St. (21 Vaughan Rd.)
전화 : 657-1785 (김 만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Bloor & Kennedy 꽃집
결혼, 개업용 화환및 Plant
2194 Bloor St. W. 전화 : 766-0175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767-1702(6시이후)(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4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 (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광고문의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 한 수)
전화 : 868-0922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쎈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퀴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방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W.
535·9541 MR 김